

# 추월색(秋月色)

최찬식

시름없이 오던 가을비가 그치고 슬슬 부는 서풍이 쌓인 구름을 쓸어 보내더니, 오리알빛 같은 하늘에 티끌 한 점 없어지고 교교(皎皎)<sup>1)</sup>한 추월색이 천지에 가득하니, 이때는 사람사람마다 공기 신선한 곳에 한 번 산보할 생각이 간절히 나겠더라.

밝고 밝은 그 달빛에 동경 상야공원(上野公園)이 한 폭 월세계(月世界)를 이루었으니, 높고 낮은 누대(樓臺)<sup>2)</sup>는 금벽(金碧)이 찬란하며, 꽃 그림자 대 그늘은 서로 얽혀 바다 같고, 풀 끝에 찬 이슬은 날날이 반짝거리 아름다운 야경이 그림 같이 영롱한데, 유쾌하게 노래 부르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은 모두 달 구경하는 사람이더니, 밤은 어느 때나 되었는데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헤어져 가고 적적한 공원에 월색만 교결(皎潔)<sup>3)</sup>한데, 그 월색 안고 불인지(不忍池) 관월교(觀月橋)<sup>4)</sup> 돌난간에 의지하여 오뚝 섰는 사람은 일개 청년 여학생이더라.

그 여학생은 나이 십 팔구 세쯤 된 듯하며, 신선한 조화로 머리를 장식하고, 자줏빛 하카마<sup>5)</sup>를 단정하게 입었는데, 그 온아(溫雅)한 태도가 어느 모로 뜯어보든지 천생 귀인의 집 규중에서 고이 기른 작은 아씨더라.

그 여학생의 심중에는 무슨 생각이 그리 첩첩한지 힘없이 서서 달빛만 바라보는데, 그

달 정신을 뽑아다가 그 여학생의 자색을 자랑시키려고 한 듯이 희고 흰 얼굴에 밝고 밝은 광선이 비취어 그 어여쁜 용모를 이루 형용해 말하기 어려우니 누구든지 한 번 보고 또 한 번 다시 보지 아니치 못하겠더라.

그 공원 속에 남아 있는 사람은 이 여학생 한 사람뿐인 듯하더니, 어떤 하이칼라적<sup>6)</sup> 소년이 술이 반쯤 취하여 노래를 부르며 불인지 옆으로 내려오는데, 파나마모자<sup>7)</sup>를 푹 숙여 쓰고, 금테 안경은 코허리에 걸고, 양복 앞섶 떡 갈라붙인 속으로 축 늘어진 시곗줄은 월광(月光)에 태워 반짝반짝하며, 바른손에는 반쯤 탄 여송연(呂宋煙)<sup>8)</sup>을 손가락에 감아쥐고, 왼손으로 단장(短杖)을 들어 향하는 길을 지점(指點)<sup>9)</sup>하고 회뚝회뚝 내려오는 모양이, 애모(愛慕)한 부형의 재산도 꽤 없애 보고, 남의 집 시악시<sup>10)</sup>도 무던히 버려 주었겠더라.

그 소년이 이 모양으로 내려오다가 관월교가에 홀로 섰는 여학생을 보더니 모자를 벗어 들고 반갑게 인사한다.

(소년) “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사이 귀체(貴體) 건강하시오니까?”

(여학생) “예, 기운 어떻시오?”

(소년) “요사이는 어찌 그리 한 번도 만나 뵈 수 없습니까?”

1) 달이 썩 맑고 밝음.

2) 누각과 대사(臺榭)와 같은 높은 건물.

3) 달빛이 밝고 맑음.

4) 도쿄 우에노 공원 내에 위치한 천연 연못과 다리.

5) 허리 아래에 입는 품이 넓은 일본 하의. 메이지 시대에는 여학생의 교복이기도 하였음.

6) 서양식 유행을 따르는 일. 또는 그런 사람.

7) 파나마풀의 잎을 잘게 쪼개어 벌에 바랜 다음 짜서 만든 여름 모자.

8) 엽결련.

9)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임.

10) 색시.

(여학생) “근일(近日)에 몸이 좀 불편해서 아무 데도 못 갔습니다.”

(소년) “..... 아, 어쩐지 일요강습회에도 한 번 아니 오시기에 무슨 사고가 계신가 하고 매우 궁금히 여기던 차이올시다. 그래, 지금은 쾌차하시오니까?”

(여학생) “조금 낫습니다.”

(소년) “나도 근일에 몸이 대단히 곤하여 오늘도 종일 누웠다가 하도 울적하기에 신선한 공기나 좀 쐬어볼까 하고 나왔더니, 비 끝에 달빛이라 참 좋습니다. 그러나 추월색은 영인초창(寧人稍愴)<sup>1)</sup>이라더니, 그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정히 상합니다그려. .... 허..... 허..... 허..... 허.”

(여학생) “.....”

(소년) “그런데 산본(山本) 노파 언제 만나 보셨습니까?”

(여학생) “산본 노파가 누구오니까?”

(소년) “아따, 우리 주인 노파 말씀이오.”

(여학생) “글쎄요, 언제 만나보았던지요?”

여학생의 대답이 그치자, 소년이 무슨 말을 할듯할듯 하다가 아니하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병긋병긋하다가 못하더니 여학생의 얼굴을 다시 한번 건너다보면서,

(소년) “그 노파에게 무슨 말씀 들어 계시지요?”

여학생은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 말 없이 비속 돌아서며 이슬에 젖은 국화 가지를 잡고 맑은 향기를 두어 번 맡을 뿐인데, 구름 같은 살쩍과 옥같은 반뺨이 모두 소년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간다. 그 소년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말을 한마디 간신히 하였건마는 여학생의 대답은 없으며 물끄러미 한참 보다가 말 한마디를 또 꺼내더라.

(소년) “그 노파에게도 응당 자세히 들어 계시겠지만, 한 번 조용히 만나면 할 말씀

이 무한히 많던 차올시다.”

그 소년은 여학생을 만나 인사하고 수작 붙이는 모양이 매우 친숙도 한 듯이 무슨 긴 절(緊切)<sup>2)</sup>한 의논도 있는 듯이 노파를 엿어가며 말하는데, 그 말 속에 무슨 은근한 말이 또 들었는지 여학생은 그 말대답 또 아니하고 먼 산을 한 번 바라보더니,

”아마 야심한 듯하니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간다.

그 소년의 마음에는 어떠한 욕망이 있는지 여학생의 대답하는 양을 들어보려고 그 말끝을 꺼낸 듯한데, 여학생은 냉연히 사절하는 모양이니, 소년도 그 눈치를 알았을 듯하건마는 무슨 생각으로 내려가는 여학생을 굳이 따라가며 이말 저말 또 다시 한다.

(소년) “괴로운 비가 개더니 달빛이야 참 좋습니다. 공원이란 곳은 원래 풍경이 좋은 곳이지마는, 저 달빛이 몇 배나 공원의 생색을 더 냅니다그려. 인간의 이별하고 만나는 인연은 실로 부평(浮萍) 같은 일이지마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때와 이렇게 좋은 곳에서 기약없이 만나기는 참 뜻밖에 기회요구려..... 여보시오, 조금도 부끄러우실 것 없소. 서양 사람들은 신랑 신부가 직접으로 결혼한다. 우리도 소개니 중매니 할 것 없이 직접으로 의논함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학생) “다 듣다가 그게 무슨 말씀이오?”

(소년) “이렇게 생시치미 뻔 것 있소? 아까도 말씀하였거니와 왜, 노파를 소개하여 의논하던 터가 아니오니까?”

(여학생) “기다랗게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노파든지 누구든지 나는 이왕 결심한 바 있다고 말한 이상에 당신은 번거롭게 다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일로나 교제하실 것이오, 그 말씀은 영구히 단념하십시오.”

1) 편안한 사람도 근심스럽게 함,

2) 매우 필요하고 절실함.

그 여학생과 소년의 수작이 이왕도 많이 언론폐던 일인 듯한데, 여학생이 이처럼 거절하니 소년이 사람스러운 터 같으면 이렇게 거절당할 듯한 말을 당초에 내지 아니하였을 터이오, 또 거절을 당하였으면 무안하여도 저는 저대로 가서 달리나 운동하여 볼 것이건마는, 또 무슨 생각이 그렇게 민첩하게 새로 생겼던지, 가장 정다운 체하고 여학생의 옆으로 바싹바싹 다가서더니 말했다.

(소년) “당신의 결심한 바는 내가 알려고 할 것 없거니와 저기 저것 좀 보시오. 어제 같이 작작(灼灼)<sup>1)</sup>하던 도화가 어느 겨를에 다 날아가고, 벌써 가을바람에 단풍이 들었소 그려. 여보, 우리 인생도 저와 같이 오늘 청춘이 내일 백발을 정한 일이 아니오? 이처럼 무정한 세월이 살 같이 빠른 가운데 손 같이 잠깐 다녀가는 우리는 이 한 세상을 이렇게도 지내고 저렇게도 지내봅시다그려. 허……. 허……. 허……. 허…….”

소년이 그렇게 공경하던 예모(禮貌)<sup>2)</sup>는 다 어디로 가고 말 그치자 선웃음 치며 여학생의 옥 같은 손목을 턱 잡으니, 여학생은 기가 막혀서,

(여학생) “이것이 무슨 무례한 짓이오! 점잖은 이가 남녀의 예우(禮遇)<sup>3)</sup>를 생각지 아니하고 이런 야만의 행위를 누구에게 하시오?”

하고 손목을 뿌리치는데,

(소년) “이렇게 큰 변 될 것이 무엇 있소? 야만에서 커진 문명국 사람은 악수례(握手禮)<sup>4)</sup>만 잘들 하데……. 이렇게 접문례(接吻禮)<sup>5)</sup>도 잘들 하고……. 하……. 하…….”

하면서 한층 더해서 접문례를 하려고 달려

1) 꽃이 핀 모양이 화려하고 찬란함.  
2) 예절에 맞는 몸가짐.  
3) 예의를 지켜 정중히 대우함.  
4) 악수를 하는 예의.  
5) 입맞춤.

드니, 여학생은 호젓한 곳에서 불의의 변괴를 당하며 분한 마음이 탕천(撐天)하나 소년의 패행(悖行)<sup>6)</sup>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방비할 계책과 능력은 하나도 없고 다만 준절(峻截)<sup>7)</sup>한 말로 달란다.

(여학생) “여보시오, 해외에 유학도 하고 신사상도 있다는 이가, 이런 금수의 행실을 행코자 하면 어찌하자는 말씀이오? 당신은 넉넉한 학문과 우월한 재화가 국가도 빛내고 천하도 경영하실 터이거늘, 지금 일개 여자에게 악행위를 더하고자 하심은 실로 비소망어평일(非所望於平日)<sup>8)</sup>이로구려. 어서 빨리 돌아가 회개하시고, 다시 법률에 저촉되지 않기를 부디 주의하시오.”

(소년) “법률이니 도덕이니 그까짓 말은 다 해 쓸 데 있나? 꽃 같은 남녀가 이런 좋은 곳에서 만났다가 어찌 무로히 그저 헤어져 갈 수 있나……. 하……. 하……. 하……. 하…….”

소년은 삼천 장(丈) 무명업화(無明業火)<sup>9)</sup>가 남아미리가주(南亞美利加洲)<sup>10)</sup> 딘보라소 활화산 화염 치밀듯 하여, 예절이니 염치니 다 불고(不顧)하고 음흉 난잡한 말을 함부로 내던지며 여학생의 가늘고 약한 허리를 덩씩 안고 나무 수풀 깊고 깊은 곳, 육모정<sup>11)</sup>속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들어가니, 이때 형세가 솔개가 병아리를 찬 모양이라.

여학생은 호소할 곳도 없이 기가 막히는 경우를 만나매 악이 바짝 나서 모만사(冒萬死)<sup>12)</sup>하고 쪼뚝던 힘을 다 써서 항거하노라니, 두 몸이 한데 뒤틀어져서 이리로 몰리고

6) 도리에 어그러진 행위.  
7) 위엄 있고 정중함.  
8) 평소애 바라던 바가 아님.  
9) 깨치지 못한 데서 오는 나쁜 마음이나 불같이 성내는 마음.  
10) 남아메리카주.  
11) 육각정.  
12) 만 번 죽기를 무릅쓰.

저리로 몰리며 죽을 등 살 등 모르고 서로 상지(相持)<sup>1)</sup>한다.

어떤 사람이든지 제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화증(火症)이 나는 법이라. 소년은 불같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중, 여학생이 죽기를 한 하고 방색(防塞)<sup>2)</sup>하는 양에 화증이 왈각 나며 화증 끝에 악심이 생겨서 왼손으로는 여학생의 젖가슴을 잔뜩 움켜잡고, 오른손으로는 양복 허리에서 단도를 빼어 들더니,

(소년) “요년아, 너 이렇게 악지<sup>3)</sup>부리는 이유가 무엇이나? 소위 너의 결심하였다는 것이 무슨 그리 장한 결심이나? 너 이년, 너의 꽃다운 혼이 당장 이 칼끝에 날아갈지라도 너는 네 고집대로 부리고 장부의 가슴에 무한한 한을 맺을 터이나?”

(여학생) “오냐, 죽고 죽고, 또 죽고 만 번 죽을지라도 너 같이 개 같은 놈에게 실절(失節)<sup>4)</sup>은 아니하겠다.”

그 말에 소년의 악심이 더욱 심하여 말이 막 그치자 번쩍 들었던 칼을 그대로 푹 찌르는데, 별안간 한 모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이놈아, 이놈아!”

소리를 지르며 급히 쫓아오는 바람에 소년은 깜짝 놀라 여학생 찌르던 칼도 미처 뽑을 새 없이 삼십육계의 줄행랑을 하고 여학생은, “에그머니!”

한마디 소리에 기절하고 땅에 넘어지니 소슬한 한풍은 나무 사이에 움직이고 참담한 월색은 서천에 기울어졌더라.

소리를 지르고 오던 사람은 중산모자 쓰고 후록고투<sup>5)</sup>입은 청년 신사인데, 마침 예비해 두었던 것 같이 달려들며 여학생의 몸에 박

1)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의견을 고집함.  
2) 들어오지 못하게 막음.  
3)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는 고집.  
4) 절개를 지키지 못함.  
5) 프록코트(frock coat). 남자용 예복으로 보통 검은색이며 저고리 길이는 무릎까지 이룸.

힌 칼을 빼어 들더니, 가만히 무슨 생각을 한참 하는 판에 행순(行巡)<sup>6)</sup>하던 순사(巡査)<sup>7)</sup>가 두어 마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차츰차츰 오다가 이곳에 다다르매 꽃봉오리 같은 여학생은 몸에 피를 흘리고 땅에 누웠고, 그 옆에는 어떤 청년이 손에 단도를 들고 섰으니 그 청년은 갈 데 없는 살인범이라.

순사가 그 청년을 잡고 박승(縛繩)<sup>8)</sup>을 꺼내더니 다짜고짜로 청년의 손목을 척척 얹어 놓고 호각을 ‘호루룩호루룩’ 부니, 군도(軍刀) 소리가 여기서도 제격제격하고 저기서도 제격제격하며 경관이 네다섯이 모여들어 여학생은 급히 병원으로 호송되고 그 청년은 즉시 경찰서로 압거(押去)<sup>9)</sup>하니, 이때 적요(寂寥)<sup>10)</sup>한 빈 공원에 달 흔적만 남았더라.

그 여학생은 조선사람이오, 이름은 이정임(李貞姪)인데, 이(李) 시종(侍從)<sup>11)</sup> ○○의 딸이라.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가 없으리오마는, 이정임의 부모 이시종 내외는 늦게 정임을 낳으매 슬하 혈육이 다만 일개 여자 뿐인 고로, 그 애지중지(愛之重之)함이 남보다 특별히 귀하게 여기는 터인데, 그 이시종의 옆집에 사는 김(金) 승지(承旨) ○○는 이시종의 죽마고우(竹馬故友)일 뿐 아니라 서로 지기(知己)<sup>12)</sup>하는 친구인데, 그 김승지도 역시 늙도록 아들이 없어 슬퍼하다가 정임이 낳던 해에 관옥(冠玉)<sup>13)</sup> 같은 남자를 낳으니, 가없이 기뻐하여 이름을 영창(永昌)이

6) 살피며 돌아다님.  
7) 일제 강점기 때, 경찰관의 최하위 계급.  
8) 포승줄.  
9) 죄인을 압송하여 감.  
10) 적적하고 고요함.  
11) 대한제국 때, 시종원의 한 벼슬. 왕 옆에서 항상 어복(御服)과 어물(御物)을 나누어 맡던 직분.  
12)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  
13) 관의 앞을 꾸미는 옥으로 남자의 아름다운 얼굴을 비유한 말.

라 하고, 더할 것 없이 귀하게 기르는 터이라.

이시종은 김승지를 만나면,

“자네는 저러한 아들을 두었으니 마음에 오죽 좋겠나. 나는 일개 여아나마 남달리 사랑하네.”

하며 이야기하고 서로 친자식 같이 귀애하니, 그 두 집 가정에서일지라도 서로 사랑하기를 남의 자손 같이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 두 아해가 두 살 되고 세 살 되어 걸음도 배우고 말도 읊기때, 놀기도 함께 놀고 장난도 서로 하여 친형제와 같이 정다우며 쌍둥이와 같이 자라는데, 자라날수록 더욱 심지(心志)<sup>1)</sup>가 상합(相合)<sup>2)</sup>하여 글도 같이 읽고, 좋은 음식을 보아도 나눠 먹으며, 영창이가 아니 오면 정임이가 가고, 정임이가 아니 오면 영창이가 와서 잠시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그 정분이 점점 깊어가더라.

그 두 아해가 나이도 동갑이요, 얼굴도 비슷하고 정의도 한 뜻 같으나, 다만 같지 아니한 것은 계집아해와 사내아해인 고로 정임의 부모는 영창이를 보면 대단히 부러워하고, 영창의 부모는 정임을 보면 매우 탐을 내는 터인데, 정임이 일곱 살 먹던 해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이시종이 술이 열근히 취하여 마누라를 부르고 좋은 낫으로 들어오는지라, 부인은 마루로 마주나가며,

(부인) “어디서 저렇게 약주가 취하셨소?”

(이시종) “오늘이 명일(名日)<sup>3)</sup>이 아니오? 김승지하고 술을 잔뜩 먹었소. 늘그막에 정붙일 것은 술밖에 없소그려……. 허……. 허…….”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 “마누라, 오늘 정임이 혼사를 확정하

였소……. 저희끼리 정답게 노는 영창이하고…….”

(부) “그까짓 바지 안에 똥 묻은 것들을 정혼이 다 무엇이오니까? 하……. 하…….”

(이) “누가 오늘 신방을 차려주나……. 그래 두었다가 아무 때나 저희들 나이 차거든 초례(醮禮)<sup>4)</sup>시키지……. 마누라는 늘상 영창이 같은 아들 하나 두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지 아니했소? 사위는 왜 아들만 못한가……. 이 애, 정임아, 오늘은 영창이가 어찌 아니 왔느냐?”

하는 말끝이 떨어지기 전에 영창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영창) “정임아, 정임아, 우리 아버지는 부럼 많이 사오셨단다. 부럼 깨 먹으러 우리 집으로 가자……. 어서……. 어서…….”

(이) “허……. 허……. 허, 우리 사위 오시나, 어서 들어오게. 자네 집만 부럼 사 왔다던가? 우리 집에도 이렇게 많이 사 왔다네.”

하고 벽장문을 열고 호도, 잣을 내어주며 귀애(貴愛)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놓지 거리를 붙이며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사랑으로 나가고, 정임이와 영창이는 부름을 까먹으며 속살거리고 이야기하는데,

(영창) “이 애, 정임아, 나는 너한테로 장가 가고, 너는 나한테로 시집온다더라.”

(정임) “장가는 무엇하는 것이고, 시집은 무엇하는 것이냐?”

(영) “장가는 내가 너하고 절하는 것이고, 시집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것이라더라.”

(정) “이 애, 누가 그러더냐?”

(영)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너의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더라.”

(정) “이 애, 나는 너의 집에 가서 살기 싫

1) 마음과 뜻.

2) 서로 잘 맞음.

3) 명절.

4) 전통적으로 지내는 혼인 예식.

다. 네가 우리 집으로 시집오너라.”

두 아해는 밤이 깊도록 이렇게 놀다가 헤어져 갔는데, 그 후부터는 정임의 집에서도 영창이를 자기 사위로 알고 영창의 집에서도 정임이를 자기 며느리로 인정하여 두 집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그 두 아해들도 혼인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의미는 알지 못하나 영창은 정임에게로 장가갈 줄로 생각하고, 정임은 영창에게로 시집갈 줄 알더라.

정임과 영창이가 이처럼 정답게 지내더니, 영창이 열 살 되던 해 삼월에 김승지가 초산(楚山) 군수로 서임(敍任)<sup>1)</sup>되니 가족을 데리고 즉시 군아(郡衙)에 부임할 터인데, 정임과 영창이가 서로 떠나기를 애석히 여기는 고로 이시종 집에서는 가족을 솔거(率去)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권고하나, 김승지는 가계(家計)가 원래 유족치 못한 터이라.

군수의 박봉을 가지고 식비와 교제비를 제하면 본가에 보낼 것이 남지 아니하겠으니 가족을 데리고 가는 것이 필요가 될 뿐 아니라, 설령 가사는 이시종에게 전혀 부탁하여도 무방하겠지마는, 김승지는 자기 아들 영창을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애정을 이기지 못하여 침식(寢食)이 달지 아니한 터인 고로, 부득이하여 부인과 영창을 데리고 초산으로 떠나가는데, 가는 노정(路程)<sup>2)</sup>은 인천으로 가서 기선(汽船)<sup>3)</sup>을 타고 수로로 갈 작정으로, 상오 아홉시 남대문 밖 인천행 열차로 발정(發程)<sup>4)</sup>할새, 정임이는 남문역에 나아가서 방금 떠나는 영창의 손을 잡고 서로 친절히 전별(餞別)한다.

(정) “영창아, 너하고 나하고 잠시도 떠나지 못하다가 네가 저렇게 멀리 가면 나는 놀

1) 벼슬자리를 내림.  
2) 거쳐 지나가는 길이나 과정.  
3) 증기 기관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  
4) 길을 떠남.

기는 누구하고 같이 놀고, 글은 누구하고 같이 읽으며, 너를 보고 싶은 생각을 어떻게 참는단 말이냐?”

(영) “나도 너를 두고 멀리 가기는 대단히 섭섭하다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하실 생각을 하면 떨어져 있을 수 없구나. 오냐, 잘 있거라. 쉽사리 올라오마.”

정임은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더니 그 뒷등에 ‘경성 중부 교동 삼삼구(三三九)’라고 써서 영창이를 주며,

(정) “이것 보아라. 이것은 내 사진이요, 이 뒷등에 쓴 것은 우리집 통 호수(戶數)다. 만일 이 사진을 잃든지 통 호수를 잃어버리거든 삼삼구만 생각하여라.”

영창이는 사진을 받아들고 그 말대답도 미처 못해서 기적소리가 ‘뽕뽕’ 나며 차가 떠나고자 하니, 정임은 급히 차에서 내려서 스스로 나가는 유리창을 향하여,

“부디..... 잘 가거라.”

하며 옷깃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눈물을 씻는데, 기관차 연통에서 검은 연기가 물큰물큰 올라가며 차는 살 달 듯하여 어느 겨를에 간 곳도 없고, 다만 용산강 언덕 위에 멀리 의의(依依)<sup>5)</sup>한 버들빛만 머물렀더라.

정임이는 영창이를 전송하고 초창(惻愴)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집까지 울고 들어오니 이시종의 부인도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던 차에 자기의 귀한 딸이 울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다가, 좋은 말로 영창이는 속히 다녀온다고 그 딸을 위로하고 달래었는데, 정임이는 어린아해라.

어찌 부처 될 사람의 인정을 알아 그러하리오마는, 같이 자라던 정리로 영창의 생각을 한시도 잊지 못하여 제 눈에 좋은 것만 보면 영창이에게 보내준다고 꼭꼭 싸두었다가 인편 있을 적마다 보내기도 하고, 영창의 편지

5) 풀이 무성하여 싱싱하게 푸름.

를 어제 보았어도 오늘 또 오기를 기다리며, 꽃피고 새 울 때와 달 밝고 눈 흰 적마다 시름없이 서천(西天)을 바라고 눈썹을 찡그리더라.

정임이가 영창이 생각하기를 이렇듯 괴롭게 그해 일 년을 십 년 같이 다 지내고, 그 이듬해 봄이 차차 되어오매 영창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자연 생겨서,

‘떠날 때에 쉽사리 온다더니 일 년이 지나도록 어찌 아니 오노?’

하고 문밖에서 자취 소리만 나도 아마 영창이가 오나 보다, 아침에 까치만 깃어도 아마 영창이가 오나 보다 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문밖을 내다보더니, 하루는 안마당에서 바삭바삭하는 소리에 창문을 열고 보니 사람은 아무도 없고 회오리바람이 뱅뱅 돌다가 그치는데 일기가 어찌 화창한지 희고 흰 면회(面灰)담<sup>1)</sup>에 아지랑이가 아물아물하며 멀리 들리는 버들피리 소리가 사람의 회포를 은근히 돋우는지라.

어린 마음에도 별안간 울적한 생각이 나서 후정(後庭)<sup>2)</sup>을 돌아가 거닐다가 보니 도화가 웃는 듯이 피었거늘, 가늘고 가는 손으로 한 가지를 툇 꺾어 가지고 들어오며,

(정) “어머니, 어머니. 도화가 이렇게 피었으니 작년에 영창이 떠나던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그려.”

(부인) “참 세월이 쉽기도 하다. 어제 같던 일이 벌써 돌이로구나.”

(정) “영창이는 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아니옵니까? 요사이는 편지도 보름이 지내도록 아니 오니 웬일인지 궁금합니다.”

(부인) “아마 쉬 올 때가 되니까 편지도 아니 오나 보다.”

1) 곁에 회를 바른 담.

2) 뒤곁.

(정임) “아니, 그러면 올라올 때에 입고 오게 겹옷이나 보내줍시다. 아버지가 들어오시거든 소포 부칠 돈을 달래야지요.”

하며 창문을 열고 새로 지어 차곡차곡 넣어두었던 명주 겹바지저고리와 분홍 삼팔 두루마기를 내어 백지로 두어 번 싸고, 그 거죽에 유지로 또 한 번 싸서 노끈으로 열십 자 우물정 자로 이리저리 엮을 즈음에, 이시종이 이마에 내천 자를 쓰고 얼굴에 외꽃이 피어서 들어오더니,

(이) “월……. 이런 변괴가 있나……. 응……. 응…….”

(부) “변괴가 무슨 변괴오니까?”

(이) “응응……. 응응…….”

(부) “갑갑하니 어서 말씀좀 하시오.”

(이) “초산서 민요(民擾)<sup>3)</sup>가 났대야.”

(부) “민요가 났으면 어떻게 되었던 말씀이오?”

(이) “어떻게 되고 말고 기가 막혀 말할 수 없어. 이 내부(內部)<sup>4)</sup>에 온 보고 좀 보아.”

하고 평북 관찰사의 보고를 베낀 초(抄)<sup>5)</sup>를 내어 부인의 앞으로 던지는데, 그 집은 원래 문한가(文翰家)<sup>6)</sup>인 고로 그 부인의 학문도 신문 한 장은 무난히 보는 터이라.

부인이 그 보고초(報告抄)를 집어 들고 보니,

(보고서) ‘관하 초산군에서 거(去)<sup>7)</sup> 이월 이십팔일 하오 삼시 경에 난민 천여 명이 불의에 취집(聚集)<sup>8)</sup>하여 관아에 충화(衝火)<sup>9)</sup>하고 잡석(雜石)을 난투(亂鬪)<sup>10)</sup>하여 관사와 민가 수백 호가 연소하옵고, 이민간(吏民

3) 민란.

4) 내무행정을 맡아보던 관아

5)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적음. 또는 그런 기록.

6) 대대로 글과 글씨의 재주가 있는 사람이 난 집안.

7) 지난.

8) 모아들임.

9) 일부러 불을 지름.

10) 서로 덤벼들어 어지러이 싸움.

間)1) 사상 이십여 인에 달하여 야료(惹鬧)2) 난폭하므로 강계 진위대(鎭衛隊)3)에서 병졸 일 소대를 급파하여 익일(翌日) 상오 십 시 초기에 진압되었사온데, 당해 군수와 그 가족은 행방이 불명하옵기 방금 조사 중이오나, 종내 종적을 부지(不知)하겠사오며, 민요 주창자(主唱者)4)는 엄밀히 수색한 결과로 장두(狀頭)5) 오 인을 포박하여 본부에 엄수(嚴囚)6)하옵고 이로부터 보고함.’

부인이 보고초를 보다가 깜짝 놀라며,  
(부인) “이게 웬일이오! 세 식구가 다 죽었나 보구려.”

하는 말에 정임이는 정신이 아득하여 얼굴 빛이 하얘지며 아무 말 못하고 그 모친을 한참 보다가, 싸던 옷보를 스프르 놓더니 눈에서 구슬 같은 눈물이 쭉쭉 쏟아지며 목을 놓고 우니 부인도 여린 마음에 정임이 우는 것을 보고 따라 우는데, 이시종은 영창이 생각도 들째가 되고, 평생에 지기하던 친구 김승지를 생각하고 비참한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정신없이 앓았다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우는 정임이를 위로한다.

(이) “어찌 된 사기(事機)7)를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울기는 왜들 울어? 정임아, 어서 그쳐라. 내일은 내가 초산으로 내려가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설마 죽어야 하였겠느냐. 참 이상도 하다. 김승지는 민요 만날 사람이 아닌데 그게 웬일이란 말이냐? 인자(仁者)는 무적(無敵)이라 하니, 김승지같이 어진 사람이 죽을 리는 없으리라……. 김승지가 마음은 군자(君子)요, 글은 문장(文章)이로되, 일에

당하여서는 짝없이 흐리겠다…….”

이런 말로 정임의 울음을 만류하고 가방과 양탄자를 내어 내일 초산 떠날 행장을 차려 놓고 세 사람이 수색(愁色)이 만면하여 묵묵히 앓았더니, 하인이 저녁상을 들여다 놓고 부인을 대하여 위로하는 말이,

“놀라운 말씀이야 어찌 다 하오리까마는 설마 어떠하오리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진지 어서 잡수십시오.”

하고 나가는데, 정임이는 밥먹을 생각도 아니하고 치마끈만 비비 틀며 쪼그리고 앉았고, 이시종과 부인은 상을 다가놓고 막 두어 술 쥘 때에 어디서,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며 안방 서창에 연기 그림자가 몽글몽글 비치고, 마루 뒷문 밖에는 화광이 충천하니, 밥먹던 이시종은 수저를 든 채로 급히 나가보니, 자기 집 굴뚝에서 불이 일어나서 한 끝은 서로 돌아 부엌 뒤까지 돌고, 한 끝은 동으로 뻗쳐 건넌방 머리까지 나갔는데, 술술 부는 서북풍에 비비 틀려 돌아가는 불길의 눈 깜짝할 사이에 온 집안에 핏도니 이시종 집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나 어찌할 수 없으며, 여간 순검(巡檢)8), 헌병(憲兵)9)이나 와서 우뚝우뚝 섰으나 다 쓸데없고, 변변치 못하나마 소방대도 미처 오기 전에 봄벌레 바짝 마른 집이 전체가 다 타버리고, 그뿐 아니라 화불단행(禍不單行)9)이라고 그 옆으로 한테 붙은 김승지 집까지 일시에 소존성(燒存性)10)이 되었더라.

행장(行裝)을 싸놓고 내일 아침 일찍이 초산 떠나려고 하던 이시종은 뜻밖에 낙미지액(落眉之厄)11)을 당하여 가족이 모두 노숙하게

1) 지방의 아전과 백성 사이.  
2) 생트집을 잡고 함부로 떠들어 댄.  
3) 대한제국 때에, 지방의 각 진(鎭)에 둔 군대.  
4)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  
5) 연명으로 된 소장(訴狀)의 첫머리에 적힌 사람.  
6) 엄중하게 가둠,  
7) 일이 되어 가는 가장 중요한 기틀.

8) 밤마다 순청(巡廳)에서 맡은 구역 안을 돌며 통행을 감시하던 일.  
9) 재앙은 늘 겹쳐 온다는 말.  
10) 걸은 숲처럼 거명지만 속은 누런 기운이 있도록 태움.

된 경위에 있으니 어찌 먼 길을 떠날 수 있으리오.

민망한 마음을 억지로 참고 급히 빈집을 구하여 북부 자하동 일백팔 통 십 호 삼십구간 와가(瓦家)<sup>1)</sup>를 사서 겨우 안돈하고 나매 벌써 일 주일이 지났으나, 초산 소식은 종시 묘묘(杳杳)<sup>2)</sup>하니 자기와 김승지의 관계가 정리(情理)로 하든지 의리로 하든지 생사간에 한 번 아니 가보지 못할 터이라.

삼 주일 수유(受由)<sup>3)</sup>를 얻어가지고 즉시 떠나 초산을 내려가 보니 읍내는 자기 집 모양으로 빈터에 찬 재뿐이요, 촌가는 강계대 병정이 와서 폭민(暴民)<sup>4)</sup> 수색하는 통에 다 달아나고 개미 새끼 하나 볼 수 없으니, 군수의 거취를 물어볼 곳도 없는지라.

그 인근 읍으로 다니며 아무리 탐지하여도 종내 김승지의 소식은 알 수 없고, 단지 들리는 말은 초산 군수가 글만 좋아하고 술만 먹는 고로 정사(政事)는 모두 간활(奸猾)<sup>5)</sup>한 아전의 소매 속에서 놀다가 마침내 민요를 만났다는 말뿐이라.

하릴없이 근 이십 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니, 그 부친이 다녀오면 영창의 소식을 알까하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정임이는 낙심천만(落心千萬)<sup>6)</sup>하여 한없이 비창(悲愴)<sup>7)</sup>히 여기는 모양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더라.

이시종이 초산에서 집에 돌아온 지 세 삼 일 되던 날 관보에 '시종원 시종 이〇〇 의원면본관(依願免本官)<sup>8)</sup>'이라 게재되었으니, 이

때는 갑오(甲午) 개혁정책이 실패된 이후로 점점 간알(干謁)<sup>9)</sup>이 금달(禁鬪)<sup>10)</sup>에 출입하여 뜻있는 사람은 일병(一竝)<sup>11)</sup> 배척하는 시대인 고로, 어떤 혐의자가 이시종 초산 간 새를 엿보고 성충(聖聰)<sup>12)</sup>에 모함한 바이라.

이시종은 시종 체임(遞任)<sup>13)</sup>된 후로 다시 세상에 나번득일<sup>14)</sup> 생각이 없어 손을 사절하고 문을 닫으니, 꽃다운 풀은 뜰에 가득하고, 문전에 거마(車馬)가 드물어 동네 사람이라도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알지 못할 만치 되었더라.

이시종은 이로부터 티끌 인연을 끊어버리고 꽃과 새를 벗을 삼아 만년을 한가히 보내고, 정임이는 그 부친에게 소학을 배워 공부하며 깊고 깊은 규중에서 적적히 지내는데, 영창이 생각은 때때로 암암(暗暗)<sup>15)</sup>하여 영창이와 같이 가지고 놀던 유희제구(遊戲諸具)<sup>16)</sup>만 눈에 띄어도 초창한 빛이 눈썹 사이에 가득하며, 혹 꿈에 영창이를 만나 재미있게 놀다가 섭섭히 깨어볼 때도 있을 뿐 아니라, 한 해 두 해 지나 철이 차차 나갈수록 비감한 마음이 더욱 결연하여, 여편을 읽을 적마다 소리 없는 눈물도 많이 흘리는 터이건마는, 이시종 내외는 정임의 나이 먹는 것을 민망히 여겨 마주 앉기만 하면 항상 아름다운 새사위 구하기를 근심하고 김승지 집 이야기는 입 밖에 내지도 아니하더라.

임엄(荏苒)<sup>17)</sup>한 세월이 흐르는 듯하여 정임의 나이 어언간 십오 세가 되니, 그해 칠월

11) 눈앞에 닥친 재앙(災殃).

1) 기와집.

2) 멀어서 아득함.

3) 말미를 받음.

4) 폭동을 일으킨 민중.

5) 간사하고 교활함.

6) 마음이 몹시 상함.

7)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

8)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관직을 해면(解免)함.

9) 사사로이 청탁하는 일

10) 월내에서 임금이 평소에 거처하는 궁전의 앞문.

11) 모조리.

12) 임금의 총명.

13) 벼슬을 갈아 냄.

14) 젼체하고 함부로 덤빌.

15) 잊혀지지 않고 가물가물 보이는 듯함.

16) 장난감.

17) 세월이 흐름.

열이렛날은 이시종의 회갑이라. 그날 수연(壽宴) 잔치<sup>1)</sup> 끝에 손은 다 헤어져 가고 넘어가는 해가 서산에 걸렸는데, 이시종 내외는 저녁 하늘 저문 노을빛과 푸른 나무 늦은 매미 소리 손마루 북창 앞에 나란히 앉아서 늙은 회포를 서로 이야기한다.

(이) “포말풍등(泡沫風燈)이 감가련(感可憐)<sup>2)</sup>이라더니 사람의 일생이야 참 가련한 것이야. 어제 같던 우리 청춘이 어느 겨울에 벌써 회갑일세. 지나간 날이 이렇듯 쉬 갔으니 죽을 날도 이렇게 쉬 오겠지. 평생에 사업 하나 못하고 죽을 날이 가까우니 한심한 일이오그려.”

(부) “그렇기에 말씀이오. 죽을 날은 가까우나 쓸 만한 자식도 하나 못 두었으니 우리는 세상에 난 본의(本義)<sup>3)</sup>가 없소그려. 정임이 하나 시집가고 보면 이 만년(晩年) 신세를 누구에게 의탁한단 말씀이오?”

(이) “그렇지마는 나는 양자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 얌전한 사위나 얻어서 아들 같이 데리고 있지.”

(부) “그러한들 사위가 자식만 하겠습니까마는, 하기는 우리가 죽기 전에 사위나마 얻어야 하겠습니까..... 사위 고르기는 며느리 얻기보다 어렵다는데 요새 세상 청년들 눈여겨보면 그 경박한 모양이 모두 제집 결판내고 나라 망할 자식들 같습디다. 사위 재목도 조심해 구할 것이어요.”

(이) “그야 무슨 다 그럴라구. 그런 집 자식이 그렇지.”

이렇게 수작하는 때에 어떤 사람이 사랑 중문간에서,

“정임아, 정임아.”

부르며,

1) 환갑잔치.  
2) 물거품과 바람 앞의 등불같은 가련한 인생.  
3) 진정한 뜻.

“안손님 아니 계시냐?”

하고 묻더니 큰기침 두어 번 하고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 “누님, 저는 가겠습니다.”

(부인) “그렇게 속히 가면 무엇하나? 저녁이나 먹고 이야기나 하다가 달 뜨거든 천천히 가게그려. 어서 올라와.....”

부인은 그 사람을 이처럼 만류하며 하인을 불려서,

“술상을 차려오너라, 진지를 지어서 가져오너라.”

하는데 그 사람은 정임의 외삼촌이라. 수연 치하하고 집으로 돌아갈 터인데, 그 누님의 만류하는 정의를 떨치지 못하여 마루로 올라와 앉더니, 건넌방 문 앞에 섰는 정임을 한참 보다가,

(외삼촌) “정임이는 금년으로 몰라보게 자랐습디다그려. 오래지 아니하여 서랑(壻郎)<sup>4)</sup> 보시게 되었는데요.”

(이) “그까짓년 키만 엄부령하면<sup>5)</sup> 무엇하나? 배운 것이 있어야 시집을 가지.”

(부) “그러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지금 그 걱정일세, 혼처나 좋은 데 한 곳 중매하게그려.....”

(외삼촌) “중매 잘못하면 뺨이 세 번이라는 데 잘못하다가 뺨이나 얻어맞게요..... 하..... 하.....”

(부) “생질(甥姪)<sup>6)</sup> 사위 잘못 얻는 것은 걱정 없고 뺨 맞는 것만 염려되나? 하..... 하.....”

(이) “허..... 허..... 허..... 허.....”

(외삼촌) “혼처는 저기 좋은 곳 있습니다. 옥동 박과장의 셋째아들인데, 나이는 열일곱 살이요, 공부는 재작년에 사범속소학교<sup>7)</sup>에서

4) 남의 사위의 높임말.  
5) 실속은 없이 겉만 크면  
6) 누이의 자식.  
7) 사범대 부속 소학교.

졸업하고 즉시 관립중학교에 입학하여 올해 삼학년이 되었답디다. 그 아해는 저의 팔촌 처남의 아들인데 그 집 문벌도 훌륭하고 가세도 불빈(不貧)할 뿐 아니라 제일 남자의 얼굴도 결국하고<sup>1)</sup> 재주도 초월하여 내 마음에는 매우 합당합디다마는 매부 의향에 어떠하신지요?”

이시종의 귀에 그 말이 번쩍 띄어,

“응, 그리 해? 합당하면 하다마다. 자네 마음에 합당하면 내 의향에도 좋지 별수 있나? 나는 양반도 취(取)치<sup>2)</sup> 않고, 부자도 취치 않고, 다만 당자(當者)<sup>3)</sup> 하나만 고르네.”

하면서 매우 기뻐하고, 정임이 외삼촌은 이런 이야기를 밤이 되도록 하다가 갔는데, 그 후로는 신랑의 선을 본다는 등, 사주를 받는다는 등 하더니, 하루는 이시종이 붉은 간지(簡紙)<sup>4)</sup> 내어,

‘팔월 십사 일 전안 납채(納采)<sup>5)</sup> 동일(同日) 선행(先行)<sup>6)</sup>’

이라 써서 다홍실로 허리를 매어놓고 부인과 의논해 가며 신랑의 의양단자(衣樣單子)<sup>7)</sup>를 적는다. 정임이는 영창이 생각을 잇을 만 하다가도 시집이니 장가니 혼인이니 사위니 하는 말을 들으면 새로이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터이라. 외삼촌이 혼처 의논할 때에도 영창이 생각이 뼈에 사무쳐서 건넌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몰래 씻으며 속마음으로,

‘부모가 나를 이왕 영창에게 허락하셨으니, 나는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영창의 아내이라. 비록 영창이는 불행하였을지라도 나는 결코 두 사람의 처는 되지 아니할 터이요, 저 아저

씨는 아무리 중매한다 하여도 입에선 바람만 들일걸.’

하는 생각이 뇌수(腦髓)<sup>8)</sup>에 맺혔으니 여자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부모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내던 터이더니, 택일(擇日) 단자(單子)<sup>9)</sup> 보내는 것을 보매 가슴이 섬뜩하고 심기가 좋지 못하여 몸을 비비틀며 참다가 못하여 그 모친의 귀에 대고 응석처럼 가만히 하는 말이라.

(정임) “나는 시집가기 싫어.”

(부인) “이년, 계집아해 년이 시집가기 싫은 것은 무엇이고, 좋은 것은 무엇이나?”

(이시종) “그년이 무엇이래, 나중에는 별 망측한 말을 다 듣겠네.”

(정) “아버지 어머니 보고 싶어 시집가기 싫어요.”

(부) “아비 어미 보고 싶다고 평생 시집 아니 같까, 이 못생긴 년아.”

부인의 말은 철모르는 말로 돌리는 말이라. 정임이는 정색하고 꿇어앉으며,

(정)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아버지께서 열녀(烈女)는 불경이부(不更二夫)라는 글 가르쳐주셨지요. 나를 이왕 영창이와 결혼하시고, 지금 또 시집보낸다 하시니, 부모가 한 자식을 두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영창이 종적은 알지 못하나 다른 곳으로 시집가기는 죽어도 아니하겠습니다.”

이시종이 그 말을 듣더니 별떡 일어서며 정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평생에 손찌검 한번 아니하던 그 딸을 여기저기 함부로 쥐어박으며,

(이) “요년, 요 못된 년. 그게 무슨 방정맞은 말이나! 요년, 헛줄기를 끊어놓을라. 네가 영창이 예단(禮單)<sup>10)</sup>을 받았단 말이나, 네가

1) 생김새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여무져서 빈틈이 없고.  
2) 고르지.  
3) 당사자.  
4) 두껍고 품질이 좋은 편지지로 주로 정중한 편지에 씀.  
5)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는 의례.  
6) 같은 날 먼저 보냄.  
7) 신랑이나 신부가 입을 옷의 치수를 적은 단자.

8) 뇌.  
9) 혼인할 사람의 사주를 적은 문서.  
10) 예물을 적은 단자(單子).

영창이와 초례(醮禮)를 지냈단 말이냐? 네가 간데없는 영창이 생각하고 시집 못 갈 의리가 무엇이란 말이냐, 아무리 어린 년인들.”

하며 죽일 년 잡쥐듯<sup>1)</sup> 하니, 부인은 겁이 나서,

(부) “고만두시오. 그년이 어린 마음에 부모와 떨어지기 싫어서 철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어서 고만 참으시오.”

(이) “요년이 어디 철몰라서 하는 말이요? 제 일생을 큰일 내고 부모의 가슴에 못 박을 년이지..... 우리가 저 하나를 길러서 죽기 전에 서방이나 얻어 맡겨 근심을 잊을까 하는 터에..... 요년이.....”

하며 또 한참 때려주니, 부인은 놀랍고 가엾은 마음에 살이 떨리고 가슴이 저려서 달겨들며 이시종의 손목을 잡고 정임이 머리를 뜯어놓아 간신히 말렸더라.

이시종은 원래 구습을 개혁할 사상이 있는 터인 고로, 설령 그 딸이 과부가 되었을지라도 개가(改嫁)라도 시킬 것이요, 정혼하였던 것을 거리껴서 딸의 일평생을 그릇하지 아니할 사람이라. 정임의 가슴속에 철석 같이 굳은 마음은 알지 못하고 다만 자기 속마음으로

‘정임이 말도 옳지 아니한 바는 아니로되, 내 생각을 하든지 정임이 생각을 하든지 소소(小小)<sup>2)</sup>한 일로 전정(前程)에 대불행을 취함이 불가하다.’

생각하여, 정임이를 압제(壓制) 수단으로 그런 말은 다시 못하게 하여놓고, 그날부터 침모(針母)<sup>3)</sup>를 부른다, 숙수(熟手)<sup>4)</sup>를 앓힌다 하여 바삐바삐 혼례를 준비하는데, 받아놓

1) 단단히 잡아 틀어잡.  
2) 대수롭지 않고 자질구레함.  
3) 남의 집에 매여 바느질을 맡아 하고 품삯을 받는 여자.  
4)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 또는 그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은 날이라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열사흘 날 저녁이 되었으니, 그 이튿날은 백마 탄 새신랑이 올 날이라.

정절이 옥같은 정임의 마음이야 과연 어떠하다 하리오. 건넌방에 혼자 누웠으니, 이 생각 저 생각 별생각이 다 난다. 부모의 뜻을 순종하자 하니 인륜(人倫)의 죄인이 되어 지하에 가서 영창을 볼 날이 없을 뿐 아니라 이는 부모의 뜻을 순종함이 아니요, 곧 부모를 옳지 못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요,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자 하니 그 계책은 죽는 수밖에 없는데, 늙은 부모를 두고 참혹히 죽으면 그 죄는 차라리 시집가는 것이 오히려 경(輕)할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어찌할 줄 모르다가 한 생각이 문득 나며 혼잣말로,

‘시집이란 것이 다 무엇 말라죽은 것이야! 서양 사람은 시악시부인<sup>5)</sup>도 많다더라.’

하고 별떡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 보니, 그 부모는 잔치 분별(分別)하기에 종일 근로하다가 막 첫잠이 곤히 든 모양이라. 문갑 서랍에 열쇠패를 꺼내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십원 권, 오원 권을 있는 대로 집어내어 손가방에 넣어서 들고 나오니, 시계는 아홉 점을 땡땡치는데,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며 와글와글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이 괴괴하고<sup>6)</sup>, 오동나무 그림자는 뜰에 가득차며 벽틈에 여치 소리가 짹짹할 뿐이라.

다시 건넌방으로 들어가 종이를 내어 편지 써서 자리 위에 퍼놓고 나와서, 그 길로 대문을 나서며 한 번 돌아보니, 부모의 생각이 마음을 찌르나, 억지로 참고 두어 걸음에 한 번씩 돌아보며 효자문 네거리 와서 인력거를 불러 타고 남대문 밖을 나서니, 이때 가을 하늘에 얇은 구름은 고기 비늘 같이 조각조각 연하고, 그사이로 한 바퀴 둥근 달이 밝은 광

5)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부인(?)  
6) 쓸쓸할 정도로 아주 고요하고.

채를 잠깐 자랑하고 잠깐 숨는데, 연약한 마음이 자연 상하여 흐르는 눈물을 씻고 또 씻는 사이에 벌써 인력거 채를 덜컹 놓는데 남대문 정거장에서 요령(鑿鈴)<sup>1)</sup> 소리가 덜렁덜렁 하며 붉은 모자 쓴 사람이,

“후상, 후상. 후상 오이데마생까?”

하고 외치는 소리가 장마 속 논고<sup>2)</sup>에 땀뿡이 끓듯 하니, 이때는 하오 십시 십오 분 부산 급행차 떠나는 때라. 인력거에서 급히 내려 동경(東京)까지 가는 연락차(連絡車) 표를 사 가지고 이등 열차에 오르니 호각소리가 ‘호르륵’ 하며 기관차에서 ‘파 푸 파 푸’ 하고 남대문이 점점 멀어지니, 앞길의 운산(雲山)은 창창(偃偃)<sup>3)</sup>하고 차 뒤에 연하(煙霞)<sup>4)</sup>는 막막하더라.

그 빠른 차가 밤새도록 가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부산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대문 밖도 자세히 모르고 지내던 정임이는 처음 이렇게 멀리 온 터이라. 집에 있을 때에 동경을 가자면 남문역에서 연락차 표를 사 가지고 부산 가서 연락선(連絡船)을 타고 하관(下關)<sup>5)</sup>까지 가고, 하관서 동경 가는 차를 다시 타고, 신교역(新橋驛)에서 내린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지마는, 남문역에서 부산까지는 왔으나 연락선 정박한 부둣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 정거장 머리에서 주저주저하다가,

“화륜선(火輪船) 타는 선창을 어디로 가오?”

하고 물으매 이 사람도 물끄러미 보고, 저 사람도 물끄러미 보니 정임이가 집 떠날 때에 머리는 전반(剪板)같이<sup>6)</sup> 땅은 채로 옷은

1) 작은 종  
2) 논고랑.  
3) 갈 길을 잃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막막함.  
4) 안개와 노을.  
5) 시모노세키.  
6) 머리를 땅아 늘인 여자의 머리채가 술이 많고 치렁치렁한 모습으로.

분홍 춘사(春紗) 적삼<sup>7)</sup>, 옥색 모시 다린 치마 입었던 채로 그대로 쭉 나온 그 모양이라. 누가 이상히 보지 아니하리오? 그 많은 내외국 사람이 모두 여겨보더니, 그중에 어떤 사람이 아래위를 한참 훑어보다가,

“여보 작은 아씨, 이리 와. 내가 부두까지 가는 길을 가리켜 줄 터이니.”

하고 앞서서 가는데, 말쑥이 비취는 통영갯속으로 반드르르한 상투는 외로 푹 떨어지고 후줄근한 왜사(倭紗) 두루마기는 기름때가 조르르 흘렀더라.

정임이가 약기는 참새 굴레쌀<sup>8)</sup> 만하지마는 세상 구경은 처음 같은 터이라. 다른 염려 없이 그 사람을 따라 부두로 나가는데, 부두로 갈 것 같으면 사람 많이 다니는 탄탄대로(坦坦大路)<sup>9)</sup>로 갈 것이건마는, 이 사람은 정임이를 끌고 꼬불꼬불하고 좁디좁은 골목으로 이리 뺑뺑 돌고 저리 뺑뺑 돌아가다가, 어떤 오막살이 높은 등 달린 집으로 들어가며,

(그 사람) “나는 이 집에서 불일 좀 보고 곧 가리켜줄 것이니 이리 잠깐 들어와.”

정임이는 배 탈 시간이 늦어가는가 하고 근심될 뿐 아니라 여자의 몸이 낮선 곳에 혼자 와서 사나이놈 따라 남의 집에 들어갈 까닭이 없는 터이라.

(정임) “길 모르는 사람을 이처럼 가리켜주고자 하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깐 기다릴 터이니 어서 불일 보십시오.”

하고 섰더니,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간 지 한참만에 어떤 계집 두 년이 머리에는 왜밀<sup>10)</sup> 뒤범벅을 해 붙이고 중문간에서 기웃기웃 내다보며,

“아이그, 그 처녀 얌전도 하다. 아마 서울 사람이지.”

7) 여름 옷감으로 찢 윗도리에 입는 홑옷.  
8) 피가 많은 사람.  
9) 평평하고 넓은 큰길.  
10) 향료를 섞어서 만든 밀기름.

하고 나오더니,

“여보, 잠깐 들어오구려. 같이 오신 손님은 지금 담배 한 대 잡숫는데요.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소. 여편네가 여편네들만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소? 어서 잠깐 들어왔다 가시오.”

하며 한 년은 손목을 잡아당기고 한 년은 등을 미는데, 어찌할 수 없이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길 가르쳐 주마던 사람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담배를 먹다가 정임이를 보더니,

(그 사람) “선장을 물으면 배 타고 어디를 가는 길이야?”

(정임) “동경까지 갑니다.”

(그 사람) “집은 어디인고?”

(정임) “서울이야요.”

(그 사람) “동경은 무엇하러 가?”

(정임) “유학하러요.”

(그 사람) “유학이고 무엇이고 저렇게 큰 처녀가 길도 모르고 어찌 혼자 나섰어?”

(정임) “지금 같이 밝은 세상에 처녀 말고 아무라도 혼자 나온들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 사람) “이름은 무엇이고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자세히 묻는 바람에 정임이는 의심이 나며, 서울 뉘집 아들도 일본으로 도망해가다가 그 집에서 부산경찰서로 전보하여 붙잡아 갔다더니, 아마 우리 아버지께서 전보한 까닭으로 경찰서에서 별순검(別巡檢)<sup>1)</sup>을 보내 조사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나서,

(정임) “배 탈 시간이 늦어가는데 길도 아니 가리켜주고 남의 이름과 나이는 알아 무엇하려오?”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달려들며 잡담 제하고 끌어다가 뒷방에 넣고 방문을 밖으로 걸더라.

그 사람은 색주가(色酒家)<sup>2)</sup> 서방인데, 서울 사람과 상약(相約)하고, 어떤 집 계집아해를 색주가 감으로 피어내는 판이라. 서울 사람은 그 계집아해를 유인하여 어느 날 몇 시 차로 보낼 것이니 아무쪼록 놓치지 말고 잘 단속하라는 약조가 있는 터에, 그 계집아해는 아니 오고 애매한 정임이가 걸렸으니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무엇하며, 야단을 친들 무슨 수가 있으리오마는, 하도 무리한 경우를 당하여 기가 막히는 중에,

‘이렇게 법률을 무시하는 놈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도리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놈이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달래다 못하여 회초리 찌질을 대는 판에 전신이 피멍치가 되고 과연 견딜 수 없을 뿐 아니라, 죽고자 하여도 죽을 수도 없으니 이런 일은 평생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다가 꿈결같이 이 지경을 당하매 분한 마음이 이를 것 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간혀 있더니,

사흘 되던 날 밤에 문틈으로 풍뎡이 한 마리가 들어와서 쇠잔(衰殘)한 등불을 쳐서 끄는데 갑갑하고 무서운 생각이 나서 불이나 켜놓고 밤을 새우리라 하고, 들창 문지방을 더듬더듬하며 성냥을 찾으니, 성냥은 없고 다 부러진 대까칼<sup>3)</sup>이 틈에 끼어 있는지라, 그 칼을 집어 들고 이리 할까 저리 할까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문창살을 오린다.

칼도 어찌 잘 들고 힘도 어찌 세던지 밤새도록 겨우 창살 한 개를 오리고 나니, 닭은 세 회를 울고 먼 촌의 개 짖는 소리가 나는데 그 창살 오려낸 틈으로 밖에 걸린 고리를 벗기고 가만히 나오니 죽었다가 살아난 듯이 상쾌한지라, 차차 큰길을 찾아가며 생각하니,

‘이번에 이 고생한 것도 도시(都是)<sup>4)</sup> 의복

1) 대한제국 때, 경무청이나 경위원(警衛院)의 제복을 입지 않고 비밀 정탐에 종사하던 순검.

2) 술과 몸을 함께 파는 집.

3) 대나무로 만든 칼.

을 잘못 차린 까닭이오, 또 동경을 가더라도 조선 의복 입은 사람은 하등 대우를 한다는 데, 이 모양으로는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겠다.'

하고 어느 모퉁이에 서서 날 밝기를 기다려가지고 곧 오복점(吳腹店)<sup>1)</sup>을 찾아가서 일본옷 한 벌을 사서 입고, 그 오복점 주인 여편네에게 간청하여 머리를 끌어올려 일본쪽을 찌고, 또 그 여편네에게 선창 가는 길을 물어서 찾아가니, 이때 마침 연락선 일기환이 떠나는지라. 즉시 그 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 빛이 하늘에 닿은 곳으로 가더라.

이같은 곤란을 지내고 동경을 향하여 가는 정임이가 삼 일만에 목적지 신교역에 내리니, 그 시가의 화려하고 번창함이 참 처음 보는 구경이나, 여관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한참 방황하다가 덮어놓고 인력거에 올라앉으니, 별안간 말하는 병어리, 소리 듣는 귀머거리가 되어 인력거꾼의 묻는 말을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손을 들어 되는 대로 가리키니, 인력거는 가리키는 대로 가고, 정임이는 묻는 대로 가리켜서 이리저리 한없이 가다가 어느 곳에 다다르니,

'상야관'이라 현판 붙인 집 앞에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광고를 돌리는데, 그 광고 한 장을 받아보니 무슨 말인지 의미는 알 수 없으나, 단지 숙박료 일등에 얼마, 이등에 얼마라고 늘어 쓴 것을 보매, 그 집이 여관인 줄 알고 인력거를 내려 들어가니, 벌써 여중(旅衆)<sup>2)</sup>과 반또<sup>3)</sup>들이 나와 맞으며 들어가는 길을 인도하는지라.

인하여 그 집에 여관을 정하고 우선 여관 주인에게 일본말을 배우니, 원래 총명이 과인(寡人)하고 학문도 중학교 졸업은 되는 터이라, 일곱 달 만에 못할 말 없이 능통할 뿐 아

니오, 문법도 막힐 곳 없이 무슨 서적이든지 능히 보게 되매, 그해 봄에 '소석천구(小石川区)' 일본 여자대학에 입학하였는데, 그 심중에는 항상 부모의 생각, 영창이 생각, 자기 신세 생각이 한데 뒤뭉쳐져서 주야로 간절한 터이라.

그러한 뇌심(惱心) 중에 공부도 잘 되지 아니하련마는 시험 볼 적마다 그 성적이 평균점 일공공(100)에 떨어지지 아니하여 해마다 최우등으로 진급되니, 동경 여학생계에 이정임의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이 명예가 굉장하더라.

하루는 학교에서 하학(下學)하고 여관으로 돌아오니, 어떤 여학도가 무슨 청첩(請牒)을 가지고 와서 아무쪼록 오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하고 가는데, 그 청첩은 '여학생 일요 강습회 창립 총회' 청첩이요, 그 취지는 여학생이 일요일마다 모여서 학문을 강습하자는 뜻이라.

정임이는 근심이 첩첩하여 만사가 무심한 터이지마는, 그 취지서를 본즉 매우 아름다운 일인 고로 그날 모인다는 곳으로 갔더니, 여학생 수십 명이 와서 개회하고 임원을 선정하는데 회장은 이정임이요, 서기는 산본영자라.

정임이는 억지로 사양치 못하고 회장석에 출석하여 문제를 내어 곁고 차례로 강연한 후에 장차 폐회할 터인데, 이때에 어떤 소년이 서기 산본영자의 소개를 얻어 회석(會席)에 들어오더니, 자기는 조선 유학생 강한영이라 하며, 강습회 조직하는 것을 무한히 칭찬하고, 이 회에 쓰는 재정은 자기가 찬성적으로 어디까지든지 전담하겠노라 하고 설명하며, 우선 금화 백 원을 기부하는 서슬에 서기의 특청으로 강소년이 그 회의 재무 촉탁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강소년은 일요일마다 정임을 만

4) 도무지.  
1) 포목점.  
2) 손님들.  
3) 상점의 지배인.

나면 지극히 반가워하고 대단히 정답게 굴어서 아무쪼록 친근히 사귀려고 하며, 혹 어떤 때는 공원으로 놀러 가자고도 하고, 야시(夜市) 구경도 같이 가자고도 하나, 정임의 정중한 태도는 비록 여자끼리라도 특별히 친압<sup>1)</sup>(親狎)하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남자와 한가지 구경 다닐 리가 있으리오.

그런 말 들을 적마다 정숙한 말로 대답하며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는 터이오, 산본영자도 종종 여관으로 찾아오는데, 하루는 어떤 노파가 와서 자기는 산본영자의 모친이라 하며 자기 딸과 친절히 지내니 감사하다고 치하하고 가더니, 그 후로는 자주자주 다니며 혹 과자도 갖다주며, 혹 화장품도 사다 주어 없던 정분을 갑자기 사고자 하며, 가끔 가다가 던지는 말로 여자의 평생 신세는 남편을 잘 만나고 못 만나기에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정임의 동경 온 지가 어언간 다섯 해가 되어 그해 하기 시험으로 졸업하고, 증서 수여식 날 졸업장과 다수한 상품을 타매, 그 마당에 모인 고등 관인과 내외국 신사들의 칭송이 빗발치듯 하니 그런 영광을 비할 곳이 없을 뿐 아니오, 그 졸업장 한 장이 금 주고 바꾸지 아니할 만큼 귀한 것이라 그 마음에 오죽 기쁘리오마는, 정임이는 찬양도 귀에 심상(尋常)히<sup>2)</sup> 들리고 좋은 마음도 별로 없어 즉시 여관으로 돌아와 삼층 장자(障子)<sup>3)</sup>를 열고 난간에 의지하여 먼 하늘에 기이한 구름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거취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앉았는데 산본노파가 오더니 졸업한 것을 치하한다.

(노파) “이번에 우등으로 졸업하였다니 대단히 감축한 일이오그려. 듣기에 어찌 반가운지 내가 치하하러 왔지요.”

(정임) “감축이랄 것 무엇 있습니까?”

(노파) “저렇게 연소한 터에 벌써 대학교 졸업을 하였으니 참 고마운 일이야. 내 마음에 이처럼 반가울 적에 당신이야 오죽 기쁘며, 부모가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소.”

(정임) “나는 좋을 것도 없습니다. 학교 교사 여러분의 덕택으로 졸업은 하였으나 아무 것도 아는 것은 없으니 무엇이 좋습니까?”

(노파) “그런 겸사(謙辭)는 다 고만두시오. 내가 모른다구요? 그러나 우리 딸 영자야말로 인제 겨우 고등과 이년 급이니 언제나 대학교 졸업을 할런지요? 당신을 쳐다보자면 고소대 꼭대기 같지.”

(정임)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영자의 재주로 잠깐이지요. 근심하실 것 무엇 있습니까.”

(노파) “당신은 얼굴도 어여쁘고 마음도 암전하거니와 재주는 어찌 저렇게 비상하며, 학문은 어찌 저렇게 좋소? 나는 볼 적마다 부러워.”

(정임) “천만의 말씀이오.”

(노파) “당신은 시집을 가더라도 얼굴이 저와 같이 곱고 학문도 대학교 졸업한 신랑을 얻어야 하겠소.”

(정임) “.....”

(노파) “이 세상에는 저와 같은 짝이 없을 걸.”

(정임) “.....”

(노파) “남녀 물론하고 혼인은 부모가 정하는 것이지만, 이 이십 세기 시대에야 부모가 혼인 정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나? 혼인이란 것은 제 눈에 들고 제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할 것인걸.”

(정임) “.....”

(노파) “아무 이야기도 아니하고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으니 웬일이오? 내가 혼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시집갈 일이 근심되나

1) 흥허물이 없이 너무 지나치게 친함.  
2)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움.  
3) 방과 방 사이, 또는 방과 마루 사이에 칸을 막아 끼우는 문.

보구려. 혼인은 일평생에 큰 관계가 달린 일인데, 어찌 근심이 되지 아니하리까? 그렇지 마는 근심할 것 없소. 내가 좋은 혼처 천거하리다.

이 말이 실없는 말 아니오. 자세히 들어보시오. 내가 남의 중대한 일에 잘못 소개할 리도 없고, 또 서양 사람이나 아미리<sup>1)</sup>가 사람에게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라 사람이자 또 자격이 당신과 똑같은 터이니, 두고 두고 평생을 구한들 어찌 그런 합당한 곳을 고를 수 있으리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요강습회에 다니는 강한영 씨 말씀이오. 당신도 많이 만나보셨겠지마는 얼굴인들 좀 얹전하며, 재조인들 여간 좋습더니까. 그 양반이 내 집에 주인을 정하고 삼 년을 나와 같이 지내는데, 그 옥 같은 마음은 오던 날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학문으로 말하더라도 이번에 대학교 법률과 졸업을 하였으니 당신만 못하지 아니하고, 재산으로 말하더라도 조선의 몇째 아니가는 부자랍니다.

내가 조선사람의 부자이고 아닌 것을 어찌 알겠소마는, 이곳에 와서 돈쓰는 것만 보면 알겠습니다. 그 양반이 돈을 써도 공익적으로나 쓰지, 외입(外入) 한 번 하는 것도 못 보았어요. 만일 내 말이 못 믿거든 본가로 편지라도 해서 알아보고, 망설이지 말고 혼인 정하십시오. 그 집은 대구(大邱)인데 이번에 나가면 서울로 이사한답니다.

암만 골라도 이러한 곳은 다시 구경도 못할 터이니 놓쳐버리고 후회할 것 없이 두말 말고 정하십시오. 당신도 그 양반을 모르는 터이 아니거니와 이 늙은 사람이 설마 남 못할 노릇시키려고 거짓말할 리 있소? 다시 생각할 것 없이 내 말대로 하시오.”

그 노파는 졸업 치하가 변하여 혼인 소개

1) 아메리카.

가 되더니 잔말을 기다랗게 늘어놓는데 정임이는 조금 듣기가 귀찮은 터이라.

(정임) “그러하겠습니다. 여자가 되어 시집가는 것도 변될 일이 아니오, 당신이 혼인 중매하시는 것도 괴이치 아니한 터이나, 그러나 나는 집 떠날 때로부터 마음에 정한 바 있어 다시는 변통 못할 사정이올시다. 그 사정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만일 내가 시집을 갈 것 같으면 그런 좋은 곳을 버리고 어떤 곳을 다시 구하리까마는, 내가 시집 아니 가기로 결심한 이상에야 다시 할 말 있습니까? 혼인이자(二字)에 대하여서는 두 말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싹도 없이 끊어 말하매 노파는 다시 말 못하고 무연히 돌아갔는지라.

그 후로부터 일요강습회에도 다시 가지 아니하고 있더니, 집 생각이 간절하여 집에 돌아가 늙은 부모나 봉양하고 여학교나 설립하여 청년 여자들이나 가르치며 오는 세월을 보내리라 하고 귀국할 행장을 차리는 중인데, 하루는 곳은비가 종일 와서 심기가 대단히 울적하던 차에, 비 개고 달 돌아오는 경이 하도 좋기에 옷을 갈아입고 상야공원에 가서 달 구경하고 오다가 불인지 가를 지나며 보니,

패(敗)한 연엽(蓮葉)에는 비 흔적이 머무르고, 맑고 맑은 물결에는 위에도 관월교요, 밑에도 관월교라. 그 운치를 사랑하여 돌아갈 줄을 잊어버리고 섰더니, 그 악소년을 만나 칼침을 맞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상처를 진찰하니 창흔(創痕)<sup>2)</sup>은 후문(喉門)<sup>3)</sup>을 비켜 빗나갔고, 창구(創口)<sup>4)</sup>는 이 분(分)이며 심(深)은 일 촌(寸)에 지나지 못하

2) 칼에 다친 흉터.

3) 목구멍.

4) 칼로 난 구멍.

여 생명은 아무 관계 없고 놀라서 잠시 기절한 모양이라.

의사는 응급수술로 민속(敏速)<sup>1)</sup>히 치료하였으나 정임이는 그러한 광경을 생후에 처음 당하여 어찌 혹독히 놀랐던지 종시 혼도(昏倒)하였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동편 유리창에 별이 쨍쨍히 비치고, 자기는 높은 와상(臥床)<sup>2)</sup>에 흰 홑이불을 덮고 누웠는지라.

어찌 된 곡절을 몰라 속생각으로,

‘여기가 어디인가? 우리 여관은 저렇게 별들어본 적도 없고 이러한 와상도 없는데, 내가 뉘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웠나? 애고, 이상도 하다. 내가 아마 꿈을 이렇게 꾸나 보다.’

하고 정신을 수습하는 때에, 의사가 간호부를 데리고 들어오는 뒤에 순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그제야 전신에 소름이 쭉 끼치며, 어젯밤 공원 생각이 나는데 의사가 창구를 찢고 약을 갈아붙이더니, 순사가 앞으로 다가서며 자세자세하게 묻는다.

(순사) “당신의 성명은 누구라 하오?”

(정임) “이정임이올시다?”

(순) “연령은 얼마요?”

(정) “십 수 세올시다.”

(순) “당신의 집은 어디요?”

(정) “조선 경성 북부 자하동 일백 팔동 십호올시다.”

(순) “당신의 부친은 누구요?”

(정) “이○○올시다.”

(순) “부친의 직업은 무엇이오?”

(정) “우리 부친은 관인이더니 지금은 벼슬 없고, 전직은 시종원 시종이올시다.”

(순) “형제는 몇 분이요?”

(정) “이 사람 하나뿐이올시다.”

(순) “당신이 무슨 일로 동경에 왔소?”

(정) “유학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순) “그러시오? 그러면 여관은 어디이며, 어느 학교 몇 년급에 다니 오?”

(정) “여관은 하곡구 거관정 십일번지 상야관이오, 학교는 일본 여자대학에 다니다가 거(去) 칠월 십일에 졸업하였습니다.”

(순) “매우 고마운 일이오마는……. 어젯밤에 행흉(行凶)<sup>3)</sup>하던 놈은 아는 놈이요, 모르는 놈이요?”

(정) “안면은 두어 번 있었지요.”

(순) “안면이 있으면 그놈의 성명을 알며, 어디서 보았소?”

(정) “성명은 강한영이요, 만나보기는 여학생 일요강습회에서 만나보았습니다.”

(순) “성명을 들으니 그놈도 조선사람이오 그러……. 그놈의 원적지와 유숙하는 여관은 어디인지 아시오?”

(정) “본국 사람이로되 거주도 모르고, 여관도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그 주인은 산본이랍니다.”

(순) “그러면 무슨 이유로 저 일을 당하였소?”

(정)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여자가 되어 세상에 난 것이 죄악이지요.”

정임이는 그 말 그치며 두 눈에 눈물이 핑도는데, 순사가 낱알이 조사하여 수첩에 기록해가지고 매우 가없다고 위로하며 의사를 향하여 아무쪼록 잘 보호하고 속히 치료해 주라고 부탁하고 나가더라.

정임이가 이러한 죽을 욕을 보고 병원에 누웠으며 처량하기도 이를 것이 없고 별생각이 다 나는데,

‘내가 집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늙은 부모의 걱정을 시키니, 이런 죄악을 왜 아니 당할 리 있나. 그렇지마는 내가 부모를 저버린 것

1) 행동이나 일의 처리가 날쌔고 빠름.

2) 침상.

3) 사람을 죽임.

이 아니오, 중대한 의리를 지킨 일이니, 아무리 어떠한 죄를 당할지라도 조금도 신명에 부끄러울 것은 없어. 내가 어려서 부모에게 귀함받고 영창이와 같이 자랄 때에 신세가 이 지경 될 줄 누가 알았던가?

그러나 나는 무슨 고생을 하든지 이 세상에 살아 있거니와, 백골이 어느 곳에 헤어지지 알지 못하는 영창의 외로운 혼이 불쌍치 아니한가! 내가 바빠 지하에 돌아가 영창이를 만나서 어서 이런 말을 좀 하였으면 좋겠구만, 부모 생각에 할 수 없지..... 허..... 나의 한 몸이 천지의 이기(理氣)<sup>1)</sup>를 타고 부모의 혈육을 받아 이 세상에 한 번 나온 것이 전만고(前萬古)<sup>2)</sup> 후만고(後萬古)에 다시 얻기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아까운 일생을 나을 모르고 지내다가 죽는단 말인가. 참 팔자도 기박(奇薄)<sup>3)</sup>도 하다. 생각을 하면 간이 녹아 신문이나 보고 잊어버리겠다.'

하고 간호부를 불러 신문 한 장을 가져오래서 잠심(潛心)<sup>4)</sup>하여 보는데 제삼면 잡보난(雜報欄)에,

‘김영창(연 십구)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여학생과 무슨 감정이 있던지 재 작일(昨日) 하오(下午) 십일 시경에 상야공원 불인지 가에서 칼로 찌르다가 하곡구 경찰서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은 본디 조선사람으로 영국 문과대학을 졸업한 자이라더라.’

게재(掲載)하였는지라.

이 잡보를 보다가 하도 이상하여 한 번 다시 보고 또 한 번 더 훑어보아도 갈 데 없이 자기의 사실인데, 행패하던 놈의 성명이 다르매 더욱 이상하여 혼잣말로,

‘아이고, 이상도 하다. 이 말이 정녕 내 말

1) 우주를 이루는 근본의 이(理)인 태극과 그것으로부터 나온 음양의 기(氣).

2)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는 동안.

3) 운수가 사납고 복이 없다.

4) 마음을 두어 깊이 생각함.

인데, 그놈이 강가 아니오, 김영창이란 말은 웬 말이며, 영국 문과대학 졸업이란 말은 웬 말이고? 아마 신문에 잘못 게재하였나보다. 내가 영창이 생각을 잊어버리자고 신문을 보더니.....’

하고 신문을 땅에 던지다가 다시 집어들고, “김영창..... 김영창..... 문과대학 졸업?”

하며 무슨 생각을 새로 하는 때에 누가 어떤 엽서 한 장을 주고 나가는데 그 엽서는 재판소 호출장이다. 그 엽서를 받아두고 병 낫기를 기다리더니,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일이 되매 상처도 완전히 치료되고 재판소에서 부르는 일자가 되었는지라, 병원에서 퇴원하여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곧 재판소로 가더라.

정임의 마음에 이렇듯이 새기고 새겨둔 영창이는 정임을 이별하고 부모를 따라 초산으로 온 후에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역시 정임이가 영창이 생각함이나 진배없이 정임을 생각하며 가고 또 오는 날을 괴로이 지내더니, 하루는 정임에게서 편지가 와서 반갑게 떼어 본다.

‘이별할 때에 푸르던 버들이 다시 푸르르니 하늘가를 바라보매 눈이 뚫어지고자 하나 바다는 막막하고 소식은 없으니, 난간에 의지하여 공연히 창자가 끊어질 뿐이오, 해는 가까우나 초산은 멀며, 바람은 가벼우나 이 몸은 무거워서 날아다니는 술업(術業)<sup>5)</sup>은 얻지 못하고 다만 봄꿈으로 하여금 괴롭게 하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상하고 말을 하자니 이가 시구나.’

이러한 만지장서(滿紙長書)<sup>6)</sup>를 채 다 보지 못하고 막 시작하여 여기까지 보는데 삼문 밖에서 별안간 우지끈 똑딱하며,

“아우!”

5) 음양, 복서(卜筮) 따위의 일에 종사하는 업.

6) 사연을 많이 담은 긴 편지.

하는 소리가 나더니 봉두난발(蓬頭亂髮)<sup>1)</sup>도 한 놈, 수건도 쓴 놈들이 흑 몽둥이도 들고, 흑 돌도 들고 우- 몰려 들어오면서 우선 이방, 형방, 순로, 사령을 미친개 때리 듯하며, 한 때는 대청으로 올라와서 군수를 잡아 내리고, 한 때는 내아(內衙)에 들어가서 부인을 끌어내어 한 끈에다가 비웃두름<sup>2)</sup> 엮듯이 동여 앉히고 여러 놈이 둘러서서 한 놈은,

“물을 끓여라!”

한 놈은,

“장작더미에 올려 앉혀라!”

한 놈은,

“석유를 끼었어라!”

한 놈은,

“구덩이를 파라!”

또 한 놈은,

“이 애들, 아서라. 학정(虐政)<sup>3)</sup>은 모다 아전놈의 짓이지 그 못생긴 원놈이야 술이나 좋아하고 글이나 잘 짓지 무엇을 안다더냐. 그럴 것 없이 집 등우리나 태워서 지경(地鏡)<sup>4)</sup>이나 넘겨라.”

하는데, 그중 한 놈이 쑥 나서며,

“그럴 것 없이 좋은 수가 있다. 두 연놈을 큰 뒤주 속에 한데 넣어서 강물에 띄워버리자.”

하더니 그 여러 놈들이,

“이 애, 그 말 좋다……. 자…….”

하며 뒤주를 갖다가 군수 내외를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우고 진상(進上)가는 꿀병 동이듯 이리 층층 얹고 저리 층층 얹어서 여러 놈이 떠메고 압록강으로 나가는데, 정임이 편지 보던 영창이는 창졸(倉卒)<sup>5)</sup>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난리를 만나매

어찌할 줄 모르고 몸부림을 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울다가, 메고 나가는 뒤주를 쫓아가니 어떤 놈은 귀통이도 쥐어박고, 어떤 놈은 발길로 차기도 하며, 어떤 놈은,

“이 애, 요놈은 작은 도적놈이다. 요런 놈씨 받아서는 못쓰겠다. 요놈도 마저 뒤주 속에 넣어라.”

하더니, 또 어떤 놈이 와서,

“아서라, 그까짓 어린 자식놈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지마는 요놈이 이렇게 잘 입은 비단옷도 모다 초산 백성의 피 굵은 것이니 이것이나마 입혀 보낼 것 없다.”

하고 달려들며 입은 옷을 다 벗기고, 지나가는 거지 아해의 옷 해진 튼튼이 서캐이가 터진 방앗공이에 보리알 끼듯<sup>6)</sup> 한 것을 바꿔 입혀서 땅에 발이 붙지 않도록 들어 내쫓는다.

그 지경 당하는 영창의 마음에는, 자기는 죽인다 해도 겁날 것 없으되, 무죄한 부모가 참혹히 죽는 것이 비할 데 없이 애통한 생각에,

‘나도 압록강에나 가서 기어코 우리 부모 들어앉아 계신 뒤주라도 붙들고 죽으리라.’

하고 굴청<sup>7)</sup> 언덕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옆드러지며 자빠지며 압록강을 향하여 가는데, 읊내서 압록강이 몇 리나 되던지 밤새도록 가다가 어느 곳에 다다르니 위도 하늘 같고 아래도 하늘 같은 물빛이 보이는데, 사면은 적적하고 넓고 넓은 만경창파(萬頃蒼波)에 층층한 별빛만 반짝반짝하며 오열하는 여울 소리가 슬피 조상(弔喪)<sup>8)</sup>하는 듯할 뿐이오, 자기 부모는 어디로 떠나갔는지 알 수 없는 지라.

1) 머리털이 속대강이처럼 마구 흐트러짐.

2) 청어두름.

3) 포악한 정치.

4) 땅의 경계.

5) 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급작스러움.

6) 버리자니 아깝고 파내자니 품이 들어 할 수 없이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음.

7) 골짜기.

8)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喪主)를 위문함.

하릴없이 언덕 위에 서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울며 몇 번이나 강물로 떨어지려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죽더라도 떠나가는 뒤주라도 보고 죽으리라.’

하여 물결을 따라 한없이 내려간다.

며칠이나 가고 어디까지나 왔던지 한 곳에 이르러서는 발도 부르토고 다리도 아플 뿐 아니라, 여러 날 굶어서 기운이 시진(漸盡)<sup>1)</sup> 하여 정신 잃고 사장(沙場)에 넘어졌으니 그 동탕(動蕩)<sup>2)</sup>한 얼굴이야 어디 갈 것 아니지 마는, 그 넘어진 모양이 하릴없는 쪽정이 송장이라.

강변 까마귀는 이리로 날며 ‘깹깹’, 저리로 날며 ‘깹깹’ 하고, 개떼는 와서 여기도 ‘쫂쫂’ 말아보고 저기도 ‘쫂쫂’ 말아보나 이것저것 다 모르고 누웠더니, 누가 허리를 푹푹 찌르고 찌르는 섬에 간신히 눈을 들어보니 어리 어리하게 보이는 중에 키는 장승 같고 옷은 시커멓고 코는 주먹덩이 만하고 눈은 여산(廬山) 칠십 리나 들어간 듯하여<sup>3)</sup> 도깨비 중에도 상도깨비 같은 사람이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하는데, 귀도 먹먹하지마는 무슨 말인지 어훈(語訓)도 알 수 없고 말할 기운도 없거니와 대답할 줄도 모르고 눈만 멀거니 쳐다 볼 뿐이라.

그 사람이 달려들어 일으켜 앉혀놓고 빨병<sup>4)</sup>을 내어 물을 먹이더니, 손목을 끌고 인가를 찾아가니 그곳은 신의주 나루터이요, 그 사람은 영국 문학박사 스미트라 하는 사람인데, 자선가로 영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동양을 유람코자 하여 일본 다녀 조선으로 와서 부산, 대구, 경성, 개성, 평

양, 의주를 다 구경하고 장차 청국 북경(北京)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영창이 넘어진 것을 보고, 얼굴이 비범한 아이가 그 모양으로 누웠는 것을 매우 측은히 여겨, 즉시 끌고 신의주 개시장(開市場)<sup>5)</sup> 일본 사람의 여관으로 들어가서 급히 약을 먹인다, 우유를 먹인다 하여 정신을 차린 후에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사서 입히니, 그 준수한 용모가 관옥같은 호남자이다.

곧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가니 다 죽었던 영창이는 은인을 만나 목숨이 살아나매 그때는 아무 생각 없고 다만,

‘아무쪼록 생명을 보존하여 기회를 얻어 원수를 갚고 우리 부모의 사속(嗣續)<sup>6)</sup>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뿐이라.

그 사람과 말이나 통할 것 같으면 사실 이야기나 자세히 하고 서울 이시종 집으로나 보내 달라고 간청해 볼 터이건마는 말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릴없이 그 사람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데, 서로 소담 보듯 하며 먹을 때 되면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마차를 타고 막막한 광야도 가고, 기차를 타고 화려장대한 시가도 지나가고, 화륜선(火輪船)<sup>7)</sup>을 타고 망망한 바다로도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다가,

어느 곳에서 기차를 내리매 땅에는 철로가 빈틈없이 놓이고, 하늘에는 전선이 거미줄 같이 얽혔으며, 넓고 넓은 길에 마차, 자동차, 자전거는 여기서도 쓰르르 저기서도 뜰뜰하고, 십여 층 벽돌집은 좌우에 쟁영(爭榮)<sup>8)</sup>하며, 각색 공장의 연기 굴뚝은 밀짚 들어서듯 총총하여 그 굉장한 풍물이 영창의 눈을 놀래니 그곳은 영국 서울 ‘론돈’이요, 스미트의

1) 기운이 빠져 없어짐.

2) 얼굴이 토실토실하게 잘 생김.

3)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을 놀리는 말.

4) 수통.

5) 다른 나라와 통상을 허가했던 시장.

6) 대(代)를 이음.

7) 기선.

8) 서로 영광을 다퉈.

집이 곧 그곳이라.

스미트는 영창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세계에 없는 보화를 얻어온 듯이 귀히 여기니, 그 부인도 역시 자기 자식 같이 사랑하며 날마다 말 가르치기로 일삼는데, 영창의 재조에 한 번 들은 말과 한 번 본 글자를 다시 잊지 아니하고 몇 날 못 되어 가정에서 날마다 쓰는 말은 능히 읊기때 부인의 마음에 신통히 여기고 차차 지지(地誌)<sup>1)</sup>, 산술, 이과(理科) 등의 소학교 과정을 가르치기에 재미를 붙이고, 영창이도 스미트 내외에게 친부모 같이 정답게 굴며 근심 빛을 외면에 드러내지 아니하더라.

정임이는 영창이 종적을 모르고 근심이 가슴에 맺혀서 옷끈이 자연 늦어지는 터이건마는 영창이는 부모가 그 지경 된 것이 지극히 불쌍하여 백해(百骸)<sup>2)</sup>가 녹는 듯이 슬픈 마음에 정임이 생각은 도시 잊었더니, 하루는 산술을 공부하는데 삼삼을 자승(自乘)<sup>3)</sup>(33×33)하는 문제를 놓으며,

‘삼삼구……. 삼삼구……. 또 삼삼구……. 삼삼구.’

하다가 문득 한 생각이 나며,

‘옳지! 정임이가 남문역에서 작별할 때에 편지나 자주 하라고 부탁하며 통호수를 잊거든 삼삼구를 생각하라더라. 편지나 부쳐서 소식이나 서로 알고 있으리라.’

하고 초산서 봉변하던 말과 스미트를 따라론돈 와서 공부하고 있는 말로 즉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생각하고 편지 또 한 장을 써서 시종원(侍從院)으로 부쳤더니, 사오 개월이 지난 후에 그 편지 두 장이

1) 어떤 지역의 자연·사회·문화 등의 지리적 현상을 분류하고 연구하여 기록한 책.  
2) 몸을 이룬 모든 뼈.  
3) 제곱.

한꺼번에 돌아왔는데,

쪽지가 너덧 장 붙고 ‘영수인이 무(無)하여 반환함’이라 썼으니, 우편이 발달된 지금 같으면 성안에 있는 이시종 집을 어떻게 못 찾아 전하리오마는, 그때는 우체 배달이 유치한 전 한국통신원 시대라. 체전부(遞傳夫)<sup>4)</sup>가 그 편지를 가지고 교동 사십 삼통 구호를 찾아가매 불이 타서 빈터뿐이오, 시종원으로 찾아가매 이시종이 갈려버린 고로 전하지 못하고 도로 보낸 것이라.

편지를 두 곳으로 부치고 답장 오기를 고대하던 영창이는 어찌된 사실을 몰라 마음에 더욱 불평히 지내는데, 차차 지각이 날수록 남의 나라의 문명 부강한 경황을 보고 내 나라의 야매(野昧)<sup>5)</sup>, 조잔(凋殘)<sup>6)</sup>한 이유를 생각하며 다른 근심은 다 어디로 가고 다만 학업에 힘쓸 뿐이라.

즉시 학교에 입학하여 열심으로 공부하니 그 과공(課工)<sup>7)</sup>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하여 열여섯 살에 중학교 졸업하고, 열아홉 살에 문과대학 졸업하니 그 학문이 훌륭한 청년 문학가가 되었는지라. 스미트 내외도 지극히 기뻐할 뿐 아니라 영국 문부성 관리들이 극구 찬송 아니하는 자가 없더니, 문부성 학무국장이 스미트를 방문하고 자기 딸을 영창에게 통혼(通婚)하는지라.

영창이 생각에,

‘아무리 정임이와 서로 생사를 알지 못하나 내가 정임이 거취를 자세히 알기 전에는 다른 배필을 구하지 않으리라.’

하고 그제야 자기 사실과 정임의 관계를 낱낱이 스미트에게 이야기하고 학무국장의 의혼(議婚)<sup>8)</sup>을 거절하였는데, 그해 유월에

4) 우편집배원.  
5) 촌스럽고 어리석음.  
6) 뼈빠 말라서 쇠약하다.  
7) 날마다 정해 놓고 하는 공부.  
8) 혼사를 의논함.

스미트가 대일본 횡빈(橫濱)<sup>1)</sup> 주차<sup>2)</sup>(駐箭) 영사가 되어 일본으로 나오매 영창이도 스미트를 따라 횡빈 와서 있더니, 어느 때는 동경으로 구경 갔다가 지루한 가을 장마에 구경도 못하고 적적한 여관에서 파초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소설을 저술하는데, 고국 생각이 새로 간절한 중 정임의 소식을 하루 바빠 알고자 하는 회포가 마음을 흔들어서,

‘아마 정임이는 그사이 시집을 갔을걸.’

하고 생각하며 하늘 가에 돌아가는 구름을 유연히 바라보더니 헤어져 가는 구름 너머로 쭉 솟아오르는 한 조각 달이 수정 같은 광휘(光輝)<sup>3)</sup>를 두루 날리는지라.

곧 상야 공원에 가서 산보하다가, 불인지 연못가에서 마침 어떤 사람이 칼로 여학생 찌르는 것을 보고 잔인한 생각이 왈각 나서 소리를 지르고 급히 쫓아가니 여학생의 목에 칼이 박혔는지라, 그 칼을 얼른 빼어 들고 생각하매,

‘그놈은 벌써 달아났으니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혐의(嫌疑)적고, 그대로 가자 하니 이것이 사나이 일이 아니라.’

사기(事機)가 대단히 망단<sup>4)</sup>(望斷)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한창 생각할 때에 행순하던 순사에게 잡혀가니, 신문하는 마당에 무엇이 라고 발명할 증거는 없으나 사실대로 말하니, 그 말은 아무 효력 없고 애매(曖昧)한 살인 미수범이 되어 즉시 재판소로 넘어가서 감옥소에 갇혀 있더라.

이때 정임이가 호출장을 가지고 재판소로 들어가니, 검사가 그날 저녁에 당하던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더니 어떤 죄인을 대면시키고,

(검사) “저 사람이 공원에서 칼로 찌르던

사람 아니냐?”

하고 묻는데 정임이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병원에서 신문 보던 일을 생각하니 얼굴 전형도 흡사한 영창이 어렸을 때 모습이오, 눈, 귀, 콧부리도 모두 영창이라.

은근히 반가운 마음이 염통 밑을 쭈시나, 한편으로 그 사람이 정녕 영창인지 아닌지 의심도 없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경솔히 반색할 일도 못되고 또 관청에서 사삿말<sup>5)</sup>도 할 수 없는 터이라.

검사의 말대답 할 겨를도 없이 그 죄인을 물끄러미 보다가 한참만에 대답을 한다.

(정임) “저이는 그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 한마디 물어볼 말씀이 있사오니 잠깐 허가하심을 바랍니다.”

(검사) “무슨 말을?”

(정임) “이 사건에 대한 일은 아니오나 사사로이 물어볼 만한 일이 있습니다.”

(검사) “무슨 말인지 잠깐 물어보아.”

정임이는 검사의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죄인을 대하여 조선말로 묻는다.

(정임) “당신은 어찌 된 사기(事機)로 이곳에 오셨소?”

(죄인) “다른 까닭 아니라 공원 구경 갔다가 어떤 놈이 젊은 부인을 모해(謀害)코자 함을 보고 마음에 대단히 송연(悚然)<sup>6)</sup>하여 급히 쫓아갔더니 그놈은 달아나고 내가 발명(發明)<sup>7)</sup>할 수 없이 잡혀 왔습니다. 그 부인이 아마 당신이신게요그러. 그때는 매우 위험하더니 천만에 저만하시니<sup>8)</sup> 대단히 감축합니다.”

(정임) “그러하시오니까. 나는 그때 정신 잃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가러. 위태함을 무릅쓰고 이만 사람을 구하여 주시니 대단히

1) 요코하마.

2) 공무를 띠고 다른 나라에 머무름.

3) 환하고 아름답게 빛남.

4)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처지가 딱함.

5) 개인의 사사로운 말.

6) 두려워 몸을 움송그릴 정도로 오싹한 느낌이 있음.

7) 죄나 잘못이 없음을 말하여 밝힘.

8) 별로 대단하지 않으니.

고맙습니다마는, 애매히 여러 날 고생을 하여 계시니 가엾은 말씀은 어찌 다 하오리까. 그러나 존함은 누구신지요?”

(죄인) “이 사람은 김영창이올시다.”

(정임) “여러 번 묻기는 너무 불안합니다마는, 내게 은인이 되시는 터에 자세히 알아야 하겠습니까. 황송한 말씀으로 춘부장(春府丈)<sup>1)</sup>은 누구시오니까?”

(죄인) “은인이라 하심은 천만에 말씀이올시다. 우리 선친은 〇〇올시다.”

(정임) “그러면 관직은 무슨 벼슬을 지내셨습니까?”

(죄인) “비서승(祕書丞)<sup>2)</sup> 지내시고 초산군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면서 눈살을 찡그리는데 정임이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물을 것 없이 뇌수에 맺혀 있는 그 영창이라.

죽은 줄 알던 영창이를 뜻밖에 만나니 정신이 아득아득하며 기쁜 마음이 진하여 슬픈 생각이 생겨서 아무말 못하고 눈물이 비오듯 하는데, 영창이는 감옥소에 갇혀서 발명하기를 근심하다가 여학생 대면시키는 것이 대단히 상쾌하여 이제는 발명되겠다고 생각하더니, 그 여학생은 일본말로 검사와 수작하매 무슨 말인지 몰라 궁금하던 차에, 여학생이 조선말로 자세히 묻는 것이 하도 이상하여 그 얼굴을 살펴보니, 남문역에서 한 번 이별한 후로 십 년을 못보던 정임의 용모가 여전하나 역시 의아하여 다른 말은 할 수 없고 다만 묻는 말만 대답하니, 마침내 낙루하는 것을 보매 의심이 더욱 나서 한 번 물어본다.

(영창) “여보시오, 자세히 물으시기는 웬일이며, 또 낙루(落淚)하시기는 어찌한 곡절이 오니까?”

(정임) “나를 생각지 못하시오? 나는 이시

1) 남의 아버지에 대한 존칭.

2) 대한제국 때에 둔 비서감과 비서원의 관직.

종의 딸 정임이오.”

하며 흑흑 느끼니 철석 같은 장부의 창자도 이 경우를 당하여서는 어찌할 수 없이 눈물을 보내 수건을 적시더라.

신문하던 검사는 어찌 된 까닭을 모르고 정임을 불러 묻는지라,

정임이가 영창이와 같이 자라던 일로부터 부모가 혼인 정하던 말과, 초산 민요 후에 서로 생사를 모르던 말과, 동경 와서 유학하는 원인과, 오늘 의외로 만난 말을 낱낱이 이야기하니 검사가 그 말을 들으며, 김영창은 백백 애매할 뿐 아니라 그 사실이 매우 신기한지라.

검사도 정임의 절개를 무한히 칭찬하며 한 가지 내어보내고, 강소년을 잡으려고 각 경찰소로 전화도 하고 조선 유학생도 일변 조사하니 각 신문에 ‘불행위행(不幸爲幸)<sup>3)</sup>’이라 제목하고 정임의 사실의 수미(首尾)<sup>4)</sup>를 게재하여 극히 찬양하였으매 동경 있는 조선 유학생이 그 사실을 모를 사람이 없더라.

정임이와 영창이가 재판소에서 나와서 같이 여관으로 돌아와 마주 앉으니 몽몽(夢夢)<sup>5)</sup>한 꿈속에 보는 것도 같고, 죽어 혼백이 만난 듯도 하여 그 마음을 이루 측량할 수 없는지라.

서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그사이 풍파 겪고 고생하던 이야기를 작약(雀躍)<sup>6)</sup>히 하다가, 황빈 영국영사관으로 내려가서 정임이는 스미트를 보고 영창이 구제함을 감사히 치하하고, 영창이는 공교(工巧)<sup>7)</sup>히 정임이 만난 말을 하며 본국으로 나가서 혼례 지낼 이야기를 하니, 스미트도 대단히 신기히 여기고 혼례 준비금 삼천 원을 주는지라.

3) 불행이 오히려 행운이 됨.

4) 처음과 끝.

5) 분명하지 않고 흐리멍덩함.

6) 너무 좋아서 날뛰며 기뻐함.

7) 뜻밖에 서로 맞거나 틀리는 것이 기이함.

정임이는 곧 장문 전보를 본가로 보내고 영창이와 한가지 발정(發程)하여 서울 남문 정 거장에 가까이 오니, 한강은 용용(溶溶)<sup>1)</sup>하고 남산은 의의(猗猗)<sup>2)</sup>하여 의구(依舊)<sup>3)</sup>한 고국산천이 환영하는 뜻을 머금었더라.

정임이 동경으로 가던 그 이튿날 아침에 이시종집에서는 혼인 잔치 차리느라고 온 집안이 물끓듯 하며 봉채시루<sup>4)</sup>를 찢다, 신랑마중을 보낸다 법석을 하는데, 신부는 방문을 적적 닫고 일고삼장(日高三丈)<sup>5)</sup>하도록 일어나지 아니하며 이시종 부인이 심히 이상히 여기고,

“이 애, 정임아. 오늘 같은 날 무슨 잠을 이리 늦게 자느냐? 어서 일어나서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여라. 벌써 수모(手母)<sup>6)</sup>가 왔다.”

하며 방문을 열어보니, 정임이는 간 곳 없고 웬 편지 한 장이 자리 위에 펴 있는데,

(편지) ‘불효의 딸 정임은 부모를 떠나 멀리 가는 길을 임하여 죽기를 무릅쓰고 두어 마디 황송한 말씀을 아버지, 어머니께 올리나이다.

대저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윤강(倫綱)<sup>7)</sup>을 지키지 못하면 가히 사람이랄 것 없이 금수와 다르지 아니함은 정한 일이 아니오니까? 그러하운데 부모께옵서 기왕 이 몸을 영창이에게 허혼(許婚)하였사오니 비록 성례(成禮)<sup>8)</sup>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영창의 집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터이라 어찌 영창이 있

1) 큰 강물의 흐름이 넓고 조용함.  
2) 아름답고 성함.  
3)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음.  
4) 신랑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갈 때 신부 집에서 신랑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는 떡.  
5) 해가 세 길이나 떠올랐다는 뜻으로, 날이 밝아 해가 높이 뜬을 이르는 말.  
6) 전통 혼례 때, 신부의 단장 및 그 밖의 일을 곁에서 거들어 주는 여자.  
7) 윤리.  
8) 혼인의 예식을 지냄.

고 없는 것을 헤아리오리까.

지금 사세로 말씀하오면 위에 늙은 부모가 계시고 아래에 사내 아해 동생이 없으며 그 정형(情形)<sup>9)</sup>이 대단히 절박하오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 바는 아니오라.

지금 만일 부모의 두 번 명령하심을 복종하와 다른 곳으로 또 시집가오면 이는 부모로 하여금 그런 곳에 빠지게 하여 오륜의 첫째를 위반함시오, 이 몸으로써 절개를 잃어 삼강의 으뜸을 문란케 함이오니, 정임이가 비록 같지 못한 계집 아해오나 어찌 조그마한 사정(私情)을 의지하여 윤강을 어기고 금수에 가까운 일을 차마 행하오리까.

그러하므로 죽사와도 내일 일은 감히 이행치 못하옵고 곧 만리봉정(萬里鵬程)<sup>10)</sup>의 먼 길을 향하오니, 부모의 슬하를 떠나 걱정을 시키는 일은 실로 불효막심하오나 백 번 생각하고 마지못하여 행하옵나이다.

그러하오나 멸학매식한 천질(賤質)<sup>11)</sup>로 해외에 놀아 문명 공기를 마시고 좋은 학문을 배워 돌아오면 이 어찌 영화가 되지 아니하오리까. 멀지 아니하여 돌아오겠사오니 과도히 근심 마옵시기를 천만 바라오며, 급히 두어 자로 갖추지 못하오니 아버지, 어머니는 만수무강하옵소서.’

부인이 이 편지를 집어 들고 깜짝 놀라며 자세히 보지도 않고 사랑에 있는 이시종을 청하여 그 편지를 주며 덜덜 떠는 말로,

(부인) “이거 변괴요그러. 요런 방정맞은 년 보아.”

(이) “왜 그리야, 이게 무엇이야..... 응?”

하고 그 편지를 받아보는데 부인의 마음에는 그 딸이 죽어서 나간 듯이 서운 섭섭하여 비죽비죽 울며 목멘 소리로,

9) 딱한 형편.  
10) 산을 넘고 내를 건너 아주 멀.  
11) 자기의 품성을 낮추어 일컫는 말.

(부인) “고년이 평일에 동경 유학을 원하더니 아마 일본을 갔나 보오. 고년이 자식이 아니라 애물이야. 고 어린년 어디 가서 고생인들 오죽할라구. 고년이 요런 생각을 둔 줄 알았다면 아해년으로 늙어 죽더라도 고만두었지. 그러나 저러나 아무 데를 가더라도 죽지나 말았으면.”

하며 무당 녀두리하듯 하는데 이시종이 그 편지를 다 보더니,

(이) “여보, 요란스럽소. 떠들지나 마오.”

하고 전보지를 내어 정임이 압류(押留)하여 달라고 부산경찰서로 보내는 전보를 써가지고 전보 부칠 돈을 꺼내려고 철책을 열어보니, 귀 떨어진 엽전 한 푼 아니 남기고 죄다 닥닥 긁어내었는지라, 하릴없이 제 은행소절수(小切手)<sup>1)</sup>에 도장을 찍어 지갑에 넣더니,

(이) “여보 마누라, 나는 전보 부치고 바로 부산까지 다녀올 터이니 집안일은 마누라가 휘잡<sup>2)</sup>을 잘하오.”

하고 나갔는데, 부인은 정신없이 허둥지둥 할 사이에 잔치 손님이 꾸역꾸역 모여들고, 마침 중매 아버 정임의 외삼촌이 오는지라.

부인이 그 동생을 붙들고 정임이 이야기를 한창 하는 판에 새신랑이 사모관대(紗帽冠帶)하고 안부(雁夫)<sup>3)</sup>를 말머리에 앞세우고 우적우적 달려드니, 부인 남매는 신부가 밤사이 도망하였다는 말을 어찌하며, 또 갑자기 죽었다고 핑계도 할 수 없는 터이라.

어찌할 줄 모르고 창황망조(蒼黃罔措)<sup>4)</sup>하다가, 동<sup>5)</sup>에 닿지도 않는 말로 신부가 지나간 밤에 급히 병이 나서 병원에 가 있다고

1) 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유가 증권.

2) 너더분한 일을 잘 마무름.

3) 기력아버.

4)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5) 사물의 조리

우선 말하니, 그 눈치야 누가 모르리오. 안손, 바깥손, 내 하인, 남의 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군수군, 저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군수군하되, 신부 없는 혼인을 어찌 지낼 수 있으리오.

닭 쫓던 개는 지붕이나 쳐다보지마는 장가들러 왔던 신랑은 신부를 잃고 뒤통수치고 돌아서고, 정임의 외삼촌은 즉시 신랑의 부친 박과장을 가서 보고, 정임의 써놓고 간 편지를 내어보이며, 사실의 수미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무수히 사과하였으나, 그 창피한 모양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시종은 그 길로 즉시 부산을 내려가서 연락선 타는 선창(船艙)목을 지키나, 그때 색주가 서방에게 잡혀가 갇혀 있는 정임을 어찌 그림자나 구경할 수 있으리오.

하릴없이 그 이튿날 도로 올라오는 길에 경찰서에 가서 간절히 다시 부탁하고 왔으나 정임이는 일본옷 입고 일본사람 틈에 끼어 갔으며 경찰서에서도 알지 못하고 놓쳐 보낸 것이더라.

이시종 내외는 생세지락(生世之樂)<sup>6)</sup>을 그 외딸 정임에게만 붙이고 늙어가는 터이라. 응석도 재미로 받고, 독살(毒煞)<sup>7)</sup>도 귀엽게 보며, 근심이 있다가도 정임이 얼굴만 보면 없어지고, 화증이 나다가도 정임이 말만 들으면 풀어지며, 어디를 갔다 오다가도 대문간에서 정임이부터 찾으며 들어오는 터이더니, 정임이가 흔적 없이 한번 간 후로 정임의 거동은 눈에 암암하고, 정임이 목소리는 귀에 쟁쟁하여 정임이 생각에 곤한 잠이 번쩍번쩍 깨어 미칠 것같이 지내는데, 어느 날 아침에는 하인이 어떤 편지 한 장을 가지고 들어오며,

“이 편지가 댁에 오는 편지오니까? 우체 사

6)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재미.

7) 성품이나 행동이 살기가 있고 악독한 데가 있다.

령이 두고 갔습니다.”

하는데 피봉 전면에는 ‘경성북부 자하동 一〇八,一〇 이시중〇〇 각하’라 쓰고, 후면에는 ‘동경시 하곡구 기관정 십 일번지 상야관 이 정임’이라 하였는지라, 이시중이 받아보매 눈이 번쩍 띄어,

(이) “마누라, 마누라! 정임이 편지가 왔소 그려.”

(부) “아, 에그! 고년이 어디 가서 있단 말씀이요?”

하며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비죽비죽 우는데 이시중이 그 편지를 떼어보니,

(편지) ‘미거한 여식이 오괴(迂怪)<sup>1)</sup>한 마음으로 불효됨을 생각지 못하옵고, 홀연히 한번 집 떠난 후에 성사(成事)를 오래 꺾(闕)하오니<sup>2)</sup> 지극히 황송하옵고 또한 문후(問候)<sup>3)</sup>할 길이 없사와 민울(悶鬱)<sup>4)</sup>한 마음이 측량할 길 없사오며, 그사이 추풍은 불어 다하고 쌓인 눈이 심히 춥사온데 기체후(氣體候)<sup>5)</sup> 일향만안(一向萬安)<sup>6)</sup>하옵시고, 어머님께옵서도 안녕하시오니까.

복모구구(伏慕區區)<sup>7)</sup> 불리옵지 못하오며, 여식은 그때 곧 동경으로 와서 공부하고 잘 있사오나, 아버님, 어머님 뵈옵고 싶은 마음과, 부모께옵서 이 불효의 자식을 과히 근심하실 생각에 잠이 달지 아니하며 먹어도 알지 못하고 항상 민망히 지내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집에 있을 때에 지어주는 옷이나 입고 다 해놓은 밥이나 먹으며 사나이가 눈에 띄면 큰 변으로 알아 대문 밖을 구경치 못하옵다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문명국의

1) 물정에 어둡고 기괴함.  
2)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빠뜨림.  
3) 웃어른의 안부를 물음.  
4) 안타깝고 답답함.  
5) 몸과 마음의 형편  
6) 줄곧 편안하시고,  
7) 삼가 사모하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성황을 관찰하오매 시가의 화려함은 좁은 안목에 모두 장관이옵고, 풍속의 우미(愚迷)<sup>8)</sup>함은 어두운 지식에 배울 것이 많사와 날마다 풍속 시찰하기에 착심(着心)<sup>9)</sup>하고 있사오니, 본국 여자는 모두 집안에 칩복(蟄伏)<sup>10)</sup>하여 능히 사람 된 직책을 이행치 못하고 그 영향이 국가에까지 미치게 함이 마음에 극히 한심하옵기, 속히 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많이 공부하여 가지고 귀국하와 일반 여자계를 개량코자 하옵나이다.

이 자식은 자식으로 생각지 마옵시고 너무 걱정 마시기를 천만 바라오며 내내 기운 안녕하옵시기 었디어 비옵고 더할 말씀 없사와 이만 아뢰옵나이다!

년 월 일여식(一女息) 정임 상서(上書)’

그 편지를 내외분이 돌려가며 보다가,

(부인) “아이그, 고년이야, 어린 년이 동경을 어찌 갔나! 고년, 조꼬만 년이 맹랑도 하지. 영감은 그때 부산서 무엇을 보고 오셨소? 경관도 변변치 못하지..... 그러고 저러고 아무 데든지 잘 가 있다는 소식을 알았으니 시원하오마는, 우리가 늙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그 딸자식 하나를 오래 그리고는 못살겠소. 기다랗게 할 것 없이 영감이 가서 데리고 오시오. 시집만 보내지 아니하면 고만이지요. 제가 마다하고 아니 가는 시집을 부모인들 어찌하겠소.”

(이) “그렇지마는 사기가 이렇게 된 이상에 그것을 다려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점점 모양만 더 창피하니 나중에 어찌하던지 아직 저 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왱자히 소문내지 마시오.”

부인은 단지 그 딸을 간 곳도 모르고 그리던 끝에 보고 싶은 생각이 더욱 바빠서 한

8) 우매.  
9) 어떤 일에 마음을 붙임.  
10) 칩거.

말인데, 그 남편의 대답이 이렇게 나가매 조급한 마음을 참고 있으나, 원래 부인의 성정이라 딸 보고 싶은 생각만 나면 그만 데려오라고 은근히 그 남편을 조르는 터이지마는 이시종은 그렇지 아니한 이유를 그 부인에게 간곡히 설명하고, 다달이 학자금 오십 원씩 보내주며, 언제든지 제 마음 내키는 대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두 내외가 비둘기같이 의지하여 한 해 두 해 지내는데, 늙어갈수록 정임의 생각이 간절하여 몸이 좀 아프기만 하면 마음이 더욱 처연(淒然)<sup>1)</sup>한 터이라.

하루는 부인이 몸이 곤하여 안석(案席)에 의지하였는데 홀연히 마음이 좋지 못하여,

‘몸이 이렇게 은근히 아프니 아마 정임이를 다시 못 보고 황천에 가려나 보다.’

하며 생각하고 누웠더니 서창(西窓)으로 솔솔 불어오는 맑은 바람에 낮잠이 혼곤히 오는데, 전에 살던 교동집에서 옥동 박 신랑과 정임이 혼인을 지낸다고 수선하는 중에 난데없는 영창이가 칼을 들고 별안간 달려들며 내 계집을 또 시집 보내는 놈이 누구냐고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고 이시종을 칼로 찍으니 이시종이 마루에 넘어져서 발을 버둥버둥 하며,

“어..... 어!”

하는 소리에 잠을 번쩍 깨니 대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며,

“전보 들여가요, 전보 들여가요.”

하는 소리가 귀에 그렇게 들리는지라, 그때 하인은 다 어디로 갔던지 부인이 급히 나가 전보를 받아보니 정임에게서 온 전보이다. 꿈 생각하고 정임이 전보를 받으며 가슴이 선뜩하여 급히 떼어보니 전보지는 대여섯 장 겹치고 전문은 모두 꾸불꾸불한 일본 국문이라, 볼 줄은 알지 못하고 갑갑하고 궁궁하여,

1) 기운이 차고 쓸쓸함.

“이게 무슨 말이고? 요사이 꿈자리가 어지럽더니 근심스러운 일이 또 생겼나 보다. 제가 나올 때도 되었지마는 나온다는 말 같으면 이렇게 길지 아니할 터인데, 아마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이겠지.”

하며 중얼중얼하는 때에 이시종이 들어오는지라. 부인이 전보를 내어놓으며 꿈이야기를 하는데 이시종도 역시 소경 단청<sup>2)</sup>이라. 서로 답답한 말만 하다가 일본어학 하는 사람에게 번역하다가 보니 다른 말 아니오, 상야 공원에서 봉변하던 말과 의외에 영창이 만난 말과 영창이와 방금 발정하여 어느 날 몇 시에 서울 도착한다는 말이다.

일변 놀랍기도 하고 일변 반갑기도 하여, 이시종은 감투를 둘러쓰고 돌아다니며 작은 사랑을 수리해라, 건넌방에 도배를 해라 분주히 날치고,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마루로 나섰다 정신없이 수선하며 내외가 밥먹을 줄도 모르고 잠잘 줄도 모르고 칙사(勅使)나 오는 듯이 야단을 치더니, 정임이 입성(入城)한다는 날이 되매 남대문역으로 정임이 마중을 나가는데 정임이 타고 오는 기차가 도착하니, 그때 정거장 한 모퉁이에는 서로 붙들고 눈물 흘리는 빛이더라.

정임이는 좋은 학문도 많이 배우고 가슴에 못이 되던 영창이를 만나서 다섯 해 만에 집에 돌아와 그 부모를 뵈니 이같이 기쁜 일은 다시 없이 여기고 왕사(往事)<sup>3)</sup>는 다 잊어버린 터이지마는, 이시종이 좋은 마음이야 오죽할 것이나, 정임이를 박과장집으로 시집보내려고 하던 생각을 하매 정임이 불 낫도 없을 뿐더러, 더구나 영창이 보기가 면난(面覓)<sup>4)</sup>하여 좋은 마음은 속에 품어두고 정임이나 영창이를 대할 적마다 부끄러운 기색이 표면

2) 내용의 분별도 못하며 사물을 봄.

3) 지난 일.

4) 남을 대할 때 무안하거나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지는 듯함.

에 나타나더니,

그 일은 이왕 지나간 일이라 그런 생각은 다 접어놓고, 일변 택일을 하고 일변 잔치를 차리며 일변은 친척, 고우(故友)에게 청첩을 보내서 신혼 예식을 거행하는데, 예식을 습관으로 할 것 같으면 전안도 하고 초례도 하겠지마는, 이시종도 신식을 모방하여 신혼식을 거행한다.

신랑은 문관 대례복에 신부는 부인 예복을 입고 청결한 예식장에 단정히 마주 선 후에 신부의 부친 이시종 매개로 악수례를 행하니, 그 많이 모인 잔치 손님들은 그런 혼인을 처음 보는 터이라, 혹 입을 막고 웃는 사람도 있고, 혹 돌아서서 흉보는 사람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습관을 개혁(改革)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수히 찬성하는데, 한편 부인석에서 나이 한 사십 된 부인이 나서더니,

“이 사람이 아모 지식은 없사오나 오늘 혼례에 대하여 할 줄 모르는 말 서너 마디 할 터이오니 여러분은 용서하십시오.”

하고 연설을 시작한다.

(연설) “대저 신혼 예식이라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비로소 부부가 된다고 처음으로 맹약(盟約)하는 예식이 아니오니까. 그런 고로 그 예식이 대단히 소중한 예식이 올시다. 어찌 소중하냐 하면 한 번 이 예식을 지낸 후에는 백 년의 고락을 같이 하며 만대의 혈속(血屬)을 전할 뿐 아니요, 남편 되는 사람은 또 장가들지 못하고 더군다나 아내되는 사람은 다른 남자를 공경하는 일이 절대적 없는 법이니, 이렇게 소중한 혼례식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하나 그 내용상으로 말하면 이같이 중대하지마는 그 표면적으로 말하면 한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왜 그러하냐 하면, 이 예식을 지내고라도 남편이 아내를 버린대든지, 아내가 행실이 부정할 것

같으면 소위 예식이라 하는 것은 한 희롱(戲弄)되고 말 것이요. 만일 예식은 아니 지내고라도 부부가 되어 혼례식 지낸 사람보다 의리를 잘 지키면 오히려 예식 지내고 시종이 여일(如一)<sup>1)</sup>치 못하니보다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하니 그 의리라 하는 것은 이왕 말씀한 바와 같이 남편은 또 장가들지 못하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공경치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중에 아내되는 사람의 책임이 더욱 중하니 서양 풍속 같으면 남녀가 동등 권리를 보유하여 남편이나 아내나 일반이지마는, 원래 동양 습관에는 남편은 어떠한 외입을 하든지 유처취처(有妻聚妻)<sup>2)</sup>하여 몇 번 장가를 들든지 아무 관계 없으나 여자가 만일 한번 실절(失節)<sup>3)</sup>하면 세상에 다시 용납치 못할 사람이 되니, 남녀가 동등(同等)되지 못하고 남편의 자유를 묵허(默許)<sup>4)</sup>함은 실로 불미(不美)<sup>5)</sup>한 풍속이지마는, 그는 여자가 권리를 스스로 잃은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아내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원리적으로 여자의 직분이 아니오니까?

그러하지마는 음분(淫奔)<sup>6)</sup> 난행(亂行)<sup>7)</sup>은 많이 여자에게서 먼저 생기는 고로, 옛적 성인도 ‘열녀는 불경이부(不敬二夫)’라 하여 여자를 더욱 경계하셨으니, 남의 아내 된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더 중합니까?

그러하나 그 의리와 직책을 잘 지키기 장히 어려운 고로 열녀가 나면 그 영명(榮名)<sup>8)</sup>을 천고에 칭송하는 바가 아니오니까? 그리한데 오늘 신혼식 지낸 신부 이정임이는 가

1)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2) 아내가 있는 사람이 또 아내를 얻음.  
3) 절개를 지키지 못함  
4) 잡자코 내버려 두고 슬그머니 허락함.  
5)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함.  
6) 남녀가 음탕한 짓을 함.  
7) 난잡한 행동.  
8) 명예.

히 열녀의 반열에 참례하겠다 합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자 하면, 정임이 강보에 있을 때에 그 부모가 김영창 씨와 혼인을 정하여 서로 내외 될 사람으로 인정하고 같이 자라났으니, 그 관계로 말하든지 그 정리로 말하든지 그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는 혼례식 아니 지냈다고 어찌 부부의 의리가 없다 하리까.

그러나 중도에 영창 씨의 종적을 알지 못하니 만일 열녀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시집 갔으려면마는 그 의리를 지키고 결코 김영창 씨를 저버리지 아니하여 천곤백난(千困百難)<sup>1)</sup>을 지내고 기어코 김영창 씨를 다시 만나 오늘 예식을 거행하니 그 숙덕이 가히 열녀 되겠습니까 못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여 보시오.(내빈이 모두 박수한다.)

또 신혼 예식 절차로 말씀하면 상고시대에 나무 열매 먹고 풀로 옷 지어 입을 때에야 어찌 혼인이니 예식이니 하는 여부가 어디 있으리까. 생생지리(生生之理)<sup>2)</sup>는 자연한 이치인 고로 금수와 같이 남녀가 난잡히 상호(相交)<sup>3)</sup>하매 저간에 무한한 경쟁이 있더니, 사람의 지혜가 조금 발달되어 비로소 검은 말가죽으로 폐백하고 일부일부(一夫一婦)가 작배(作配)<sup>4)</sup>함으로부터 차차 혼례라 하는 것이 발명되었는데, 그 예식은 고금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뿐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한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니 그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는 예식의 절차는 아무쪼록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한데 조선 풍속에는 혼인을 지내려면 그날 신랑은 호강하지마는, 신부는 큰 고생하는 날이올시다. 얼굴에는 회박<sup>5)</sup>을 씌워서 연지끈지를 찍

1) 수많은 곤란함.  
2) 모든 생물이 생식하는 자연의 이치.  
3) 서로 어울리어 사귀.  
4) 남녀가 짝을 이룸.

고, 눈은 왜밀로 철걱 붙여 소경을 만들어 앉히고, 엉덩이가 저려도 종일 꼼짝 못하게 하니 혼인하는 날같이 좋은 날 그제 무슨 못할 일이오니까.

여기 계신 여러 부인도 아마 그런 경우 한번씩은 다 당해 보셨겠습니까마는 그렇게 괴악(怪惡)<sup>6)</sup>한 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혹 '저것도 예식이라고 하나?'하는 분도 계실 듯하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지 못한 구습을 먼저 개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든지 도저히 개량하여 볼 날이 없습니다.

오늘 지낸 예식이 가히 조선에 모범이 될 만하오니 여러분도 자녀간 혼인을 지내시려거든 오늘 예식을 모방하십시오. 나는 정임의 외삼촌 숙모가 되는 사람이나 조금도 사정된 말씀이 아니오니 여러분은 깊이 헤아리시기를 바라오며, 변변치 못한 말씀을 오래 하오면 들으시기에 너무 지리하고 괴로우실 듯 하와 고만두겠습니다."

연설을 마치매 남녀간 손님이 모두 박수갈채하고 헤어져 가는데, 그날 밤 동방화촉(洞房華燭)<sup>7)</sup>에 원앙금침(鴛鴦衾枕)<sup>8)</sup>을 정답게 펴놓으니 만실춘풍(滿室春風)에 화기가 융융(融融)<sup>9)</sup>하고 이시종은 희색이 만면하여 사랑에서 친구와 술 먹으며 그 딸의 사실 일장을 이야기하더라.

상야 공원에서 정임이를 칼로 찌르던 강소년은 대구 부자의 아들인데, 열네 살에 그 부친이 죽으매 열다섯 살부터 외입에 반하여 경향으로 다니며 양첩(良妾)<sup>10)</sup>도 장가들고 기생도 떼어 팔선녀(八仙女)를 꾸려서 여기저

5) 석회를 되거나 담는 데에 쓰는 뒷박.  
6) 말과 행동이 괴이하고 흉악하다.  
7) 동방에 비치는 환한 촛불이라는 뜻으로, 혼례를 치르고 첫날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  
8) 원앙을 수놓은 이불과 베개.  
9) 화평한 기운이 있다.  
10) 양민 출신의 첩.

기 큰집을 다 각각 배치하고 화려한 문방구는 잡화상을 벌이며, 각종의 음악기와 연극장을 설립하여 놓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무궁한 행락을 하다가 못하여 그것도 오히려 부족히 여기고, 주사청루(酒肆靑樓)<sup>1)</sup>는 거르는 날이 없으며 산사강정(山寺江亭)<sup>2)</sup>에 아니 노는 곳이 없이 그 방탕함이 끝이 없으며, 저에 남은 십여만 원 재산이 몇 해 아니 가서 다 없어지고, 종조리(終條理)<sup>3)</sup>판에는 토지가 옥까지 몰수되는 강제 집행을 당하니, 그 많은 계집들도 물 흐르고 구름 가듯 하나둘씩 뿔뿔이 다 달아나고 제몸 하나만 울연히 남았다.

대저 음탕 무도(無道)하던 놈이 이 지경이 되면 개과천선(改過遷善)할 줄은 모르고 도적질할 생각이 생기는 것은 하등 인류의 자연한 이치라. 그 소년도 제 신세 결판나고 제 집 망한 것은 조금도 후회 없고, 단지 흔히 쓰던 돈 못쓰고 잘하던 외입 못하는 것이 지극히 민망하여 곧 육촌의 전답(田畓) 문권(文券)<sup>4)</sup>을 위조하여 만 원에 팔아가지고 또 한참 흥청거리다가, 그 일이 발각되어 육촌이 정장(呈狀)<sup>5)</sup>하였으므로 관가에서 잡으려고 하매 즉시 동경으로 달아나, 산본이라 하는 노파의 집에 주인을 잡고 있는데,

아무 소관사 없이 오래 두류(逗留)<sup>6)</sup>하는 것을 모두 이상히 여길 뿐 아니요, 경찰서 조사에 대답하기가 곤란하여 유학생인 체하고 어느 학교에 입학하였다 조금만 생각이 있는 놈 같으면 별풍상 다 겪고 내 재물 그만치 없었으니 동경같이 좋은 곳에 와서 남의 경

황을 구경하였으면 제 마음도 좀 회개할 듯 하건마는, 개꼬리를 땅에 삼 년 묻어두어도 황모가 되지 아니한다고, 학교에 입학은 하였으나 공부에는 정신 없고 길원 같은 화류장(花柳場)<sup>7)</sup>에나 종사하며 얼굴 반반한 여학생이나 쫓아다니는 터인데, 정임이 학교에 가는 길이 강소년 학교에 오는 길이라.

정임이는 몰랐으나 강소년은 정임을 학교에 갈 적 만나고 올 적에 만나매 음흉한 욕심이 가슴에 탕중(撐中)<sup>8)</sup>하여, 정임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따라가 보기도 하고 정임이 있는 여관 앞까지 쫓아와 보기도 하였으나, 정임이가 대문 안으로 쑥 들어가기만 하면 한 겹 대문 안이 태평양을 격한 것같이 적막하고 다시 소식 없어 마음에 점점 감질만 나게 되매 항상,

‘그 여학생을 어찌하면 한 번 만나볼꼬?’

생각하더니 어떻게 알아보았던지 그 여학생이 조선 사람인 줄도 알고 이름이 이정임인 줄도 알았으나, 어떻게 놀려낼 수단이 없어 주인의 딸 산본영자를 시켜 여학생 일요 강습회를 조직하고, 이정임을 유인하여 회장을 만들어놓고, 자기는 재무 촉탁이 되어 정임이와 관계나 가까이 되고 면분(面分)<sup>9)</sup>이나 두터워지거든 어떻게 꼬여볼까 한 일인데,

사맥(事脈)<sup>10)</sup>은 여의(如意)<sup>11)</sup>히 되었으나 정임이 정숙한 태도에 압기(壓氣)<sup>12)</sup>가 되어 말도 못 붙여보고 또 산본 노파를 소개하여 정당히 통혼도 하여 보다가 그 역시 실패하매 이를 것 없이 분히 여기던 차에, 공교히 호젓한 불인지 가에서 만나 달빛에 비추이는 자색(姿色)을 다시 보매 불 같은 욕심이 바

1) 술집·기생집·매음굴 등의 통칭.  
 2) 산에 있는 절과 강에 있는 정자.  
 3) 일이나 행동 따위를 마무리 짓는 조리(條理).  
 4) 땅이나 집 따위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  
 5) 소장(訴狀)을 관청에 냄.  
 6) 체류.

7) 화류계.  
 8) 화나 욕심 따위가 가슴속에 가득함.  
 9) 얼굴이나 아는 정도의 정분.  
 10) 일의 내력과 갈피.  
 11)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됨.  
 12) 기세에 놀림.

짜 나서 어찌 되었던지 한 번 쏘아보리라 하다가 종내 그렇게 행패하고 그 길로 도망하여 조선으로 나왔으나,

죄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매 집으로는 가지 못하고 바로 서울 와서 변성명(變姓名)<sup>1)</sup>하고 돌아다니더니, 하루는 북창동 네거리에서 동경 있을 때에 짝패가 되어 계집의 집에 같이 다니던 유학생 친구를 만나니, 그야말로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그 친구도 역시 강소년과 한 바리에 실을 사람이라.

장비(張飛)는 만나면 싸움이라더니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우리가 아니면 계집의 집으로 가는 일밖에 없는 터이라.

이때에 또 만나서,

“이 애, 오래간만에 만났으니 술이나 한 잔씩 먹자.”

“무슨 맛에 술만 먹는단 말이냐. 술을 먹으려거든 은근자(慇懃者)<sup>2)</sup> 집으로 가자.”

하며 두서너 마디 수작이 되더니 으스스하고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느라 가는 것이 잣골 이시종집 옆에 있는 ‘진주집’이라 하는 밀매 음녀집에 가서 술을 먹는데,

그 친구는 동경서 ‘불행위행’이란 신문 잡보도 보고 경찰서에서 유학생 조사하는 통에 강소년이 그런 짓 하고 도망한 줄 알고 조선을 나왔으나, 강소년을 만나매 남의 단처(短處)<sup>3)</sup>를 아는 체할 필요가 없어 그 일 아는 새색도 아니하고, 계집 데리고 술 먹으며 정답고 재미있게 밤이 깊도록 노는 터이더니, 원래 탕자 잡류의 경박한 행동은 정다운 친구 술 먹으러 가재 놓고도 수 틀리면 때리고 욕하기는 항용 하는 일이라.

두 사람이 술이 잔뜩 취하여 횡설수설 주

정을 하던 끝에 주인 계집 까닭으로 시비가 되어 옥신각신 다투다가, 술상도 치고 세간도 부수더니, 점점 쇠어 큰 싸움이 되며 뺨도 때리고 옷도 찢으며 일장풍파(一場風波)<sup>4)</sup>가 일어나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재판을 가자 호소를 가자 하며 떡살을 서로 잡고 이시종 집 대문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친구) “이놈, 네가 명색이 무엇이냐? 네까짓 놈이 뉘 앞에서 요파위 버르장이를 하여! 네가 요놈, 동경서 여학생 정임이를 죽이고 도망해 나온 강가놈이지. 너 같은 놈은 내가 경무청에 고발만 하면 네 죄는 경하여야 종신(終身) 징역이다. 요놈, 죽일놈 같으니!”

하며 닭 싸우듯 하는 소리가 벽력같이 이시종집 사랑에까지 들리더라. 이때는 곧 정임이 신혼식 지내던 날 저녁이라. 이시종이 사랑에서 친구와 술 먹으며 정임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야 공원에서 강소년이 행패하던 말을 막 하는 판에 모든 사람이 매우 통분히 여기는 때에 별안간 문밖에서 왈차하는 소리가 나는지라.

여러 사람이 모두 귀를 기울이고 듣더니, 그 좌석에 북부경찰서 총순(總巡)<sup>5)</sup> 다니는 사람이 앉았다가 그 싸움 소리를 듣고 즉시 쫓아나가 그 소년을 잡으니 갈 데 없는 강소년이라. 온 집안이 들썩들썩하며,

“아이그, 고놈 용하게도 잡혔다.”

“고놈 상판대기가 어떻게 생겼나 좀 구경하자.”

“요놈이 살인 미수범이니까 몇 해 징역이나 될꼬?”

하며 어른 아해가 모두 재미있어 하다가 그 소년은 곧 북부경찰서로 잡아가니 온 집안이 고요하고 종려나무 그림자 밑에 학의 잠이 깊었는데, 정임이 신방에서 낭랑옥어(朗

1) 성과 이름을 다르게 고침.  
2) 은근짜. 몰래 몸을 파는 여자.  
3)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점.

4) 한바탕의 심한 야단이나 싸움을 비유한 말.  
5) 구한말에, 경무청에 속한 판임관.

朗玉語)1)가 재미있게 나더라.

조선 습관으로 말하면 혼인 갖한 신랑 신부는 서로 말도 잘 아니하고 마주 앉지도 못하여 가장 스스러운 체하는 법이오, 더구나 신부는 혼인한 지 삼 일만 되면 부엌에 내려가 밥이나 짓고 반찬이나 만들기를 시작하여 바깥은 구경도 못하는 터이라 내외가 한가지 출입하는 일이 어디 있으리요마는, 영창이 내외는 혼인 지내던 제 삼일에 만주 봉천(奉天)으로 신혼여행을 떠난다.

내외가 나란히 서서 정답게 이야기하며 정거장으로 나가는 모양이 영창이는 후록코우트에 고모(高帽)2)를 쓰고, 한 손으로 정임이 분홍 양복 땅에 끌리는 치맛자락을 치켜들었으며, 정임이는 옥색 우산을 어깨 위에 높이 들어 영창이와 반씩 얼러 받았는데, 그 요조(窈窕)한 태도는 가을 물결 맑은 호수에 원앙이 쌍으로 나는 것도 같으며, 아침별 성긴 울에 조안화(朝顔花)3)가 일시에 웃는 듯도 하더라.

신혼여행은 서양 풍속에 새로 혼인한 신랑 신부가 서로 심지(心志)도 훑어보고 학식도 시험하며 처음으로 정분도 들이고자 하여 외국이나 혹 명승지로 여행하는 것인데, 만일 서로 지기(志氣)가 상합(相合)치 못하면 그 길에 이혼도 하는 일이 있지만, 영창이 내외야 무슨 심지를 더 훑어보고 어떤 정분을 또 들이며 어찌 이혼 여부가 있으리요마는, 유람도 할 겸 운동도 할 겸 서양 풍속을 모방하여 떠나는 여행이라.

남대문 정거장에서 의주 북행 차 타고 가며 곳곳이 구경하는데, 개성에 내려 황량한 만월대와 처창(棲愴)4)한 선죽교의 고려 고적을 구경하고, 평양 가서 연광정에 오르니, 그

1) 낭랑하게 들리는 구슬같은 말.  
2) 예복 차림을 할 때에 쓰던 높은 모자.  
3) 나팔꽃.  
4) 몹시 구슬프다.

한유(閑裕)5)한 안계(眼界)는 대동간 비단 같은 물결에 백구는 쌍으로 날고 한가한 돛대는 멀리 돌아가는 경계가 가히 시인 소객(詩人騷客)6)이 술 한 잔 먹을 만한 곳이라.

행장에 포도주를 내어 서로 권하여 전일 평양감사 시대에 백성의 피 빨아 가지고 이곳에서 기생 데리고 풍류하며 극호강들 하던 것을 탄식하다가, 곧 부벽루, 모란봉, 영명사, 기린굴 등을 낚낚이 구경하고, 그 길로 안주 백상루, 용천 청유당 다 지나서 의주 통군정에 올라 난간에 의지하여 압록강상에 풍범사도(風帆沙島)와 연운죽주(煙雲竹柱)를 바라보더니 영창이 얼굴에 초창한 빛을 띠고 손을 들어 사장(沙場)을 가리키며,

(영창) “저곳이 내가 스미트 박사 만났던 곳이오. 저곳을 다시 보니 감구지회(感舊之懷)7)를 이기지 못하겠소. 이 완악(頑惡)8)한 목숨은 살아 이곳에 다시 찾아왔으나, 우리 부모는 저 강물에 장사 지내고 다시 뵈지 못하겠으니 천추에 잊지 못할 한을 향하여 호소할 데가 없소그려.”

하고 바람을 임하여 한숨을 길게 쉬며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니, 정임이도 그 말 듣고 그 모양 보매 자연 비감한 생각이 나서 역시 눈물을 씻으며,

(정임) “그 감창(感愴)9)한 말씀이야 어찌 다 하오리까! 오늘날 부모가 살아 계시면 우리를 오죽 귀애(貴愛)하시겠소. 그 부모가 우리를 그렇게 귀히 길러 재미를 못 보시고 중도에 불행히 돌아가셨으니, 지하에 가서 차마 눈을 감지 못하실 터이오. 우리도 그 부모를 봉양코자 하나 어찌할 수 없으니 그야말로 자욕효이친부재(子欲孝而親不在)10)요그려. 그

5) 한가히 노닐.  
6) 문인이나 시인.  
7) 지난 일을 생각하는 마음.  
8) 성질이 역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9) 어떤 느낌이 가슴에 사무쳐 슬프다.

러나 과도히 슬퍼 마시고 아무쪼록 귀중한 몸을 보전하시오.”

이렇게 서로 탄식도 하며 위로도 하다가, 즉시 압록강을 건너 구련성을 구경하고 계관역에 내려 멀리 계관산과 송수산을 지점하며,

(영창) “이곳은 일로전역(日露戰役)<sup>1)</sup> 당시에 일본군이 대승리하던 곳이오그려. 내가 이곳을 지나가본 지 몇 해가 못 되는데, 벌써 황량한 고(古) 전장(戰場)이 되었네.”

(정임) “아……. 가련도 하지. 저 청산에 헤어진 용맹한 장사와 충성된 병사의 백골은 모두 도장 속 젊은 부녀의 꿈속 사람들이겠소그려.”

(영창) “응, 그렇지만은 동양 행복의 기초는 이곳 승첩(勝捷)에 완전히 굳고 저렇게 철도를 부설하며 시가를 개척하여 점점 번화지(繁華地)가 되어가니 이는 우리 황색인종도 차차 진흥(振興)되는 조짐이지요.”

이렇게 수작하며 가을빛을 따라 늦은 경을 사랑하며 천천히 행보하여 언덕도 넘고 다리도 건너며 단풍 가지를 꺾어 모자에 꽂기도 하고, 잔잔한 청계수(淸溪水)를 움켜 손도 씻더니 어언간(於焉間)에 저문 해는 서산을 넘고 저녁 연기는 먼 수풀에 엷혔는지라,

(영창) “해가 저물었으니 고만 정거장 근처로 돌아갑시다. 오늘 밤은 이곳에서 자고 내일 일찍이 떠나가며 또 구경하지.”

(정임) “내일은 어디 어디 구경할까요? 요양 백담과 화표주(華表柱)<sup>2)</sup>는 어디쯤 있으며, 여기서 심양 봉천부는 몇 리나 남았소? 아마 봉황성은 가깝지? 그러나 계문 연수가 구경할 만하다는데 그 구경도 할 겸 이 길에 북경까지 갈까?”

하며, 막 돌아서서 정거장을 향하고 오는

데, 한 편 산모퉁이에서 난데없는 청인(淸人) 한 떼가 흑 말도 타고, 흑 노새도 타고 우달려들며 두말없이 영창이를 잔뜩 결박하여 나무 수풀에 체쳐 매어놓고 일변 수대(手袋)<sup>3)</sup>도 빼앗고, 시계도 떼고, 안경도 벗겨 모두 주섬주섬하여 가지고, 정임이를 번쩍 들어 말께 치켜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충충 동여매더니 채찍을 쳐서 급히 몰아가는지라.

정임이는 여러 번 놀라본 터에 또 꿈결같이 이 변을 당하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간이 콩알만해지며 자기 잡혀가는 것은 고사하고 그 남편이 어찌 된지 몰라 눈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아득하여 그 마음을 지향할 수 없으나 그 형세가 불가항적(不可抗的)<sup>4)</sup>이라 속절없이 잡혀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없이 가다가 한 곳에 다다라 궁궐같이 큰 집 속으로 들어가더니, 정임이를 대청에 올려 앉히고, 그 여러 놈이 좌우로 늘어서서 똥 본 오리<sup>5)</sup>처럼 무엇이라고 지껄이매,

그 상좌(上座)에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준수한 청인이 흰 수염을 쓰다듬고 앉아서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하여 빙글빙글 웃으며 정임이를 향하고 무슨 말을 묻는 것 같으나, 정임이는 말도 알아듣지 못할 뿐더러, 그때는 놀란 마음 무서운 생각 다 없어지고 단지 악만 바짝 나는 판이라,

(정임) “나 도무지 개 같은 오랑캐 소리 몰라.”

하고 쇠 꿇는 소리를 지르니, 그 청인의 옆에 앉았던 한 노인이 반가운 안색으로,

(노인) “여보, 그대가 조선사람이오그려. 조선말 소리를 들으니 반갑기는 하구먼……. 응……. 집이 어디인데 어찌 되어 저 지경을 당하였단 말이오?”

10) 아들은 효도하고 싶으나 아버지 계시질 않네.

1) 러일전쟁.

2) 망주석(望柱石)

3) 손에 들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

4) 어찌할 수 없음.

5) 게걸이 든 것처럼 먹음

하는 말이 조선말을 듣고 대단히 반갑게 여기는 모양이니, 정임이도 역시 위험한 경우를 당한 중에 본국 사람을 만나니 마음에 적이 위로되어,

(정임) “집은 서울인데 만주로 구경 왔다가 불의에 이 변을 만났습니다.”

하고 대답하며 그 노인을 자세히 보니, 의복은 청인의 복색을 입었으되 그 얼굴이든지 목소리가 일호도 틀리지 않고 흡사한 자기 시아버지 김승지 같으나, 김승지는 태평양으로 떠나갔는지 인도양으로 떠나갔는지 모르는 터에 이곳에 있을 리는 만무한데, 암만 다시 보아도 정녕한 김승지요, 어려서 볼 때와 조금 다른 것은 살짝<sup>1)</sup>이 허영게 세었을 뿐이라.

심히 의아한 중에 약은 생각이 나서, 내가 저 노인의 거동을 좀 보고 만일 우리 시아버지는 아닐지라도 보기에 그 노인이 아마 주인과 정다운 듯하니 이 곤란한 중에 언턱거리<sup>2)</sup>나 좀 하여 보리라 하고 혼잣말로,

(정임) “아이그, 세상에 같은 얼굴도 있지! 그 노인이 영락없이 우리 시아버님 같애.”

하며 별안간 좌좌 우니, 그 노인이 정임이 우는 것을 한참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하다가,

(노인) “여보, 그게 웬 말이오? 내가 누구와 같은 말이오? 그대는 누구의 따님이 되며, 그대의 시아버님은 누구신지요?”

(정임) “나는 이시종 ○○의 딸이오. 우리 시아버님은 김승지 ○○신데, 시아버님께서 십여 년 전에 초산 군수로 참혹히 돌아가신 후에 다시 뵈지 못하더니, 지금 노인의 용모를 뵈오니 이렇게 죽을 경우를 당한 중에도 감창(感愴)한 생각이 나서 그리합니다.”

그 노인이 그 말 듣더니 깜짝 놀라며,

(노인) “응, 그리야. 그러면 네가 정임이지?”

하고 묻는데 정임이가 그 말 들으니 죽은 줄 알던 시아버지를 의외에 찾았는지라. 반가운 마음에 정신이 번쩍 나서,

(정임) “이게 웬일이오니까! 신명이 도와 아버님을 뜻밖에 만나 뵈오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하고 일어나 절하며 생각하니, 그제야 정작 설움이 나서 느껴가며 우는데 김승지는 눈물을 흘리며,

(김승지) “네가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네가 이곳을 오다니? 그러나 영창이 소식을 너는 알겠구나. 대관절 영창이가 초산 봉변할 때에 죽지나 아니하였더냐?”

(정임) “장황한 말씀은 미처 할 수 없삽고 영창이도 이 길에 같이 오다가 이 변을 당하여 그곳에 결박하여 놓는 것을 보고 잡혀 왔는데, 그간 어찌 되었는지 궁금하기 이를 길 없습니다.”

김승지가 그 말 듣더니 별떡 일어나서 안을 향하고,

(김) “마누라, 마누라! 정임이가 왔소그려. 영창이도 같이 오다가 중로(中路)에서 봉변을 했다는걸.”

하는 말에 김승지 부인이 신을 거꾸로 끌고 허둥지둥 나오며

(부인) “그게 웬 말이오? 그게 웬 말이오, 정임이가 오다니! 영창이는 어떻게 되었어?”

하고 달려들어 정임이 손목을 잡고 뼈가 녹는 듯이 울며 목멘 소리가 잘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로,

(부인) “너는 어찌 된 일로 이곳에 왔으며, 영창이는 어디쯤서 옥을 본단 말이냐?”

하고 느끼며 묻는 모양은 누가 보든지 눈물 아니 날 사람 없겠더라.

그 상좌에 앉았던 청인은 정임이 화용월태

1) 관자놀이와 귀 사이에 난 머리털.

2) 남에게 무턱대고 억지로 떼를 쓸 만한 근거나 핑계.

(花容月態)<sup>1)</sup>를 보고 기쁜 마음을 이기지 못하는 모양이더니, 김승지 내외가 서로 붙들고 울때 그 거동이 보기에 이상하고 궁금하던지 김승지를 청하여 무슨 말을 묻는데, 김승지는 그 말대답은 아니하고 정임이를 불러 하는 말이,

(김) “저 주공(主公)<sup>2)</sup>에게 인사하여라. 내가 저 주공의 구원으로 살아나서 저간에 은혜를 많이 받은 터이다.”

하며 인사를 시키는지라, 정임이는 일어나서 머리를 굽혀 인사하고, 김승지는 그제야 말대답을 하더니 그 대답이 그치매 청인은 무릎을 치며 정임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데 그 통변(通辯)<sup>3)</sup>은 김승지가 한다.

(청인) “당신이 저 김공의 며느님이 되신다지요? 나는 왕자인(王自仁)이라 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시아버님과과는 형제같이 지내는 터이오. 그러나 아마 대단히 놀랐지요? 아무 염려 말고 부디 안심하시오. 잠시 놀란 것이야 어떠하리까? 오래 그리던 부모를 만나 뵈니 좀 다행한 일이 되었소.”

(정임) “각하께서 돌아가실 부모를 구호(救護)하시와 것처럼 친절히 지내신다 하오니 각하의 은혜는 실로 백골난망이오며 이 사람은 부모를 오래 그럴 뿐 아니라 부모가 각하의 덕택으로 생존해 계신 줄은 모르고 망극한 마음을 죽어 잊지 못하겠삽더니, 오늘 의외에 만나뵈오매 이제는 아무 한이 없사오니 어찌 잠깐 놀란 것을 교계(較計)<sup>4)</sup>하오리까?”

정임이는 그 왕씨를 대하여 백배사례하는 데, 왕씨는 일변 정임이 잡아오던 도당(徒黨)을 불러 그때 정형(情形)<sup>5)</sup>을 자세히 조사하

1) 꽃다운 얼굴과 고운 자태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르는 말.  
2) ‘주인(主人)’을 높여 이르는 말.  
3) 통역.  
4) 서로 견주어 살펴봄.

더니 곧 영창이를 급히 데려오라 하는지라.

그때 정임이 마음에는, ‘우리 내외가 두수<sup>6)</sup> 없이 죽음 판에 천우신조(天佑神助)하여 부모를 만나고 화색(禍色)<sup>7)</sup>을 모면하니 이같이 신기할 데는 없으나 영창이는 그간 오죽 애를 쓰리!’

하는 생각이 나서, ‘잠시라도 마음 놓게 하리라.’ 하고 명함 한 장을 내어 김승지를 주며, (정) “아버님, 영창이를 데리러 여러 사람이 몰려가면 필경 또 놀랄 듯하오니, 이 명함을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김승지가 그 말 들으매 그럴듯하여 왕씨와 의논하고 곧 그 명함을 주어 보내고, 정임이는 자기 내외의 소경사(所經事)<sup>8)</sup>를 대강 이야기하니, 김승지 내외는 눈물 씻기를 마지아니하고, 왕씨도 역시 무한히 칭탄(稱歎)<sup>9)</sup>하더라.

영창이는 삼시간에 혹화(酷禍)<sup>10)</sup>를 당하여 정임이를 잃고 나무에 동여맨 채로 꼼짝 못하고 앉았으며 이 산에서는 여우도 짓고, 저 산에서는 올빼미도 울며 번쩍번쩍하는 인광(燐光)<sup>11)</sup>은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서, 남한산성 줄불<sup>12)</sup> 놓듯 발뿌리로 식식 지나가니, 평소 같으면 무서운 생각도 있으려마는 그것저것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단지 바작바작 타는 속이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게 그 밤을 지내더니,

5) 사물의 정세와 형편.  
6) 달리 주선하거나 변통할 여지.  
7) 재앙이 벌어지는 징조.  
8) 대강 겪어온 일.  
9) 칭찬하고 감탄함.  
10) 혹심한 재화(災禍).  
11) 빛의 자극을 받아 빛을 내던 물질이 그 자극이 멎은 뒤에도 계속 내는 빛.  
12) 화약·염초·참숯 가루 등을 섞어 종이에 싸서 줄에다 죽 달아 놓은 불놀이 제구.

하룻밤이 삼추(三秋)같이 지나가고 동방에 새벽빛이 나며 먼 수풀에 새소리가 지껄이는데, 언덕 밑으로 어떤 청인 농부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웅얼웅얼 탄식하며 동여맨 것을 끌러주고 가는지라, 그 농부를 향하여 무수히 사례하고 다시 앉아 생각하니, 정임이는 결코 육보고 살지 아니할 터이요, 두말없이 죽은 사람이라.

그 연유를 관원에게 호소(呼訴)하자 하니, 그 호소가 대단히 뭉은 호소가 될 터이요, 그 대로 돌아가자 하니 정임이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의리가 아닐 뿐 아니요, 설령 혼자 돌아간다 한들 정임이 부모 볼 낫도 없고 장래 신세도 다시 희망할 바가 없는지라 혼잣말로,

“허……. 저간에 우리 두 사람이 그러한 천신만고를 지내고 간신히 다시 만난 것이 모두 허사가 되었구나!”

하고 목을 매어 죽으려고 양복 질빵<sup>1)</sup>을 끌러 막 나뭇가지 가에 치켜 거는 판에 별안간 어떤 청인 십여 명이 어젯밤 모양으로 또 달려들어 죽 둘러서는지라. 속마음으로,

‘저놈들이 또 왔구나. 오냐, 암만 또 와도 이제는 기탄(忌憚)<sup>2)</sup>없다. 어젯밤에 재물 빼앗기고 계집까지 잃었으니, 지금에는 죽이기 밖에 더하겠느냐. 이왕 죽을 사람이 죽인대도 두려울 것은 없다마는 너의 손에 우리 내외가 죽는 것이 지극히 통한다.’

하고 생각할 즈음에, 그중 한 사람이 고두<sup>3)</sup>(叩頭) 경례하고 명함 한 장을 내어주며 금안준마(金鞍駿馬)<sup>4)</sup>를 앞에 세우고 말에 오르기를 재촉하는데, 그 명함은 정임이 명함이오. 명함 뒤에 연필로 두어 자 기록한 말은,

“천만의외(千萬意外)에 부모가 이곳에 계시

1) 짐을 걸어서 매는 데 쓰는 줄.  
2) 어렵게 여기어 꺼림.  
3)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나타냄.  
4) 금 안장을 씌운 썩 잘 달리는 말.

니 기쁜 마음은 꿈인지 생시인지 깨닫지 못하겠사오며, 나도 역시 무사하오니 아무 염려 말고 급히 오시오.”

하였는지라. 그 명함을 받아보매 반가운 마음에 기가 막혀서,

“응……. 부모가 계시?”

하는 소리가 하는 줄 모르게 절로 나가나 마음을 진정하여 그 사리(事理)를 다시 생각하니 한편으로 의심이 나서,

‘그러할 이치가 만무한 일인데 이게 웬 말이고? 만일 이 말이 사실 같으면 희한한 별 일이다.’

하고 이리저리 연구하여 보니 다른 염려는 별로 없고, 그 글씨가 정임이 필적이라. 반가운 마음이 다시 나서 곧 그 말 타고 귀에 바람이 나도록 달려가더라.

김승지 내외와 정임이는 영창이를 데리러 보내고 오기를 고대하더니 문밖에서 말굽소리가 나고 영창이가 지도자를 따라 들어오는지라, 김승지 내외는 정신없이 내려가서 영창이 목을 안고 얼굴을 한데 대며,

“네가 영창이로구나!”

하고 대성통곡하는데, 영창이는 명함을 보고 오면서도 반신반의하다가 참부모가 그곳에 있는지라, 평생에 철천지원(徹天之冤)<sup>5)</sup>이 되던 부모를 만나니 비감한 마음이 자연 나서 역시 부모를 붙들고 우니, 정임이도 따라 울어 울음 한판이 또 벌어졌더라.

이때 주인 왕씨는 즉시 크게 연회를 배설(排設)하고 김승지의 가족 일동을 위로하는데, 왕씨가 영창이 손을 잡고 술을 들어 김승지에게 권하며,

(왕) “김공은 이러한 아들과 저러한 며느리를 두었으니 장래에 무궁한 청복(淸福)<sup>6)</sup>을

5) 하늘에 사무치는 크나큰 원한.  
6) 좋은 복.

받으시겠소.”

하는지라, 김승지는 그 말 교대(交代)에 대답하는 말이,

(김) “여년(餘年)<sup>1)</sup>이 몇 해 아니 남은 터에 복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마는, 내가 주공의 덕택으로 살아나서 천행으로 저것들을 다시 보니 그것이 신기한 일이지요.

그러나 주공께 잠깐 여쭙 말씀은 내가 주공을 모시고 있는 지 십 년에 이 은혜는 태산이 오히려 가벼우니 능히 갚을 길이 없사오며, 그간 깊이 든 정분은 차마 주공을 이별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로 죽은 줄 알았던 저것들을 만나니 다시 헤어질 마음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늙어 죽을 날을 알지 못하는 터이오니 이번에 저것들과 한가지 돌아가서 몇 날이 되든지 부자가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백골을 고국 청산에 묻히고자 하오니, 존의<sup>2)</sup>(尊意)에 어떠하시오니까?”

하며 눈물을 흘리며 왕씨가 그 말 듣고 한참 침울하더니,

(왕) “사정이 그러하시겠소.”

하고 곧 행장을 차려 김승지와 그 가족을 전송하는데 친히 십리 장정(長程)에 나와 김승지 손을 잡고,

(왕) “김공은 다행히 자제를 만나서 오래간만에 고국을 돌아가시니 실로 감축할 일이올시다마는, 나는 십 년 친구를 일조(一朝)에 이별하니 이같이 감창한 일은 다시 없소그려.”

하며 수대를 열고 금화 일만 원을 내어 주며,

(왕) “이것이 비록 약소하나 내가 정의를 표하고자 하여 드리는 것이올시다. ‘행자는 필유신’이라니 가지고 가다가 노자(路資)나 하시오.”

1) 죽을 때까지의 나머지 세월.  
2) 상대방의 의견을 높여 이르는 말.

(김) “공은 정의로 주신다니 나도 정의로 받아 가지고 가서 노래(老來)<sup>3)</sup>에 쇠한 몸을 잘 자양<sup>4)</sup>(滋養)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두 늙은 터에 한 번 이별하면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 수 없으니 그것이 지극히 비창한 일이올시다그려.”

하며, 서로 붙들고 울어 차마 놓지 못하다가 김승지 가족 일동은 모두 왕씨를 향하여 백배사례하고 떠나니, 왕씨는 섭섭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며 보호자를 보내 정거장까지 호송하더라.

영창이 내외는 천만의외에 그 부모를 찾을 때 구경도 더할 생각 없고, 여행도 다시 할 필요가 없어, 즉시 부모 모시고 만주 남행차 타고 서울로 돌아오며, 차속에서 영창이는 영창이 소경력을 이야기하고, 정임이는 정임이지내던 일을 자세히 말하니, 김승지는 자기 역사를 이야기한다.

(김) “내가 초산서 그 봉변을 당하고, 뒤주 속에 들어앉았으니 늙은이들이 그 지경을 당하여 무슨 정신이 있겠느냐? 그놈들이 떠메고 나가는지, 강물로 떠나가는지, 누가 건져가는지 도무지 몰랐더니, 아마 그 뒤주가 강물로 떠내려가는데, 그때 마침 산마적(山馬賊)<sup>5)</sup>이 물 건너와서 노략질해 가지고 가다가 그 뒤주를 만나매 그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든지 모두 재물로 보이는 터이라 뒤주 속에 무슨 큰 재물이 있는 줄 알았던지 죽을 힘을 써서 건져 메고 갔나 보더라.

어느 때나 되었던지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평생에 보지 못하던 큰 집 대청에 우리 내외가 같이 누웠고, 낮 모르는 청인들이 좌 둘러섰는데 어리어리하는 생각에 ‘우리가 죽

3) 늙음.  
4) 몸의 영양이 됨.  
5) 말을 타고 떼를 지어 다니는 도둑.

어서 벌써 염라부(閻羅府)<sup>1)</sup>에 들어왔나 보다.’ 하였더니, 그중 어떤 사람이 지필(紙筆)을 가지고 와서 필담(筆談)을 하자고 하니, 눈은 침침하여 잘 보이지는 아니하고 손은 떨려 글씨도 쓸 수 없으나 간신히 정신을 수습하여 통정(通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곧 주인 왕씨더라.

그 왕씨는 산마적 괴수인데 비록 도적질은 하나 사람인즉 글이 문장이요, 뜻이 호화하여 훌륭한 풍류남자요, 또 천성이 지극히 인자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았던지 그때로부터 극진히 보호하여 의복 음식과 거처, 범백(凡百)<sup>2)</sup>을 모두 자기와 호리(毫椒)<sup>3)</sup>가 틀리지 아니하게 대접하며, 글도 같이 짓고, 술도 같이 먹고, 바둑도 같이 두고, 어디를 가도 같이 가니, 자연 지기가 상합하여 하루 이틀 지내는데,

너희들이 어찌 된지 몰라 애가 타서 한시를 견딜 수 없으나 통신은 자유로 못하게 하는 고로 이시종에게 편지도 한번 못하고 있다가 어느 때인지 기회를 얻어 우체로 편지를 한 번 부쳤더니, 다시는 소식이 없기에 너희들이 모두 죽은 줄 알고 그 후로는 주인도 놓지 않지마는, 나도 돌아갈 생각이 적어 그럭저럭 지내니 그 상하는 마음이야 어떠하겠느냐! 그러나 모진 목숨이 역지로 죽지 못하고 두 늙은이가 항상 울고 오늘날까지 부지하더니, 천만 몽상(夢想)<sup>4)</sup> 밖에 정임이가 그곳을 왔더구나. 정임이 그곳에 온 것이 실로 다행하게 된 일이나, 정임이가 그곳에 잡혀 오다니 말이 되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이에 탄환같이 빠른 차가 어느 겨울에 벌써 압록강을 건너니 총울(蔥鬱)<sup>5)</sup>한 강산이 모두 보이는 대로 새롭더라.

1)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저승.  
2) 여러 가지 사물  
3) 자나 저울 눈의 호(毫)와 이(釐).  
4) 꿈속의 생각.

이시종 내외는 정임이 부부 신혼여행을 보내매 그 길이 아무 염려는 없는 길이지마는 두 사람은 천연적 풍파를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라. 하도 여러 번 위험한 경우를 지내본 터인 고로 어린아해 물가에 보낸 것같이 근심하다가 회정(回程)<sup>6)</sup>해 온다는 날이 되어 잠시가 궁금하여 평양까지 내려가서 기다리더니, 그때 정임이 내외가 화기가 만면하여 오다가 이시종 내외를 보고 차에 내려 인사하는지라. 이시종은 그 두 사람이 잘 다녀오는 것을 대단히 기뻐할 때에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별안간 손목을 잡으며,

“허……. 자네 오래간만에 만나겠네그려.”

하는데 돌아다보니 생각도 아니하였던 김승지가 왔는지라. 마음에 깜짝 놀라서,

(이) “아! 자네, 이게 웬일인가……. 응……. 대관절 어찌 된 일인가!”

(김) “우리가 다시 못 만날 줄 알았더니 서로 죽지 않고 오늘 만난 것이 다행한 일ियो. 이 못생긴 목숨이 살아 돌아오는 것은 이게 내 복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덕일세.”

하며 반가운 이야기를 하고, 한편에는 이시종 부인과 김승지 부인이 서로 붙들고 울더니, 이시종과 김승지는 가족들 데리고 그 길로 곧 부벽루에 올라가서 그사이 지내던 역사와 서로 생각하던 정회를 말하며 술잔을 들고 토진간담(吐盡肝膽)<sup>7)</sup>하는데, 이때에 아아(嗚嗚)<sup>8)</sup>한 청산과 양양(洋洋)<sup>9)</sup>한 유수가 모두 그 술잔 가운데 비쳤다.

『추월색(秋月色)』 회동서관 (1912)

5) 우거짐.  
6) 돌아오는 길에 오름.  
7) 간과 쓸개를 다 토하듯이 실정(實情)을 숨김없이 털어 놓고 말함.  
8) 산이나 큰 바위 등이 험하게 우뚝 솟아 있음.  
9) 한없이 넓다.

추월색 원문

시름업시 오던 가을비가 굿치고 슬슬부는 셔풍이  
썩인 구름을 쓰러보너더니 오리알 빗 갖튼 하늘에  
띄슬 혼점 업셔지고 교교흔 추월식이 천디에  
가득하니 이썩는 슝스룽마다 공기 신선흔  
곳에 혼번 산보홀 싱각이 도져히 느깃더라

붉고 붉은 그 달빛헤 동경 상야공원이 일폭 월  
세계(月世界)를 이루엇스니 룽고 느진 루디는 금  
벽이 찬란하며 쏏그림자 더 그들은 셔로 열켜 바  
다 갓고 풀 쏏헤 찬 이슬은 낫낫치 반작거려 아  
름다운 야경이 그림갓치 영농흔디 쾌락하게 노리  
부르고 오락가락하는 슝스룽들은 모다 달구경 하는  
스룽이더니 밤은 어느썩는 되얏는지 그 만튼 슝  
스룽들이 하는식 들식 다 헤져가고 적적흔 공원에  
월식만 교결흔디 그 월식 안고 불인지 관월교 석  
난간에 의지해야 옷독섯는 슝스룽은 일기 청년 녀  
학싱이더라 그 녀학싱은 나히 열팔구세짐 된 듯  
하며 신선흔 조화로 머리를 장식하고 자지빳 하  
가마를 단정하게 입엇는디 그 온아흔 티도가 어  
느 모로 쏏어 보던지 천싱 귀인의 집 규중에서  
고이거른 자근아씨더라

그 녀학싱 의심중에는 무슨 싱각이 그리 첩첩  
흔지 힘업시 셔셔 달빛만 바라보는디 그달 정신  
을 쏏아다가 그 녀학싱의 자식을 자랑시기라고  
흔듯시 회고 흰 얼굴에 붉고 붉은 광선이 빳춰여  
그 어엽썩 용모를 이로 형용히 말하기 어려우니  
누구던지 혼번 보고 쏏 혼번 다시보지 아니치 못  
하깃더라

그 공원 속에 남아 잇는 사룽은 이 녀학싱 혼  
스룽썩인듯 하더니 엇던 하이칼나 적소년이 술이  
반짐 취해야 노리를 부르고 불인지 업흐로 너려  
오는디 파나마모자를 푹 숙여쓰고 금테안경은 코  
허리에 걸고 양복압썩 썩 갈라붓친 속으로 축 느  
러진 시계줄은 월광에 띄여 반작반작하며 바른손  
에는 반짐 탄 여송연을 손가락에 가마쥐고 왼손  
으로 단장을 드러 향하는 길를 지점하고 회동 너  
려오는 모양이 익모흔 부형의 직산도 썩 업식보  
고 남의집 시약시도 무던히 버려썩엇깃더라

그 소연이 이 모양으로 너려오다가 관월교가에  
홀로섯는 녀학싱을 보더니 모자를 버셔들고 반갑

게 인사한다

(소년) 아 오릭간만에 뵙습니다 그스이 귀체건  
강하시오닛가

(녀학싱) 네 귀운 엇답시오

(소년) 요스이는 엇직그리 혼번도 맛느뵈 수  
업슴닛가

(녀학싱) 건일에 몸이 좀 불평히셔 아모데도  
못갓습니다

(소연~) .....아 엇전지 일뇨강습회에도 혼번  
아니오시기에 무슨 사고가 계신가하고 밋우 공금  
이 녀이던 차이올시다 그릭 지금은 쾌츠하시오닛  
가

(녀학싱) 조금 낫습니다

(소년) 나도 건일에 몸이 더단히 곤해야 오늘  
도 종일 누엇다가 하도 울적하기에 신선흔 공기  
느 좀 쏏야 불가하고 나왔더니 비쏏헤 달빛이야  
참 쏏습니다 그러는 추월식은 녀인초창이라더니  
그야말로 슝스룽의 마음을 정히 상힙니다그려.....  
허.....허.....허

(녀학싱) .....

(소년) 그러는 산본노파 언제 맛느보섯슴닛가

(녀학싱) 산본노파가 누구오닛가

(소년) 앗다 우리 주인 노파 말씀이오

(녀학싱) 글세요 언제 맛느 보앗던지요

녀학싱의 디답이 굿치자 소년이 무슨 말을 흘  
쏏쏏쏏하다가 아니하고 쏏 무슨 말을 하라고 입  
을 병긱병긱하다가 못하더니 녀학싱의 얼굴을 다  
시 혼번 건네다 보면서

(소년) 그 노파의게 무슨 말씀 드러계시지요

녀학싱은 그말을 드렸는지 못드렸는지 아모 말  
업시 빳썩 도라셔며 이슬에 져진 국화 가지를 잡  
고 붉은 향기를 두어 번 맛홀 썩인디 구름 갓흔  
살짜과 옥 갓흔 반썩이 모다 소년의 눈동자 속으  
로 드러간다 그 소년은 그렛케 하기 어려운 말을  
혼마디 간신히 하얏것만은 녀학싱의 디답은 업스  
디 물스름이 혼참 보다가 말 혼마디를 쏏 썩너  
라

(소년) 그 노파의게도 응당 자셔히 드러계시깃  
지만은 혼번 종용히 맛느면 홀 말씀이 무한히 만  
튼 츄 올시다

그 소년은 녀학싱을 맛느 인스하고 수작붓치는

모양이 밍우 숙친도 흐듯시 무슨긴절흔의논도 있  
는 듯시 노파를 언저 가며 말흐는디 그 말 속에  
무슨 은근흔 말이 쏘 드렸는지 녀학싱은 그 말디  
답 쏘 아니흐고 면산을 한번 바라보더니

「아마 야심흔 듯흐니 집으로 도라가깃습니다  
용서흐십시오」

흐고 천천히 거러 너려간다

그 소년의 마음에는 엇더흔 욕망이 있는지 녀  
학싱의 디답흐는 양을 드러보랴고 그 말쑷을 써  
닌 듯흐디 녀학싱은 닝연히 사절흐는 모양이니  
소년도 그 눈치를 아라쑷 뜻흐것만은 무슨 싱각  
으로 너려가는 녀학싱을 곳이 싸라가며 이말저말  
쏘다시 흐다

(소년) 괴로운 비가 기이더니 달빛이야 참쑷습  
니다 공원이란 곳은 원리 풍경이 조흔 곳이지만  
은 쳐 달빛이 몇빅이느 공원의 싱식을 더 님니다  
그려

인간의 이별흐고 만나는 인연은 실로 부평 갖  
흔 일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럿케 조흔 썩와 이  
럿케 조흔 곳에서 괴약업시 맛느기는 참 쑷박게  
괴회요구려.....

여보시오 조금도 부스려오실 것 업소 서양 스  
름들은 신랑신부가 즉점으로 결혼흐답디다 우리  
도 소기니 중미니 흘 것업시 즉점으로 의논흐미  
조치 안깃습니가

(녀학싱) 닷다가 그제 무슨 말습시오

(소년) 이럿케 싱 시침이 썰 것 잇소 악가도  
말습흐엇거니와 왜 노파를 소기흐야 의논흐던 터  
가 아니오닛가

(녀학싱) 기뻛케 말습흐실 것 업습니다 노파던  
지 누구던지 나는 이왕 결심흔 바이 잇다고 말흐  
이상에 당신은 번거히 다시 말습흐실 필요가 업  
습니다 다른 일로느 교체흐실 것이오 그 말습은  
영구히 단련흐시오

그 녀학싱과 소년의 수작이 이왕도 만히 언론  
되던 일인 듯흐디 녀학싱은 이쳐림 거절흐니 소  
년이 슝스러운 터 갖트면 이럿케 거절당홀 듯  
흔 말을 당초에 너지 아니흐얏슬 터이오 쏘 거절  
을 당흐얏스면 무안흐어도 저는 저터로 가서 달  
니느 운동흐야 볼 것이언만은 쏘 무슨 싱각이 그  
럿케 민첩흐게 식로 싱것던지 가장 정다운 체흐

고 녀학싱의 업흐로 밋삭 다거셔더니

(소년) 당신의 결심흐바는 너가알랴고 흘 것업  
거니와 저기저것쑷보시오 어제갓치 작작하던 도  
화가 어느 겨를에 다 나르가고 밋셔 가을 바람에  
단풍이 드럿소구려 여보 우리 인싱도 쳐와 갓치  
오늘 청춘이 너일 빅발은 정흐 일이 아니오 이쳐  
림 무정흐 세월이 살갓치 빠른 가운데 손갓치 잠  
낀 단녀가는 우리는 이 흐 세상을 이러케도 지너  
고 저럿케도 지너뵈시다그려 허..... 허..... 허.....  
허.....

소년이 그러케 공경흐던 레모가 다 어터로 가  
고 말 곳치자 선우슴치며 녀학싱의 옥 갓흔 손목  
을 톱 잡으니 녀학싱은 기가 막혀서

(녀학싱) 이것이 무슨 무레흔 짓이오 점자는  
이가 남녀의 레우를 싱각지 아니흐고 이런 야만  
의 횡위를 누구의게 흐시오

흐고 손목을 쑷러치는데

(소연) 이럿케 큰 변될 것 무엇잇소 야만이 커  
진 문명국 사름은 악수레만 잘들 흐데..... 이럿케  
점문레도 잘들 흐고..... 하..... 하.....

흐면서 흐츱 더히셔 점문레을 흐랴고 달여드니  
녀학싱은 호젓흔 곳에서 불의의 변괴를 당흐미  
분흐 마음이 텅쑷흐는 소년의 픽헝이 이 지경에  
이르럿스니 아모리 싱각흐야도 방비홀 계획과 능  
련은 흐느토 업고 다만 준절흐 말로 달닌다

(녀학싱) 여보시오 희외에 유학도 흐고 신사상  
도 잇다는 이가 이런 금수의 횡실을 헝코자 흐면  
엇지흐자는 말습시오 당신은 썩부흔 학문과 우월  
흔 지화가 국가도 빗너고 천하도 경영흐실 터이  
어늘 지금 일기 너즈의게 악횡위를 더흐고자 흐  
심은 실로 비소망어평일이오구려 어셔 썰니 도라  
가 회기흐시고 다시 법률에 저촉치 안키를 부디  
주의흐시오」

(소년) 「법률이니 도덕이니 그쑷짓 말은 다히  
쓸 디 잇느 쑷 갓흔 남녀가 이런 조흔 곳에서 맛  
낫다가 엇지 무료로 그저 헤져 갈 수 잇느.....  
하..... 하..... 하..... 하.....」

소년은 삼천장 무명업화가 남아미리가주(딘보  
라소) 활화산 화렘 치밀듯 흐야 레절이니 렴치니  
다 불고흐고 음흉란 잡흔 말을 함부루 뒤던지며  
녀학싱의 가늘고 약흔 허리를 덤씩 안고 나무습

풀 깊고 깊은 곳 룩모정 속 어둡컴컴한 구석으로  
드러가니 이씩 형세가 슬기 병아리춘 모양이라  
녀학싱은 호소홀 곳도 업시 귀가 막히는 경우를  
맞느미 악이 뱃쪽느셔 모만스르고 젓먹든 힘을  
다써서 항거호노라니 두 몸이 혼데 뒤트러져서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몰리니며 죽을듯살듯 모르  
고 서로 상지한다

엇던 사름이던지 제 욕망을 취우지 못하면 화  
증이 느는 법이라 소년은 불갓흔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중 녀학싱이 죽기를 호호고 방식하는 양  
에 화증이 왓각느며 화증 쫓헤 악심이 싱겨서 왼  
손으로는 녀학싱의 젓가심을 잔쪽 움켜잡고 오른  
손으로는 양복허리에서 단도를 썬여들더니

(소년) 요년아 너 요러케 악지 부리는 리유가  
무엇이나 소위 너의 결심호얏다는 것이 무슨그리  
장흔 결심이나 너 이년 너의 쫓다운 혼이 당장  
이 칼 쫓에 놀나갈지라도 너는 네 고집되로 부리  
고 장부의 가심에 무한흔 한을 띠질 터이나」

(녀학싱) 「오냐 죽고 죽고 쏘 죽고 만 번 죽  
을지라도 너갓치 기 갓흔 놈에게 실절은 아니호  
깃다 그 말에 소년의 악심이 더욱 심호야 말이  
막 곳치자 번쩍 드렸던 칼을 그되로 푹 지르는데  
별안간 혼 모퉁이에서 엇던 사름이 이놈아 이놈  
아」

소리를 지르며 급히 쫓차오는 바람에 소년은  
깜짝 놀느 녀학싱 지르던 칼도 미쳐 썬을 식업시  
삼십육계의 줄형낭을 호고 녀학싱은 「이고머  
니」 호마디 소리에 괴절호고 쌍에 너머지니 소실  
흔 한풍은 나무 사이에 움작이고 참담흔 월식은  
서천에 기우러졌더라

소리 지르고 오는 사름은 중산모자 쓰고 후록  
고투 입은 청년 신사인디 맞침 예비히 두엇던것  
갓치 달녀들며 녀학싱의 몸에 푹인 칼을 썬여 들  
더니 가만히 무슨 심각을 호참 호는 판에 흥순호  
던 순사가 두어 마디 이상흔 소리를 듯고 차점  
오다가 이곳에 다다르미 쫓봉우리갓튼 녀학싱은  
몸에 피를 흘니고 쌍에 누엇고 그 옆헤는 엇던  
청년이 손에 단도를 들고 섰스니 그 청년은 갈  
되 업는 살인범이라 순사가 그 청년을 잡고 박승  
을 썬던터니 닷자곳자로 청년의 손목을 쳐 열거  
놋코 호각을 「호루룩」 부니 군도 소리가 여기

서도 제격제격호고 저기셔도 제격제격호며 경관  
이 네다섯 모아 드러 녀학싱은 급히 병원으로 호  
송호고 그 청년은 즉시 경찰셔로 압거호니 잇적  
적노흔 빈 공원에 달 흔적만 남앗더라

그 녀학싱은 조선 스름이요 일홈은 리정임(李  
貞姪)인디 리시중 ○○의 딸이라 자식 사랑호는  
마음이야 누가 업스리오만은 리정임의 부모 리시  
중 녀외는 늦게 정임을 나호미 슬하 혈육이 다만  
일기 녀즈 썬인고로 그 익지중지홈이 남에서 특  
별히 귀호게 녀이는 터인디 그 리시중의 옆집에  
사는 김승지 ○○는 리시중의 죽마고우-르 썬아  
니라 서로 지기호는 친구인디 그김승지도 역시  
늙도록 아달이 업서 슬허호다가 정임이 낫튼 히  
에 관옥 갓흔 남즈를 나호니 우업시 깃버호야 일  
홈을 영창(永昌)이라 호고 더홀 것업시 귀호게  
기르는 터이라 리시중은 김승지를 맞느면 「자네  
는 저러흔 아들을 두엇스니 마음에 오작 죠켓느  
나는 일기 녀아느미 남달니 사랑호네」 호며 이악  
이호고 서로 친즈식갓치 귀호호니 그 두 집 가정  
에 서-르지라도 서로 사랑호기를 남의 즈손갓치  
역이지 아니호더라

그 두 아히가 두 살 되고 세 살 되야 거름도  
빅호고 말도 움기미 놀기도 홈피 놀고 작난도 서  
로호야 친형제도 갓치 정다우며 쌍둥이도 갓치  
자라는데 자라갈수록 더욱 심지가 상합호야 글도  
갓치 읽고 조흔 음식을 보아도 논아 먹으며 영청  
이가 아니 오면 정임이가 가고 정임이가 아니 가  
면 영청이가 와서 잠시도 서로 썬지 아니호야  
그 정분이 점점 깊히 가더라

그 두 아히가 나도 동갑이요 얼굴도 비슷호고  
정의도 한뜻 갓호는 다만 갓지 아니흔 것은 계집  
아히와 산아히인고로 정임의 부모는 영창이를 보  
면 디단히 부러호고 영창의 부모는 정임이를 보  
면 미우 탐을 너는 터인디 정임이 일곱 살 먹던  
히 정월 디보름날 저녁에 리시중이 술이 얼근이  
취호야 마누라를 부르고 조흔 낫호로 드러오는지  
라 부인은 마루로 마주나가며

(부인) 어디셔 저러케 약주가 취호섯소

(리시중) 오늘이 명일이 아니요 김승지호고 술  
을 잔쪽 먹엇소 노리에 정붓칠 것은 술밭게 업소  
구려..... 허..... 허.....

하면서 압셔거니 뒤셔거니 안방으로 드러오더니

(리) 마누라 오늘 정임이 혼스를 확정했소.....저의끼리 정답게 노는 영창이하고.....」

(부) 그썸지 바지 안에 뽕무든 것들을 정흔이다 무엇이오닛가 하.....하.....

(리) 누가 오늘 신방을 차려주느.....그리 두엇다가 아모써느 저의들 나 차거든 초례시가지..... 마누라는 일쌍 영창이 갖흔 아달하느 두엇스면 조킷다고 한탄하지 아니헛소 사위는 왜 아달만 못하가요..... 이이 정임아 오늘은 영창이가 엇지 아니왔느냐

하느 말쑤치 썸러지기 전에 영창이가 문을 열고 드러오며

(영창) 정임아 정임아 우리 아버지는 부름 만히 사오섯단다 부름 식먹으러 우리집으로 가자..... 어셔..... 어셔.....

(리) 허.....허.....허 우리 사위오시는 어셔드러오게 자네집만 부름 사왔단가 우리집에도 이럿케 만히 사왔단네

하고 벽장문을 열고 호도 잣을 너여 주며 귀흔 마음을 이기지 못하야 룡지거리를 붓치며 이런말 저런 말하다가 사랑으로 나가고 정임이와 영창이는 부름을 식먹으며 속달거리고 이약이하느디

(영창) 이이 정임아 나는 너한테로 장가가고 너는 나한테로 식집온다더라

(정임) 장가는 무엇하느 것이오 식집은 무엇하느 것이냐

(영) 장가는 너가 너하고 절하느 것이오 식집은 내가 우리집에 와서 사는 것이라더라

(정) 이이 누가 그리더냐

(영)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너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그럿케 이약이하섯다더라

(정) 이이 나는 너의 집에 가서 살기 싣타 네가 우리집으로 식집오너라

두 아히는 밤이 깊도록 이러케 놀다가 헤져 갖는디 그 후부터는 정임의 집에서 영창이를 자기 사위로 알고 영창의 집에서 정임이를 자기 며느리로 인정하야 두 집 관계가 더욱 친밀히지고 그 두 아히들도 혼인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의미는 아지 못하느 영창은 정임의게로 장

가갈 줄로 싱각하고 정임은 영창의게로 식집갈 줄 알더라

정임과 영창이가 이처럼 정답게 지너더니 영창이 열 살 되던히 습월에 김승지가 초산군수로 셔임되니 가족을 다리고 즉시 군아에 부임홀 터인디 정임과 영창이가 서로 썸느기를 익척히 녀이느고로 리 시중집에서는 가권을 술거하느 것이 불가하다고 권고하느 김승지는 가계가 원티 유족지 못흔 터이라 군슈의 박봉을 가지고 식비와 교제비를 제하면 본가에 보낼 것이 남지 아니헛스니 가족을 다리고 가는 것이 필요가 될 썸아니라 설령 가사는 리시중의게 전혀 부탁하야도 무방하깃지만은 김승지는 자기 아들 영창을 잠시라도 보지 못하면 인정을 이기지 못하야 침식이달지 아니흔 터인고로 부득이하야 부인과 영창을 다리고 초산으로 썸느가는데 가는 로정은 인천으로 가서 기선을 타고 수로로 갈 작정으로 상오구시 남디문 발 인천형 렬츠로 발정홀시 정임이는 남문덕에 나아가셔 방금 썸느는 영창의 손을 잡고 서로 친절히 전별하느다

(정) 「영창아 너하고 나하고 잠시를 썸느지 못하다가 네가 저럿케 멀니가면 나는놀기는누구하고 갖치 놀고 글은 누구하고 갖치 읽으며 너를 보고십흔 싱각을 엇더케 참는단 말이나」

(영) 「나도 너를 두고 멀니 가기는 디단히 썸섭하다마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십어하실 싱각을 하면 썸러져 잇슬 수 업고느 오나 잘잇거라 너 쉽사리 올라오마」

정임은 품에서 사진 홀 장을 썸너더니 그 뒤썸에 (경성 줌부 교동 三三九)라고 썸셔 영창이를 썸며

(정) 이것 보아라 이것은 너 사진이오 이 뒤썸에 쓴 것은 우리집 통호수다 만일 이 사진을 일튼지 통 호수를 이져바리거든 삼삼구만 싱각하여라」

영창이는 사진을 밧아 들고 그 말디답도 밧쳐 못히셔 기적소리가 「썸썸」 느며 츠가 썸나고자하니 정임은 급히 츠에 너려셔 스르를 나가는 유리창을 향하야 「부디..... 잘가거라」 하며 옷깃에 방울방울 썸러지는 눈물을 썸는디 기관츠연통에서 거문 연기가 물큰물큰 올라가며 츠는 살달 듯하

야 어느 겨울에 간 곳도 업고 다만 룡산 강 언덕  
우에 멀니 의의흔 버들빛만 머물렀더라

정임이는 영창이를 전송하고 초창흔 마음을 익  
이지 못하야 집신지올고 드러오니 리시종의 부인  
도 섭섭흔 마음을 이기지 못하던 츠에 자기 귀흔  
쫘이 올고드러 오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니다가  
쥬흔 말로 영창이는 속히 다녀온다고 그 쫘을 위  
로하고 달렸는디 정임이는 어린아히라 엇지 부  
쳐될 슝의 인정을 아라 그러하리오만은 갖치  
자라던 정리로 영창의 싱각을 헛시도 잊지 못하  
야 제눈에 조흔 것만 보면 영창이에게 보닛준다  
고 꼭꼭 쓰두었다가 인편잇슬 쩍마다 보닛기도  
하고 영창의 편지를 어제 보았셔도 오늘 쫘 오기  
를 기다리며 쫘 피고 식 올 썩와 달 밝고 눈 흰  
쩍마다 시름업시 셔천을 바라고 눈섭을 쩍기더라

정임이가 영창이 싱각하기를 이러듯 괴롭게 그  
히 일년을 십년갓치 다 지닝고 그 이듬히 봄이차  
차 되야오릭 영창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자  
연싱겨셔 「썩날 썩에 썩사리 온다더니 일년이  
지닝도록 엇지 아니 오노」 하고 문박게셔 자취  
소리만 나도 아마 영창이가 오노 보다 아참에 썩  
치만 지져도 아마 영창이가 오나 보다 하야 호로  
도 몇번식 문박을 니다 보더니 호로는 안마당에  
셔 바삭바삭흔 소리에 창문을 열고 보니 사름  
은 아모도 업고 회리 바람이 썩 돌다가 굿치닝디  
일기가 엇지 화창흔지 회고 흰 면회담에 아지랑  
이가 아물아물하며 멀니들니는 버들피리 소리가  
스름에 회포를 은근이 도드느니라 어린 마음에도  
별안간 울적흔 싱각이느셔 후정을 도라가 건일다  
가 보니 도화가 웃는 듯이 피엿거늘 가늘고 가는  
손으로 헛가지를 썩 썩거가지고 드러오며

(정) 「어마니 어마니 도화가 이럿케 피엿스니  
작년에 영창이 썩나던 썩가 밍셔되얏습니다그  
려」

(부인) 「참 세월이 썩기도 하다 어제 갓튼 일  
이 밍셔 돌시로구느」

(정) 「영창이는 올 썩가 되얏는디 왜 아니 올  
닛가 요스이는 편지도 보름이 지닝도록 아니오니  
원일인지 궁금흠니다」

(부인) 「아마 쉬올 썩가 되닛가 편지도 아니  
오나보다」

(정임) 아니 그러면 올는 올 썩에 입고 오게  
겍웃이느 보닛줍시다 아버지가 드러오시거든 소  
포 붓칠 돈을 달닛야지요」

하며 창문을 열고 식로지여 차곡차곡 너어 두  
엇던 면주겍바지 저고리와 분홍슴팔 두루막이를  
니여 빅지로 두어번 썩고 그 거죽에 유지로 썩  
흔 번 썩셔 노끈으로 열십썩 우물썩썩로 이리저  
리 열글지음에 리시종이 이마에 닉천썩를 썩고  
얼골에 외긍치 피여서 드러오더니

(리) 「원..... 이런 변괴가 잇는..... 응.....  
응.....」

(부) 「변괴가 무슨 변괴오닛가」

(리) 응응..... 응응.....

(부) 「각갓흔니 어셔 말슴 썩 하시오」

(리) 「초산셔 민요가 닉디야」

(부) 「민요가 닉스면 엇더케 되얏단 말슴이  
오」

(리) 「엇더케 되고 말고 기가막혀 말할 수 업  
셔 이 닉부에 온 보고 썩 보아」

하고 평북관찰스의 보고 벗긴 초를 니여 부인  
의 압호로 던지닝디 그집은 월닉 문한가인고로  
그 부인의 학문도 신문 헛 장은 무란히 보는 터  
이라 부인이 그 보고 초를 집어들고 보니

보고셔 「관하 초산군에서 거 이월이십팔일 하  
오 삼시경에 란민 천여명이 불의에 취집하야 관  
아에 썩화하고 작석을 란투하와 관사와 민가 수  
빅호가 연소하옴고 리민간사상 이십여인에 달하  
야 야료란폭흠으로 강계진위디에서 병졸일소디를  
급파하야 익일 상오 십시에 초히 진압되엿스온디  
히군수와 급기 가족은 형위불명하옴기 방금 조사  
중이오느 종닉 종적을 부지하깃소으며 민요 주창  
자는 엄밀히 수식흔 결과로 장두 오인을 포박하  
야 본부에 엄수하옴고 자에 보고흠

부인이 보고초를 보다가 썩썩 놀느며

(부인) 「이게 원일이오 세 식구가 다 죽엇느  
보구려」

하느 말에 정임이는 정신이 아득하야 얼골빛치  
하애지며 아모말 못하고 그 모친을 헛츰 보다가  
썩던 옷보를 슝를 닉터니 눈에서 구슬 갓튼 눈  
물이 썩썩 썩다지며 목을 닉코 우니 부인도 어린  
마음에 정임이 우는 것을 보고 썩라 우는디 리시

좋은 영창이 생각도 들씨가 되고 평상에 지긋하던 친구 김승지를 생각하고 비참한 마음을 억제치 못하여 정신업시 안졌다가 다시 마음을 정돈하고 우는 정임이를 위로한다

(리) 「엇지된 스기를 자셔히 아지도 못하고 울기는 왜들 울러 정임아 어서 굿쳐라 너일은 너가 초산을 내려가서 자셔히 아라보깃다 설마 죽기야 하였깃느냐 참 이상도하다 김승지는 민요 맞날 스름이 아닌디 그게 원일이란 말이나 그러는 인즈는 무적이란디 김승지갓치 어진 스름이 죽을 리는 업스리라..... 김승지가 마음은 군즈요 글은 문장이로되 일에 당하여서는 짝업시 흐리겠다.....」

이런 말로 정임의 우름을 말류하고 가방과 양탄자를 너여 너일 초산 씨늘 횡장을 차려놔코 세스름이 수식이 만면하야 묵묵히 안졌더니 하인이 저녁상을 디려다놔코 부인을 디하야 위로하는 말이 「놀는 온 말씀이야 엇지 다호오릿가만은 설마 엇더호오릿가 너무 걱정 마시고 진지 어서 잡수 십시오」 하고 나가난디 정임이는 밥 먹을 생각도 아니하고 치마끈만 비비 틀며 쪼고리고 안졌고 리시종과 부인은 상을 닦아 놔코 막 두어 술짐 쓰는 썩에 어디셔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며 안방 셔창에 연기 그림자가 몽굴몽굴 빗취고 마루 뒤문 박게는 화광이 출천하니 밥 먹던 리시종은 수저를 손에 든척로 급히 나가 보니 자기 집 굴뚝에서 불이 이러니셔 흥 쫓은 셔으로 도라 부엌 뒤까지 돌고 흥 쫓은 동으로 췌쳐 건는방 머리까지 나갔는디 술술 부는 셔복풍에 비비 틀너 도라가는 불길의 눈 짐작 할 식이에 원집안에 핑도니 리시종집 사람들은 발을 동동구르는 엇지할 수 업스며 여간 순검 헌병씨는 와서 웃둑웃둑 섯스네 다 쓸티업고 변변치 못하네마소방디도 맞쳐 오기 전에 봄베타 밧삭 마른집이 전치가 다 타바리고 그뿐아니라 화불단행이라고 그 엽호로 흥테 밧흔 김승지집까지 일시에 소준성이 되얏더라

횡장을 싸놔코 너일 아참 일즉이 초산 씨나라고 하던 리시종은 쫓박게 락미지익을 당하야 가족이 모다 로숙하게 된 경위에 잇스니 엇지 먼길을 씨늘 수 잇스리오 민망한 마음을 억지로참고

급히 빈집을 구하야 북부 자하동 일빅팔통십호 삼십구간 와가를 사셔 겨우 안돈하고 너미 벌셔 일주일이 지너쓰는 초산 소식은 종시 묘묘하니 자기와 김승지의 관계가 정리로 하던지 의리로 하던지 심사간에 혼변 아니 가 보지 못할 터이라 습주일 수유를 어더 가지고 즉시 씨네 초산을 내려가 보니 읍너는 자기 집 모양으로 빈터에 찬직뿐이오 촌가는 강계디 병정이 와서 폭민수식하는 통에 다 다라나고 기암이 식기 하는 볼 수 업스니 군수의 거취를 무러볼 곳도 업는지라 그 인근 읍으로 다니며 아모리 탐지하야도 종너 김승지의 소식은 알 수 업고 단지 들니는 말은 초산 군수가 글만 조아하고 술만 먹는 고로 정사는 모다 간활한 아전의 소미 속에서 놀다가 맞춘너 민요를 맞났다는 말뿐이라 하릴업셔 근 이십일 만에 집으로 도라오니 그 부친이 다녀오면 영창의 소식을 알파하고 눈이 썩지도록 기다리던 정임이는 락심천만하야 한업시 비창히 녀어는 모양은 눈으로 차마볼 수 업더라

리시종이 초산셔 집에 도라온지 제습일 되던 날 관보에 「시종원 시종리○○ 의원면본관 「이라 게지되얏스니 이썩는 갑오기혁 정척이 실패된 이후로 점점 간영이 금달에 출립하야 쫓잇는 스름은 일병빅척하는 시디인고로 엇던 혐의즈가 리시종 초산간 식이를 엇보고 성총에 모함한 바이라 리시종은 시종 체임된 후로 다시 세상에 나변득일 생각이 업셔 손을 사절하고 문을 닦으니 쫓다운 풀은 쓸에 가득하고 문전에 거마가 드무러 동너 스름이라도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아지 못할 만치 되얏더라

리시종은 이로부터 티끌 인연을 쓴어 바리고 쫓과 식로 벼을 삼아 만년을 한가히 보너고 정임이는 그 부친의게 소학을 빅와 공부하며 집고 집흔 규중에서 적적히 지너는디 영창이 생각은 썩썩로 암암하야 영창이와 갓치 가지고 놀던 유희제구만 눈에 썩여도 초창한 빗치 눈썹 사이에 가득하며 혹 썩에 영창이를 맞는 재미있게 놀다가 썩썩히 썩여 볼썩도 잇슬 뿐아니라 흥 히 두 히 지는 철이 차차 나갈수록 비감한 마음이 더욱 결연하야 너편을 읽을 적마다 소리업는 눈물도 만히 흘니는 터이언만은 리시종 너외는 정임의 나

먹는 것을 맛있게 녀여 마주 안기만 하면 항상 아름다운 식사위 구하기를 근심하고 김승지 집 이야기는 입박게 너지도 아니하더라

임엄흔 세월이 흐르는 듯하야 정임의 나히 어연간 십오세가 되니 그히 칠월열일해 놀은 리시종의 회갑이라 그날 수연잔치 쫓해 손은 다 헤져가고 넘어가는 히가 서산에 걸였는디 리시종 너외는 저녁하늘 저문 놀빛과 푸른나모 느진 미암이 소리 손마루 북창 압해 느런이 안져서 늙은 회포를 셔로 이야기하다

(리) 「포말풍등이 감가련 이라더니 슝의 일싱이야 참 가련흔 것이야 어제 갖든 우리 청춘이 어느 겨를에 밋서 회갑일세 지년간 놀이 이렇듯 쉬 갖스니 죽을 놀도 이렇케 쉬 오깃지 평싱에 사업하느 못하고 죽을 놀이 갖가우니 한심흔 일 이오구려」

(부) 「그럿키에 말씀이오 죽을 놀은 갖가우느 쓸만흔 즈식도 하느 못 두엇스니 우리는 세상에 난 본의가 업소구려 정임이 하느 식집가고 보면 이 만년 신세를 누구의게 의탁하단 말씀이오」

(리) 「그럿치만은 나는 양즈홀 마음은 조금도 업셔 얄전흔 사위느 엇어서 아들갓치 다리고 잇지」

(부) 그러하들 사위가 즈식만 하깃습니가만은 하기는 우리 죽기 전에 사위느마 엇어야 하깃습니다 .....」 사위 고르기는 며느리 엇기보다 어렵다는디 요세 세상 청년들 눈역여 보면 그 경박흔 모양이 모다 제 집 결단너고 느르 망홀 즈식들 갖흡디다 사위 직목도 조심히 구홀 것이야요

(리) 「그야 무슨 다 그럴너구 그런 집즈식이 그럿치

이렇케 수작하느 썩에 엇던 슝이 사랑중 문판에서 「정임아 정임아」 부르며 안손님 아니게 시야 「하고 못더니 큰 기침 두어번 하고 들리오면서

(엇던 슝) 「누님 저는 갖깃습니다」

(부인) 「그러케 속히가면 무엇하느 저녁이느 먹고 이악이느 하다가 부달 쓰거던 천천히 가게 그려 어셔 올라와.....」

부인은 그 슝을 이처럼 만류하며 하인을 불러서 「술상을 차려오나라 진지를 지어서 가져오

나라」 하는디 그 슝은 정임이 외습촌이라 수연치하하고 집으로 도라갈 터인디 그 누님의 만류하느 정의를 썩치지 못하야 마루로 올라와 안더니 거는방 문 압해 섰는 정임을 혼참 보다가

(외삼촌) 「정임이는 금년으로 몰느보게 자라 씩니다그려 오리지 아니하야 서랑보시게 되얏는 데요」

(리) 그 식진년 키만 엄부렁하면 무엇하느 비혼 것이 잇셔야 식집을 가지

(부) 「그리치 아니하야도 우리가 지금 그 걱정일세 혼쳐느 조흔 데 혼 곳 줌히하게그려.....」

(외삼촌) 「줍히 잘못하면 썩이 세 번이라는디 잘못하다가 썩이느 엇디 맛게요..... 하.....하....」

(리) 「싱질사위 잘못 엇는 것은 걱정업고 썩맛는 것만 염녀되느 하.....하.....」

(리) 「허.....허.....허.....허.....」

(외삼촌) 「혼쳐느 저기 조흔 곳 잇습디다 옥동박과장의 셋지 아달인디 나흔 열일곱살이오 공부는 직작년에 사범속소학교에서 졸업하고 즉시 관립중학교에 립학하야 올에 삼학년이 되얏답디다 그 아히는 저의 팔촌 처남의 아달인디 그집 문벌도 홀용하고 가세도 불빈홀 썩 아니라 제일 랑즈의 열골도 결국하고 직조도 초월하야 너 마음에는 미우 합당흡디다만은 미부 의항에 엇더하신지요」

리시종의 귀에 그 말이 번쩍씩여 「응 그리히 합당하면 하다마다 자네 마음에 합당하면 너 의항에도 좃치 별 수 잇느 나는 양반도 취치 안코 부자도 취치 안코 다만 당즈 하나만 고르네」 하면서 미우 깃버하고 정임이 외습촌은 이런 이악이를 밤이 되도록 하다가 갖는디 그 후로는 신랑의 선을 본다는 둥 사주를 맞는다는 둥 하더니 하로는 리시종이 붉은 간지를 녀여 「팔월십사일 전안랍치 동일선형」 이라 써셔 다홍실로 허리를 띠여놋코 부인과 의론히가며 신랑의 의양단즈를 적는다 정임이는 영창이 싱각을 이질만하다가도 식집이니 장가니 혼인이니 사위니 하느 말을 드르면 식로이 싱각이 못득 느는 터이라 외습촌이 혼쳐 의논홀 썩에도 영창이 싱각이 썩에 사마쳐서 거는방으로 드러가 눈물을 몰느 썩스며 속 마

음으로 「부모가 나를 이왕 영창의게 허락하셨스니 나 는죽어 빅골이 되야도 영창의 안희이라 비록 영창이는 불행했엇슬지라도 나는 결코 두 스릅의 처는 되지 아니홀 터이오 저 아것씨는 아모리 중미한다 하야도 입에선 바람만 디릴걸」 하느싱각이 퇴수에 밋쳤스니 녀즈의 붓쓰러운 마음으로 그 부모의게는 아모말도 못하고 지너던 터이더니 턱일단즈 보너는 것을 보미 가심이 셴쪽하고 심기가 좃치 못하야 몸을 비비 틀며 참다가 못하야 그 모친의 귀에 덕고 응석처럼 가만히 하느말이라

(정임) 「나는 식집가기시려」

(부인) 「이년 계집아히 년이 식집가기 시른 것은 무엇이고 조흔 것은 무엇이나」

(리시중) 「그년이 무엇이리 나중에는 별 망칙흔 말을 다 듯깃네」

(정) 「아바지 어마니 보고 십어 식집가기시려오」

(부) 「아비어미 보고 십다고 평싱 식집아니갈가 이 못싱긴년아」

부인의 말은 철 모르는 말로 돌리는 말이라 정임이는 정식하고 꾸러안지며

(정)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아바지게서 열너는 불경이부라는 글 가랏쳐 주섯지요 나를 이왕 영창이와 결혼하시고 지금 또 식집보닌다 하시니 부모가 혼 즈식을 두스릅의게 허락하시는 법이 잇습닛가 아모리 영창이 좋적은 하지 못하느 다른 곳으로 식집가기는 죽어도 아니하깃습니다」

리시중이 그 말을 듯더니 별씩 이러서며 정임의 머리치를 휘어잡고 평싱에 손지검 한번 아니하던 그 꼴을 여긱저긱 함부루 쥐여박으며

(리) 「요년 요 못된 년 그게 무슨 방정마진 말이나 요년 혀줄기를 쓴어 노홀느 네가 영창이 레단을 밋아싼 말이나 네가 영창이와 초례를 지닛싼 말이나 네가 간디업는 영창이 싱각하고 식집 못 갈 의리가 무엇이란 말이나 아모리 어린 년인들」

하며 죽일 년 잡퀴듯하니 부인은 겁이느서

(부) 「고만두시오 그 년이 어린 마음에 부모를 썬러지기 시려서 철모르고 하느말이지오 어셔고 만참으시오」

(리) 「요년이 어딤 철물느셔 하느말이오 제 일싱을 큰일 너고 부모의 가심에 못박을 년이지..... 우리가 저 하느를 길러서 죽기 전에 서방이느 엇어믹겨 근심을 이질가 하느 터에..... 요년이.....」

하며 또 혼참 짜려주니 부인은 놀림고 가엽싼 마음에 살이 썰니고 가심이 저려서 달겨들며 리시중의 손목을 잡고 정임이 머리를 쫓어노아 간신히 말엇더라

리시중은 율리 구습을 기혁홀 사상이 잇는 터인고로 설녕 그 꼴이 과부가 되얏슬지라도 기가라도 시킬 것이오 정혼했었던 것을 거릿겨서 꼴의 일평싱을 그릇하지 아니홀 스릅이라 정임의가 심속에 철석갓치 굳은 마음은 아지 못하고 다만 자기 속마음으로 「정임이 말도 올치 아니홀 바는 아니로터너 싱각을 하던지 정임이 싱각을 하던지 소소한 일로 전정의 디불행을 취홈이 불가하다」 싱각하야 정임이를 압제 수단으로 그런 말은 다시 못하게 하야 늦코 그늘부터 침모를 부른다 속수를 안친다 하야 밧비 혼례를 준비하느디 밧어 노흔 날이라 눈 씌쪽 홀 사이에 밧셔 열스흔 날 져녀이 되얏스니 그 잇흔날은 빅마탄 식신랑이 올날이라 정절이 옥 갓흔 정임의 마음이야 과연 엇더하다 하리오 거는방에 혼자 누엇스니 이 싱각 저 싱각 별 싱각이 다 는다 부모의 뜻을 순종하자 하니 인류의 죄인이 되야 디하에 가서 영창을 불 낫치 업슬 썬 아니라 이는 부모의 뜻을 순종홈이 아니오 곳 부모를 올치 못흔 스릅을 밋드는 것이오 부모의 뜻을 좃지 아니하자 하니 그 계칙은 죽는 수박게 업는디 늙은 부모를 두고 참혹히 죽으면 그 죄는 차라리 식집가는 것이 오히려 경홀지라 아모리 싱각하야도 엇지홀 줄 모르다가 혼 싱각이 못득느며 혼자말로 식집이란 것이 다 무엇 말라 죽은 것이야 서양 스릅은 시악시부인도 만타더라」 하고 별씩 이러서서 안방으로 드러가 보니 그 부모는 잔치 분별하기에 종일 근회하다가 막 첫잠이 곤히 든 모양이라 문갑 설합에 열쇠 퓌를 썬니 가지고 골방으로 드러가 금고를 열고 십월권 오원 권을 잇는 터로 집어 닉여 손짜방에 너셔 들고 나오니 시계는 아홉 점을 (딩딩) 치는디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며 와글와

글하던 스름들은 흐느도 업시 괴괴하고 오동나무 그림자는 쓸에 가득하며 벽틈에 엇치 소리가 (졸썩) 흘 썩이라 다시 거는방으로 드러가 조희를 넘어 편지 써서 자리 우에 퍼 뚫코 느와셔 그 길로 더문을 나서며 흥번 도라보니 부모의 싱각이 마음을 찌르는 억지로 참고 두어 거름에 흥번씩 도라보며 효즈문 네거리 와서 인력거를 불러 타고 남딤문 박을 느셔니 이새 가을 하늘에 알분 구름은 고기 비늘갓치 조각조각 연하고 그스이로 흥박회 둥근달이 붉은 광치를 잠신 자랑하고 잠신 숨기는데 연약한 마음이 자연 상하야 흐르는 눈물을 씻고 쫄 쫄한 스이에 밧셔 인력거 치를 덜씩 뚫는데 남딤문경계장에서 요령 소리가(덜렁덜렁) 느며 붉은 모즈 쓴 스람이 「후상 후상 후산오이테마싱싱」 하고 외는 소리가 장마 속 눈고에 밧썩이 썩툫하니 이새는 하오 십시십오분 부산급행 츠 써나는 썩라 인력거에 급히느려 동경식지가는 연락츠 표를 사 가지고 이등열차로 오르니 호각 소리가 「호르륵」 느며 기관츠에서 「파 푸 파 푸」 하고 남딤문이 점점 머러지니 압길에 운산은 창창하고 츠뒤에 연하는 막막하더라

그 썩른 츠가 밤식도록 가다가 그 잇흔날 아침에 부산에 도착하니 안방에서 더문 박도 자셔히 모르고 지넛던 정임이는 처음 이럿케 멀니온 터이라 집에 잇슬 썩에 동경을 가자면 남문역에서 연락츠 표를 사 가지고 부산가셔 연락선 타고 하관까지 가고 하관셔 동경가는 츠를 다시타고 신교역에서 느린다는 말을 뚫기는 드렸지만은 남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왓스느 연락선 정박한 부두가는 길을 아지 못하야 정거장머리에서 주져주져 하다가 「화륵선 타는 선창을 어딤로 가오」 하고 무르미 이 스름도 물쓰름이 보고 저 스름도 물쓰름이보니 정임이가 집썩늘 썩에 머리는 전반갓치 싸흔 치로 옷은 분홍춘사 적삼 옥식 모시 다린 치마 입엇던 치로 그딤로 썩 느온 그 모양이라 누가 이상히 보지 아니하리오 그 만흔 넉외국 스름이 모다 역여 보더니 그중에 엇던 스름이 아리위를 흥참 홀터 보다가 「여보 즈근아씨 이리와 넉가 부두까지 가는 길에 가라쳐 줄 터이니」 하고 압셔셔 가는데 말속이 빗썩는 통량갓 속으로 반드를 흥 상투는 외로 썩 썩러지고 후줄근한 왜

스두루막이는 기름 썩가 조르를 흘렀더라

정임이가 약기는 참식 굴레쌀만 흐지만은 세상 구경은 처음 갓흔 터이라 다른 염녀업시 그스름을 썩라 부두로 나가는데 부두로 갈 것 갓흐면 스름 만히 단니는 탄탄디로로 갈 것이언만은 이 스름은 정임을 썩고 썩불썩불하고 좁디 좁은 골목으로 이리 썩썩 돌고 저리 썩썩 도라가다가 엇던 움막소리 룽흔 등 달린 집으로 드러가며

(그스름) 「나는 이 집에서 볼닐 줌보고 곳 가라쳐 줄 것이니 이리 잠신 드러와」

정임이는 비탈 시간이 느졌가나가 하고 근심될 썩아니라 녀즈의 몸이 낮선 곳에 혼즈와셔 산아히 높 썩라 남의 집에 드러갈 식담이 업는 터이라

(정임) 길 모르는 스름을 이쳐림 가라쳐 주고 즈 하시니 더단히 곱압습니다 나는 여기셔 잠신 기다릴 터이니 어셔 볼닐 보십시오」

하고 섰더니 그 스름이 그 집으로 드러간지 흥참 만에 엇던 계집 두 년이 머리에는 왜밀뒤범벅을 히 붓치고 중문손에서 기웃기웃 너다 보며 아에그 그 천녀 얌전도 하다 아마 서울스름이지」 하고 나오더니 「여보 잠신 드러오구려 갓치 오신 손님은 지금 담비 흥디 잡숫는데오 우리집에는 아모도 업소 녀편네가 녀편네들만 잇는 집에 드러오는 것이 무슨 관계잇소 어셔 잠신 드러와가시오」 하며 흥 년은 손목을 잡아다리고 흥 년은 등을미는데 엇지홀 수 업시 안마당으로 드러 섰다 길가 라쳐 주마던 스름은 마루썩헤 걸터안져 담비를 먹다가 정임을 보더니

(그스름) 「선창을 무르면 비타고 어딤를 가는 길이야

(정임) 「동경식지 감니다

(그스름) 「집은 어딤이고

(정임) 「서울이야요

(그스름) 「동경은 무엇하라가

(정임) 「유학하랴오

(그스름) 「유학이고 무엇이고 저럿케 큰 처녀가 길도 모르고 엇지 혼자 느섯셔

(정임) 「지금갓치 밝은 세상에 처녀말고 아모라도 혼자 나온들 무슨 관계잇습닛가

(그스름) 「일홈은 무엇이고 나흔 몇 살이야」

이렇게 자서히 못는 바람에 정임이는 의심이  
느며 서울 뉘집 아들도 일본으로 도망히 가다가  
그 집에서 부산경찰서로 전보하야 붓잡아 갖다더  
니 아마 우리아바지게서 전보흔 식둡으로 경찰서  
에서 별순검을 보니 조사하느 보다 하느 싱각이  
느서

(정임) 「비탈 시간이 느껴 가는디 길도 아니  
가라쳐 주고 남의 일홈과 나는 아라 무엇하랴오

하고 도라서서 느오논디 그 슝름이 달녀들며  
잡담 제하고 써리다가 뒤방에 넛코 방문을 박쓰  
로 걸더라

그 슝름은 식주가 서방인디 서울 슝름과 상약  
하고 엇던집 계집아히를 식주가 감으로 꼬야너는  
판이라 서울 슝름은 그 계집아히를 유인하야 어  
느늘 몇 시 초로 보닐 것이니 아모썸록 늦치지  
말고 잘 단속하라는 약조가 잇는 터에 그 계집아  
히는 아니오고 익미흔 정임이가 걸엿스니 아모리  
소리를 지른들 무엇하며 야단을 친들 무슨 수가  
잇스리오만은 하도 무리흔 경우를 당하야 괴가  
막히는 중에 「이렇게 범를을 무시하느 놈을 여  
러 슝름의게 알리면 도리가 잇스리라」 싱각하고  
흔번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더니 그놈이 감언리  
설로 달니다 못하야 회초리 썸질을 디는 판에 전  
신이 피뭇치가 되고 과연 견딜 수 업슬 썸아니라  
죽고자 하야도 죽을 수도 업스니 이런 일은 평성  
에 듯지도 보지도 못하다가 썸결갓치 이 지경을  
당하미 분흔 마음이 이를 것 업스느 엇지할 수  
업시 갖쳐 잇더니 슝홀되던 늘 밤에 문틈으로 풍  
덩이 흔 마리가 드러와서 쇠잔흔 등불을 쳐서 쓰  
느디 갑갑하고 무서운 싱각이 느서 불이느 켜 늦  
코 밤을 식우리라 하고 들창문 지방을 더듬더듬  
하며 석냥을 차지니 석냥은 업고 다 부러진 디석  
칼이 틈에 끼여 잇는지라 그 칼을 집어들고 이리  
홀씩 저리홀씩 흔참 싱각하다가 맞침너 문창살을  
오린다 칼도 엇지 잘들고 힘도 엇지 세던지 밤식  
도록 겨우 창살흔 기를 오리고 나니 둥은 세쇄를  
울고 먼촌에 기 짓는 소리가 느는디 그 창살 오  
려닌 틈으로 박게 걸린 고리를 벗기고 가만히 나  
오니 죽엇다가 사라는 듯이 상쾌흔지라 차차 큰  
길을 차자가며 싱각하니 「이번에 이 고싱흔 것  
도 도시 의복을 잘못차린 식둡이오 썸 동경을 가

더리도 조선 의복 입은 슝름은 하등디우를 흔다  
논디 이 모양으로는 아모테도 가지 못하깃다」 하  
고 어느 모퉁이에 서서 늘 붉기를 기다려 가지고  
곳 오복점을 차져 가서 일본옷 흔 벌을 사셔입고  
그 오복점 주인너편네의게 간청하야 머리를 쓰러  
올녀 일본쪽을 썸고 썸 그 너편네의게 선창가는  
길을 무러서 차져가니 이썸 맞침 연락선 일기환  
이 썸느는지라 즉시 그 비를 타고 망망흔 바다빛  
치 하늘에 다흔 곳으로 가더라

이 갓흔 곤란을 지너고 동경을 향하야 가는 정  
임이가 슝일 만에 목적지 신교역에 느리니 그 시  
가의 화려하고 번창흔이 참 처음 보는 구경이느  
여관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흔참 방황하다가  
답혀 늦코 인력거에 올느 안지니 별안간 말하느  
병어리 소리 듯는 귀먹어리가 되야 인력거군의  
못는 말을 디답하지 못하고 다만 손을 드러 되느  
디로 가라치니 인력거는 가라치느 디로 가고 정  
임이는 못는 디로 가라쳐서 이리저리 한업시 가  
다가 어느 곳에 다다르니 「상야관」 이라 현판  
붓친 집 압해서 오는 가는 슝름의게 광고를 돌리  
느디 그 광고 흔 장을 밧아 보니 무슨 말인지 의  
미는 알 수 업스느 단지 숙박료 일등에 얼마 이  
등에 얼마라고 느러 쓴 것을 보미 그 집이 여관  
인 줄 알고 인력거를 느러 드러가니 밧서 녀중과  
반썸들이 느와 마지며 드러가는 길을 인도하느지  
라 인하야 그 집에 여관을 정하고 위션 여관 주  
인의게 일본말을 비호니 윈릭 총명이 과인하고  
학문도 중학교 졸업은 되는 터이라 일곱 달만에  
못홀 말 업시 능통홀 썸아니오 문법도 막힐 곳업  
시 무슨 서적이던지 능히 보게 되미 그히 봄에  
「소석천구」 일본녀즈디학에 입학하얏는디 그심  
중에는 항상 부모의 싱각 영창이 싱각 자괴 신세  
싱각이 흔테 뒤뭇쳐서 주야로 간절 흔 터이라 그  
러흔 퇴심 중에 공부도 잘되지 아니하련만은 시  
험 볼 썸마다 그 성격이 평균점 일공공(100)에  
써러지지 아니하야 히마다 최우등으로 진급되니  
동경 녀학싱계에 리정임의 일홈을 모를 슝름이  
업시 명예가 굉장하더라

호로는 학교에서 하학하고 여관으로 도라오니  
엇던 녀학도가 무슨 청첩을 가지고 와서 아모썸  
록 오시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말하고 가는디 그

청첩은 「녀학싱 일노강습회 창립총회」 청첩이오 그 취지는 녀학싱이 일노일마다 모여서 학문을 강습호자는 뜻이라 정임이는 근심이 첩첩호야 만스가 무심호 터이지만은 그 취지셔를 본즉 티우 아름다운 일인고로 그날 모힌다는 곳으로 갖더니 녀학싱 수십 명이 와서 기회호고 임원을 선정호는디 회장은 리정임이오 셔기는 산본영즈라 정임이는 억지로 사양치 못호고 회장석에 출석호야 문제를 녀여걸고 차례로 강연호 후에 장차 폐회호 터인디 이석에 었던 소년이 셔기 산본영즈의 소기를 었어 회석에 드리오더니 자기는 조선유학싱 강한영이라호며 강습회 조직호는 것을 무한히 칭찬호고 이회에 쓰는 직정은 자기가 찬성적으로 어디까지던지 전담호깃노라 호고 설명호며 위선금화 박원을 기부호는 셔슬에 셔기의 특청으로 강소년이 그 회의 직무촉탁이 되얏는디 이석부터 강소년은 일노일마다 정임을 맞노면 지극히 반가와호고 티단히 정답게 구러셔 아모쪼록 친근히 사귀라호 하며 혹 었던 썩는 공원으로 놀노 가자기도 호고 야시 구경도 갖치 가자기도 호는 정임의 정중호 티도는 비록 녀즈끼리라도 특별히 친압호지 아니호거늘 호물며 남즈와 호가지 구경 다닐리가 잇스리오 그런 말 드를 썩마다 정숙호 말로 티답호미 다시는 그런 말을 못호는 터이오 산본영즈도 종종 여관으로 차져오는디 호로는 었던 노파가 와서 자기는 산본영즈의 모친이라 호며 자기 썰과 친절히 지너니 감스호다고 치하호고 가더니 그 호로는 자조자조 단니며 혹 파즈도 갖다주며 혹 화장품도 사다주어 었던 정분을 갑작이 사고자 호며 각금가다가 던지는 말로 녀즈의 평싱 신체는 남편을 잘 맞노고 못 맞노기에 잇다고 이약이호더라

정임이 동경은 지가 어언간 다섯희가 되야 그히 하긔시험에 졸업호고 증셔 수여식날 졸업장과 다수호 상품을 타미 그 마당에 모힌 고등관인과 녀외국 신사들의 총송이 비썰치듯 하니 그런 영광을 비호를 곳이 업슬 썩아니오 그 졸업장 호 장이 금주고 박고지 아니호를 만치 귀호 것이라 그 마음에 오작 깃부리오 만은 정임이는 찬양도 귀에 심상히 들니고 조호 마음도 별로 업셔 즉셔 여관으로 도라와 삼층장즈를 열고 란간에 의지호

야 먼 호늘에 괴이호 구름 피여 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티두의 거취를 었더케 호싱 싱각호고 안것는디 산본노파가 오더니 졸업호 것을 치하호다

(노파) 「이번에 우등으로 졸업호얏다니 티단히 감축호 일리오구려 듯기에 었지 반가온지 너가 치하호라 왓시오」

(정임) 「감축이랄 것 무엇 잇습니가」

(노파) 「저렷케 녀소호 터에 밋셔 티학교 졸업호 호얏스니 참 곱아온 일이야 너 마음에 이처림 반가울 썩에 당신이야 오작 깃부며 부모가 드르시면 얼마노 조와호시깃소」

(정임) 「노는 조호를 것도 업습니다 학교 교수여러분의 덕티으로 졸업호 호얏스노 아모것도 아는 것은 업스니 무엇이 조호닛가」

(노파) 「그런 겸사는 다 고만두시오 너가 모다른구요..... 그러노 우리 썰 영즈야말로 인제겨우 고등과 이년급이니 언제노 티학교 졸업호 호는지오 당신을 치여다보자면 고소티 꼭티기깃지」

(정임) 「별 말슴을 다호십니다 영즈의 직조로 잠싣이지오 근심호실 것 무엇 잇습닛가」

(노파) 「당신은 얼굴도 어엽부고 마음도 얹전호거니와 직조는 었지 저렷케 비상호며 학문은 었지 저렷케 좃소 나는 불썩마다 부러워」

(정임) 「천만의 말슴이오」

(노파) 「당신은 식집을 가더티도 열골이 저와 가치 곱고 학문도 티학교 졸업호 신랑을 었어야 호깃소」

(정임) 「.....」

(노파) 「이 세상에는 저와 갖호 썩이 업슬 걸

(정임) 「.....」

(노파) 「남녀 물론호고 혼인은 부모가 정호는 것이지만은 이 이십세기 시딧에야 부모가 혼인정희 주기를 기다리는 슝이 누가 잇노 혼인이란 것은 제 눈에 들고 제 마음에 밋는 슝과 호것인」

(정임) 「.....」

(노파) 「왜 아모 이약이도 아니호고 얼굴에 근심호는 빗치 잇스니 웬일이오 너가 혼인 이약을 호닛가 아마 식집갈 일이 근심되노보구려 혼인은 일평싱에 큰 관계가 달닌 일인디 었지 근

심이 되지 아니하랴가 그것치만은 근심할 것업소  
 너가 조흔 흔쳐 천거하리다 이말이 실업슨 말아  
 니오 자셔히 드러보시오 너가 남의 중덕흔 일에  
 잘못 소기할 리도 업고 쏘 서양스름이느 아미리  
 가스름의게 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갓흔 나라 스  
 림이자 쏘 자격이 당신과 쏘 갓흔 터이니 두고두  
 고 평성을 구흔들 엇지 그런 합당흔 곳을 고를  
 수 잇스랴가 다른 스름이아니라 일노강습회에 다  
 니는 강한영 씨 말씀이오 당신도 만히 맞나 보섯  
 깃지만은 얼골인들 좀 압전하며 직조인들 여간  
 조흠더닛가 그 낭반이 너집에 주인을 정하고 습  
 년을 나와 갓치 지닌는디 그 옥 갓흔 마음은 오  
 던 놀이느 오늘날이느 맛창가지오 학문으로 말하더  
 리도 이번에 디학교 법률과 졸업을 하얏스니 당  
 신만 못하지 아니하고 직산으로 말하더리도 조선  
 에 몇척아 니가는 부자랍디다 너가 조선스름의  
 부자이고 아닌 것을 엇지 알깃소만은 이곳에 와  
 셔 돈쓰는 것만 보면 알깃습디다 그 낭반이 돈을  
 써도 공익적으로느 쓰지 외입 혼번 하는 것도 못  
 보앗셔오 만일 너말이 못밋거던 본가로 편지라도  
 히셔아라 보고 망서리지 말고 혼인 정하시오 그  
 집은 디구인디 이번에는 가면 서울로 이스 응답  
 디다 압만 골라도 이러흔 곳은 다시 구경도 못홀  
 터이니 늦쳐 바리고 후회할 것업 시 두말 말고  
 정하시오 당신도 그 낭반을 모르는 터이 아니어  
 니와 이 늙은 스름이 설마 남못홀 노릇 시기라고  
 거짓말할 리 잇소 다시 싱각할 것업시 너 말디로  
 하시오」

그 노파는 졸업 치하가 변하야 혼인 소기가 되  
 더니 잔말을 기다랏게 느러놓는디 정임이는 조금  
 도 뜻기가 귀차는 터이라

(정임) 「그러하깃습디다 녀즈가 되야 식집가  
 는 것도 변될 일이 아니오 당신이 혼인중미 하시  
 는 것도 고이치 아니흔 터이느 그러는 나는 집  
 썬날 썬로부터 마음에 정흔 바이 잇셔 다시는 변  
 통 못홀 사정이올시다 그 사정은 말할 필요가 업  
 거니와 만일 너가 식집을 갈것 갓흐면 그런 조흔  
 곳을 바리고 엇던 곳을 다시 구하랴가만은 너가  
 식집 아니 가기로 결심흔 이상에야 다시 홀 말  
 잇습닛가 혼인 이썬에 디하야셔는 두 말씀 마시  
 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썬도 업시 쓴어 말하미 노파는 다시 말  
 못하고 무연히 도라갓는디 그 후로부터 일노강습  
 회에도 다시 가지 아니하고 잇더니 집 싱각이 간  
 절하야 집에 도라가 늙은 부모는 봉양하고 녀학  
 교는 설립하야 청년녀즈들이느 가라치며 오는 세  
 월을 보너리라 하고 귀국할 횡장을 차리는 중인  
 디 흐로는 구진비가 종일 와서 심기가 디단히 울  
 적하던 츠에 비 기이고 달 돛아오는 경이 하도조  
 키에 옷을 가라입고 상야공원에 가서 달구경하고  
 오다가 불인지까를 지느며 보니 펍흔 연엽에는  
 비흔적을 머무르고 뭍고뭍은 물결에는 우에도 관  
 월교요 밋헤도 관월교라 그 운치를 사랑하야 도  
 라갈 줄을 이져 바리고 섰더니 그 악 소년을 맞  
 는 칼침을 맞고 병원으로 갓는디 병원에서 의사  
 가 상처를 진찰하니 창흔은 후문을 비껴고 빗는  
 갓고 창구는 이분이며 심은 일촌에 지느지 못하  
 야 싱명은 아모 관계업고 놀느셔 잠시 괴식흔 모  
 양이라 의사는 응급수술로 민속히 치료하얏스느  
 정임이는 그러흔 광경을 싱후에 처음 당하야 엇  
 지 혹독히 놀났던지 중시 혼도하얏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려 눈을 썬보니 동편 유리창에 벗이 썬  
 썬이 빗취고 자기는 놓흔 와상에 흰 훗이불을 덮  
 고 누엇는지라 엇지된 곡절을 몰나 속싱각으로  
 「여기가 어디인가 우여리관에는 저렷케 벗드러  
 본 적도 업고 이러흔 와상도 업는디 너가 뉘집에  
 와서 이러케 누엇는 익고 이상도 하다 너가 아마  
 꿈을 이러케 꾸는 보다」

하고 정신을 수습하는 썬에 의사가 간호부를  
 다리고 드러오는 뒤에 순사가 싸라오는 것을 보  
 고 그제야 전신에 소름이 썬 끼치며 어제밤 공원  
 싱각이 느는디 의사가 창구를썬고 약을 가라 붓  
 치더니 순사가 압호로 닥아서며 자세자세 못는다

(순사) 「당신의 성명은 누구라 하고

(정임) 「리정임이올시다

(순) 「년영은 얼마요

(정) 「십구세올시다

(순) 「당신의 집은 어디요

(정) 「조선 경성 북부자하동 일빅팔통십호올  
 시다

(순) 「당신의 부친은 누구요

(정) 「리○○올시다

(순) 「부친의 직업은 무엇이오  
 (정) 「우리 부친은 관인이더니 지금은 벼슬업고 전즉은 시종원 시종이올시다  
 (순) 「형제는 몇분이요  
 (정) 「이 스펀 하느뿐이올시다  
 (순) 「당신이 무슨 일로 동경에 왔소  
 (정) 「유학하기 위하야 왔습시다  
 (순) 「그러시오 그러면 여관은 어디며 어느 학교 몇년 급에 다니오  
 (정) 「여관은 하곡구 거판정 십일번지 상야관이오 학교는 일본녀즈디학에 다니더니 거칠월십일에 졸업하엿습시다  
 (순) 「믹우 곱아운 일이오만은..... 어제밤에 흥흥하던 놈은 아는 놈이오 모르는 놈이오  
 (정) 「안면은 두어 번 잇섯지요  
 (순) 「안면이 잇스면 그놈의 성명을 알며 어디서 보앗소  
 (정) 「성명은 강한영이오 맞는 보기는 녀학싱 일노강습회에서 맞는 보앗습시다  
 (순) 「성명을 드르니 그놈도 조선스름이오 구려..... 그놈의 원적지와 류숙하는 여관은 어대인지 아시오  
 (정) 「본국 스펀이로대 거주도 모르고 여관도 어대인지알 수 업스네 그 주인은 산본이랍디다  
 (순) 「그러면 무슨 리유로 저 일을 당하얏소  
 (정) 「리유는 아모 리유도 업습시다..... 녀즈가 되야 세상에는 죄악이지오  
 정임이는 그 말 곳치며 두 눈에 눈물이 핑도는데 순사는 낫낫치 조사하야 수첩에 기록히 가지고 믱우 가엽다고 위로하며 의사를 향하야 아모조록 잘 보호하고 속히 치료히 주라고 부탁하고 나가더라  
 정임이가 이러흔 죽을 욱을 보고 병원에 누엇스미 쳐랑히기도 이를 것이 업고 별 심각이 다는데 「네가 집을 바리고 멀니 썩느셔 늙은 부모의 걱정을 시기니 이런 죄악을 왜 아니 당홀리잇는 그릇치만은 네가 부모를 저바린 것이 아니오 중디흔 의리를 직힌 일이니 아모리엇더흔 죄를 등홀지라도 조금도 신명에 부쓰러울 것은 업서 네가 어려서 부모의게 귀훈 받고 영창이와 갖치 자랄 썩에 신체가 이지경 될 줄 누가 아랏

던가 그러는 나는 무슨 고성을 호던지 이 세상에 사라 잇거니와 빅골이 어느 곳에 헤여진지 아지 못하는 영창의 외로운혼이 불상치 아니하냐 너가 밧비 지하에 도라가 영창이를 맞느셔 어셔 이런 말을 좀 하얏스면 조킷구면 부모 심각에 홀수 업지..... 허..... 나의 혼몸이 던지의 리기를 타고 부모의 혈육을 밧아 이 세상에 한번 노은 것이 전만고 후만고에 다시 엇기 어려운 일인디 이럿케 아싯은 일싱을 락을 모르고 지너다가 죽는단 말인가 참 팔쓰도 괴박도 하다 심각을 호면 간이 녹아 신문이네 보고 이져바리깃다」 하고 간호부를 불러 신문 한 장을 가져 오리셔 잠심하야 보는데 제 습면잡보난에 (김영창년 십구)이라하는 스펀이 엇던 녀학싱과 무슨 감정이 잇던지 직작 일 하오 십일시경에 상야공원 불인지가에서 칼로 지르다가 하곡구경찰서로 잡혀갓는데 그 스펀은 본디 조선 스펀으로 영국 문과디학에서 졸업한 자이라 더라」 게지 하얏는지라 이 잡보를 보다가 하도 이상하야 한번 다시 보고 또 한번 더 훑터보아도 갈디업시 자기의 사실인디 흥픽하던 놈의 성명이 다르미 더욱 이상하야 혼자말로 「아이고 이상도 하다 이 말이 덩녕 너 말인디 그놈이 강가아니오 김영창이란 말은 원 말이며 영국 문과디학 졸업이란 말은 원 말이고문 아마 신에 잘못 게지하얏는 보다 너가 영창이 심각을 이져바리자고 신문을 보더니」 하고 신문을 쌓에 던지다가 다시 집어 들고 「김영창.....김영창.....문과디학 졸업」 하며 무슨 심각을 식로 하는 썩에 누가 엇던 엽서 한 장을 주고 나가는데 그 엽서는 직판소 호출장이라 그 엽서를 밧아 두고 병났기를 기다리더니 병원에 온 지 일주일이 되미 상쳐도 완전히 치료되고 직판소에서 부르는 일썩가 되얏는지라 병원에서 퇴원하야 여관으로 도라가는 길에 곳 직판소로 가더라  
 정임의 마음에 이럿트시 식이고 식여둔 영창이는 정임을 이별하고 부모를 썩라 초산으로 운후에 날이 가고 희가 갈수록 역시 정임이가 영창이 심각하네 진비업시 정임을 심각하며 가고 또 오는 날을 괴로히 지너더니 호로는 정임의게서 편지가 와서 반갑게 썩여본다  
 (편지) 이별홀 썩에 푸르던 버들이 다시푸르르

니 하늘가를 바라보며 눈이 뿌러지고자 흐느 바다는 막막하고 소식은 업스니 난간에 의지하야 공연히 창자가 쓰너질 썩이오 희는 갖가오나 초산은 멀며 바름은 가 뵈오느 이몸은 목어 와서 느라 다니는 술업은 엇지 못하고 다만 봄봄으로 하야금 괴롭게 하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상하고 말을 하자니 이가시구느

이러한 만지장서를 쳐다보지 못하고 막 시작하야 여기까지 보는데 습문 박게서 별안간 「우직근 썩 썩」 하며 「아 우」 하는 소리가 느더니 봉두란발도 흰 놉 수건도 쓴 놉덜이 혹 몽둥이도 들고 혹 돌도 들고 우-물너 드리오면서 위선 리방 형방 순로 사령을 밋친 기 썩리듯 하며 흰 세는 디청으로 올느 와서 군수를 잡아느리고 흰 세는 너아에 드러가서 부인을 썩러니여 흰 쓴에다가 비웃두름 역듯이 동여 안치고 여러 놉이 둘러 서서 흰 놉은 「물을 쓰려라」 흰 놉은 「장작덤이에 올너 안쳐라」 흰 놉은 「석유를 끼언져라」 흰 놉은 「구덩이를 파라」 또 흰 놉은 「이이들 아서라 확정은 모다 아전 놉의 짓이지 그 못싱긴 원놈이야 술이느 조아하고 글이느 잘 짓지 무엇을 안다더냐 그럴 것 업시 집둥우리느 티셔 지경이느 넘겨라」 하느디 그중 흰 놉이 썩 나서며 「그럴 것 업시 조흔 수 있다 두 년놈을 큰 두주 속에 흰 데 너서 강물에 썩여 바리자」 하느디 그 여러 놉들이 「이이 그말 좃타 .....자.....」 하며 두주를 갖다가 군수 너외를 집어넛코 자물쇠를 치고 진상가는 썩병 동이듯 이리 층층 열고 저리 층층 열거서 여러놈이 썩메고 압록강으로 나가느디 정임이 편지 보던 영창이느 창졸간에 하늘이 무너지고 쌍이 꺼지는 듯한 난리를 맛느미 엇지 흘 줄 모르고 몸부림을 하며 아버지 어마니를 부르고 울다가 메고나가는 두주를 조차가니 엇던 놉은 귀통이도 쥐여 박고 엇던 놉은 발길로 차기도 하며 엇던 놉은 「이이 요놈은 작은 도적놈이다 요런놈 썩밧아서느 못쓰깃다 요놈도 마져 두주 속에 너라」 하느디 또 엇던 놉이 와서 「아서라 그까지 어린 즈식 놉이야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치만은 요놈이 이럿게 잘입은 비단옷 도모다 초산 빅성의 피 굵은 것이니 이것이느마 입혀 보닐 것업다 「하고 달녀들여 입은 옷을 다 벽기

고 지느가는 거지아희의 옷 희진틈 이 석희이 가터진 방아썩이에 보리알 썩듯흔 것을 박고아 입혀서 쌍에 발이 붓지 안토록 드러니 썩는다 그지 경당하느 영창의 마음에는 자기는 죽인디도 겁늘 것 업스되 무죄흔 부모가 참혹히 죽는 것이 비홀디 업시 통이흔 생각에 「나도 압록강에느 가서 기어코 우리 부모 드러 안져 계신 두주라도 붓들고 죽으리라」 하고 굴청언덕을 히아리지 아니하고 업드러지며 잠바지며 압록강을 향하고 가느디 읍너서 압록강이 몇 리느 되던지 밤식도록 가다가 어느 곳에 다다르니 위도 하늘 갖고 아리도 하늘 갖흔 물 빗치 보이는데 사면은 적적하고 넓고넓은 만경창과에 층층흔 별빛만 반작반작하며 오렐흔 여울소리가 숲히 조상 하느 듯 흘 썩이오 자기 부모는 어디로 썩느갓는지 알 수 업느지라 흐릴업시 언덕우에 서서 창자가 썩어지는 듯이 울며 몇번이느 강물로 썩러지랴고 하다가 다시 생각하고 「죽더릭도 썩느가는 두주라도 보고 죽으리라」 하야 물결을 썩라 한업시 느려간다 몇칠이느 가고 어디까지느 왔던지 흰곳에 이르러서는 발도 부룻고 다리도 압흘 썩아니라 여러 날 굴며서 괴운이 시진하야 정신 일코 사장에 넘어졌스니 그 동탕흔 얼굴이야 어디갈 것 아니지만은 그 넘어진 모양이 흐릴업는 식정이 송장이라 강변 식막귀는 이리로 느르며 「썩썩」 저리로 느르며 「썩썩」 하고 기 세는 와서 여기도 「썩썩」 맞혀 보고 저기도 「썩썩」 맞혀 보느 이것저것 다 모르고 누엇더니 누가 허리를 썩썩 썩르고 또 썩썩썩르느 썩에 간신히 눈을 드러보니 어리와리하게 보이느 줍에 키는 장승갓고 옷은 시커머코 코는 주먹덩이만 하고 눈은 여산 칠십리는 드러간 듯 하야 독감이 줍에도 상독감이 갖흔 스품이 엽혀 서서 무슨 말을 하느디 귀도 먹먹히지만은 말인지 어훈도 알 수 업고 말할 괴운도 업거니와 디 답할 줄도 모르고 눈이 멀거니 쳐다볼 썩이라 그 스품이 달여드러 이르켜 안쳐넛코 썩병을 너여 물을 먹이더니 손목을 썩고 인가를 차져가니 그 곳은 신의주 나루터이오 그 스품은 영국 문학박사 스미트라 하느 스품인디 자선가로 영국에 유명한 스품이라 그 스품이 동양을 유람 코자하야 일본다녀 조선으로 와서 부산 디구 경성 기성 평

양 의주를 다 구경하고 장차 청국 북경으로 가는 길에 이곳에서 영창이 너머진 것을 보고 얼굴이 비범한 아기가 그 모양으로 누웠는 것을 미우 측은히 녀여 즉시 썰고 신의주 기시장 일본스름의 여관으로 드러가서 급히 약을 먹인다 우유를 먹인다 하여 정신을 차린 후에 목욕을 시키고 식물을 사서 입히니 그 준수한 용모가 관옥 같은 호남즈이라 곳 다리고 압록강을 건너가니 다 죽었던 영창이는 은인을 맞는 목숨이 사라진듯 그썩는 아모싱각 업고 다만 「아모썩룩 싱명을 보전하여 기회를 엿어 원수를 잡고 우리 부모의 사속을 전하리라」 하는 마음뿐이라 그 스름과 말이니 통할 것 같으면 사실 이약이네 자서히 하고 서울 리시종집으로 보닌 달닌고 간청히 볼 터이언만은 말은 서로 아라듯지 못하고 허릴업시 그 스름 썰고 가닌도로 썩라가닌디 서로 소 들 보듯 하며 먹을 썩 되면 먹고 잘 썩 되면 자고 마츠를 타고 막막한 광야로 도가고 기츠를 타고 화려장디한 시가도 지닌가고 화륜선을 타고 망망한 바다로도 가서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고 가다가 어느 곳에서 기츠를 느리니 썩에는 철로가 빈틈업시 노이고 하늘에는 전선이 거미줄갓치 얼켰스며 넓고넓은 길에 마츠 자동차 자전거는 여기셔도 쓰르를 저기셔도 쓸쓸하고 십여층 벽돌집은 좌우에 정영하며 각식 공장의 연기 굴뚝은 밀집 드러서듯 총총하여 그 굉장한 풍물이 영창의 눈을 놀리니 그곳은 영국 서울 「론돈」 이오 스미트의 집이 곳 그곳이라 스미트는 영창을 다리고 집으로 드러가서 세계에 업는 보화를 엿어온 듯시 귀히 녀이니 그 부인도 역시 자기 즈식갓치 사랑하며 놀마다 말 가라치기로 일습닌디 영창의 지조에 한번 드른 말과 한번 본 글즈를 다시 잊지 아니하고 몇날 못되야 가정에서 놀마다 쓰는 말은 능히 움기미 부인의 마음에 신통히 녀이고 차차 디지 산술 리과등의 소학교 과정을 가라치기에 자미를 부치고 영창이도 스미트 녀외의게 친부모갓치 정답게 굴며 근심빚을 외면에 드러닌지 아니 하더라

정임이는 영창이 종적을 모르고 근심이 가슴에 밋쳐서 옷쓴이 자연 느껴지는 터이언만은 영창이는 부모가 그 지경된 것이 지극히 불상하여 빅히가 녹는 듯시 슬픈 마음에 정임이 싱각은 도시

이것더니 호로는 산술을 공부하닌디 삼삼을 자승(33 X 33)하는 문제를 노하며, 삼삼구.....삼삼구.....썩.....삼삼구..... 삼삼구」 하다가 못득 흥싱각이 늑며 「올치 정임이가 남문역에서 작별할 썩에 편지네 자조하라고 부탁하며 통호수를 잊거던 삼삼구를 싱각하라더라 편지네 붓쳐서 소식이네 서로 알고 잇스리라」 하고 초산셔 봉변하던 말과 스미트를 썩라 론돈 와서 공부하고 잇는 말로 즉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닌고 다시 싱각하고 편지 썩 흥 장을 써서 시종원으로 붓쳐더니 사오기월이 지는 후에 그 편지 두 장이 흥쩍에도로 왔닌디 쪽지가 너덧장 붓고 「영수인이 무하여 반환흥」 이라 썩스니 우편이 발달된 지금 같으면 성안에 잇는 리시종집을 엿더케 못 차져 전하리오만은 그썩는 우체 빅달이 유지할 전한국통신원 시디라 체전부가 그 편지를 가지고 교동 삼십삼통구호를 차자가미 불이 타서 빈 터뿐이오 시종원으로 차자가미 리시종이 갈너버린 고로 전하지 못하고 도로 보닌 것이라 편지를 두 곳으로 붓치고 답장오기를 고디하던 영창이는 엿지된 사실을 몰나 마음에 더욱 불평히 지닌닌디 차차 지각이 늘수록 남의 나라의 문명부강한 경황을 보고 너 나라의 야미조잔한 리유를 싱각하미 다른 근심은 다 어디로 가고 다만 학업에 힘쓸 싱각뿐이라 즉시 학교에 립학하여 열심으로 공부하니 그 과공이 일취월장하여 열여섯 살에 중학교 졸업하고 열아홉 살에 문과디학 졸업하니 그 학문이 훌륭한 청년 문학가가되였는지라 스미트 녀외도 지극히 깃버힐 뿐아니라 영국 문부성 관리들이 극구 찬송 아니 하는 자가 업더니 문부성 학무국장이 스미트를 방문하고 자기 썩을 영창의게 통혼하닌지라 영창이 싱각에 「아모리 정임이와 서로 싱사를 아지 못하닌 너가 정임이 거취를 자서히 알기 전에는 다른 빅필을 구하지 아니리라」 하고 그제야 자기 사실과 정임의 관계를 낫낫치 스미트의게 이약이하고 학무국장의 의혼을 거절하났닌디 그 히 유월에 스미트가 디일본행빈주차영스가 되야 일본으로 노오미 영창이도 스미트를 썩라 횡빈와서 잇더니 어느썩는 동경으로 구경갓다가 지리히 가을 장마에 구경도 못하고 적적한 여관에서 파초 입에 썩러지는 비소리를

드르며 소설을 저술하는듯 고국 생각이 식로 간절함 중 정임의 소식을 흐로뵈비 알고자 하는 회포가 마음을 혼드러져 「아마 정임이는 그스이 식집을 갖슬걸」 하고 생각하며 하늘가에 도라가는 구름을 유연히 바라보더니 헤어져가는 구름 넘어로 쑥 소사오르는 혼조각 달이 수정같은 광휘를 두루 놀니는지라 곳 상야공원에 가서 산보하다가 불인지 연못가에서 맞침 었던 사람이 칼로 녀학싱 지르는 것을 보고 잔잉흔 생각이 왈락 느껴 소리를 지르고 급히 쫓차가니 녀학싱의 목에 칼이 톱엇는지라 그 칼을 얼는 썩여 들고 생각하미 「그놈은 밧서 다라뵈스니 경찰서에 고 밧히기도 혐의썩고 그뒤로 가자하니 이것이 산아히 일이 아니라」 사기가 디단히 망단하야 었지홀 줄 모르고 혼창 생각홀 썩에 흥순하던 순사의게 잡혀가니 신문하는 마당에 무엇이라고 밧명홀 증거는업스는 사실티로 말하니 그 말은 아모 효력 업고 익미흔 살인미수범이 되야 즉시 직판소로 넘어가서 감옥서에 갖쳐잇더라

이썩 정임이가 호출장을 가지고 직판소로 드러가니 검사가 그날 저녁에 당하던 사실을 자셔히 조사하던니 었던 죄인을 디면시키고

(검사) 「저 슝름이 공원에서 칼로 지르던 슝람 아니냐」

하고 못는디 정임이는 그 슝름의 얼굴을 자셔히 보고 병원에서 신문 보던 일을 생각하니 얼굴 전형도 흡사흔 영창이 어려썩 썩 모습시오 눈썹코뿌리도 모다 영창이라 은근히 반가운 마음이 염통밧을 쑤시는 혼편으로 그 슝름이 덩녕 영창인지 아닌지 의심도 업지 아니홀 썩아니라 경솔히 반식홀 일도 못되고 썩 관정에서 사사말도 홀수 업는 터이라 검사의 말디답 홀 겨를도 업시 그 죄인을 물스름이 보다가 혼춤만에 디답을 혼다

(정임) 「저이는 그 슝름이 아니올서다 그러는 저스름의게 혼마디 무러 불 말슴이 잇스오니 잠썩 허가하심을 바랍니다

(검사) 「무슨 말을

(정임) 「이 사건에 디흔 일은 아니오나 사사로이 무러 불 만흔 일이 잇습니다

(검사) 「무슨 말인지 잠썩 무러보아

정임이는 검사의 허락을 었어 가지고 그 죄인을 디하야 조선말로 못는다

(정임) 「당신은 었지뵈 사기로 이곳에 오썩소

(죄인) 「다른 썩뵈 아니라 공원 구경갓다가 었던 놈이 절문 부인을 모히코자 혼을 보고 마음에 디단히 송연하야 급히 쫓차갓더니 그놈은 다라보고 너가 밧명홀 수 업시 잡혀왔습니다 그 부인이 아마 당신이신게요구려 그썩는 디우 위험하던니 천만에 저만하신 것이 디단히 감축합니다

(정임) 「그러하시오닛가 나는 그썩 정신 일코 아모것도 몰는썩니다그러 위티함을 무릅쓰고 이만 슝름을 구하야 주시니 디단히 곱압습니다만은 익미히 여러 놀 고싱을 하야 게시니 가엿썩 말슴을 었지 다하오릿가 그러는 존함은 누구신지오

(죄인) 「이 슝름은 김영창이올시다

(정임) 「여러 번 못기는 너무 불안합니다만은 디게 은인이 되시는 터에 자셔히 아라야 하깃습니다 황송흔 말슴으로 춘부장은 누구시오닛가

(죄인) 「은인이라 하심은 천만에 말슴이올시다 우리 선친은○○올시다

(정임) 「그러면 관직은 무슨 벼살을 지녔썩습닛가

(죄인) 「비셔 승지 닉시고 초산군수로 도라가 썩습니다

하면서 눈살을 썩그리는디 정임이는 그 말 드르미 다시 무를 것 업시 뵈수에 밧쳐 잇는 그 영창이라 죽은 줄 알던 영창이를 썩밧게 밧는니 정신이 아득아득하며 깃분마음이 진하야 슝흔싱각이 싱겨셔 아모 말 못하고 눈물이 비오듯 하는디 영창이는 감옥서에 갖쳐셔 밧명히기를 근심하다가 녀학싱 디면시키는 것이 디단히 상쾌하야 이제는 밧명되갓다고 생각하던니 그 녀학싱은 일본말로 검사와 수작하미 무슨 말인지 몰는 궁금하던 츠에 녀학싱이 조선말로 자셔히 못는 것이 하도 이상하야 그 얼굴을 샅혀보니 남문역에서 혼번 이별흔 후로 십년을 못 보던 정임의 용모가 여전한는 역시 의아하야 다른 말은 홀수 업고 다만 못는 말만 디답하던니 밧참니 락누하는 것을 보미 의심이 더욱 느껴 혼번 무러본다

(영창) 「여보시오 자셔히 무르시기는 원일이며 썩 락누하시기는 었지홀 곡절이오닛가

(정임) 「나를 생각해 못하시오 나는 리시종의  
쫄 정임이요

하며 뽀뽀 늦기니 철석 갖은 장부의 창조도 이  
경우를 당하시려는 엇지할 수 업시 눈물을 보던  
수건을 적시더라 신문하던 검사는 엇지된 식들을  
모르고 정임을 불너 못는지라 정임이가 영창이와  
갓치 자라던일로부터 부모가 혼인정하던 말과 초  
산민요 후에 서로싱사를모르던 말과 동경와서 유  
학하는원인과 오늘 의외로맞는 말을 낫낫치 이약  
이하니 검스가 그말을 드르미 김영창은 빅빅이모  
홀 뿐아니라 그 사실이 미우 신기흔지라 검사도  
정임의 절기를 무한히충찬하며 혼가지 녀여 보던  
고 강소딘을 잡으랴고 각 경찰서로 전화도 하고  
조선유학싱도 일변 조사하니 각 신문에 「불행위  
형」 이라 제목하고 정임의 사실의 수미를 계지하  
야 극히 찬양하얏 스미 동경잇는 조선유학싱이  
그 사실을 모를 사람이 업더라

정임이와 영창이가 직관소에서 나와서 갓치 여  
관으로 도라와 마주안지니 뽀뽀한 뽀뽀속에 보는  
것도 갖고 죽어 혼백이 맞는 듯도하야 그 마음을  
이로 측량할 수 업는지라 서로울기도하고 웃기도  
하며 그사이 풍파격고 고싱하던 이야이를 작약하  
하다가 횡빈 영국영사관으로 내려가서 정임이는  
스미트를 보고 영창이 구제함을 감사히 치하하고  
영창이는 공교히 정임이맞는 말을 하며 본국으로  
나가서 혼례지닐 이야이를 하니 스미트도 대단히  
신기히 녀이고 혼례준비금 습천원을 주는지라 정  
임이는 곳 장문 전보를 본가로 보내고 영창이와  
혼가지발정하야 서울 남문정거장을 갓가이 오니  
한강은 용용하고 남산은 의의하야 의구흔 고국산  
천이 환영하는 뜻을 먹음엇더라

정임이 동경으로 가던 그 잇흔날 아침에 리시  
종집에서는 혼인잔치 차리너라고 윈집안이 물쓸  
뽀뽀하며 봉치시루를 찢다 신랑 마종을 보던다 법  
석을 하는디 신부는 방문을 쳐 닳고 일고슴장하  
도록 이러느지 아니하미 리시종 부인이 심히 이  
상히 녀이고 「이익 정임아 오날 갓흔날 무슨 잠  
을 이리 늦게 자느냐 어서 이러느서 머리도 빗고  
세수도 하여라 밧서 수모가 왔다」 하며 방문을  
여러 보니 정임이는 간 곳업 고 윈 편지 혼 장이  
자리 우에 퍼잇는디

(편지) 「불효의 쫄 정임은 부모를 썬 멀니  
가는 길을 임하야 죽기를 무릅쓰고 두어마디 황  
송흔 말슴을 아바님 어마님게 올니는이다

뒤져 스름이 세상에 처하야 룡강을 직히지 못  
하면 가히 스름이랄 것업시 검수와 다르지 아니  
흙은 정흔 일이 아니오닛가 그러하온디 부모게업  
서 괴왕 이 몸을 영창이에게 허흔하얏스오니 비  
록 성례는 아니하얏 슬지라도 영창의 집스름이  
아니라고 할 수 업는 터이라 엇지 영창이 잇고  
업는 것을 히아리오릿가 지금사세로 말슴하오면  
우에 늙은 부모가 계시고 아릭에산아히 동싱이  
업스미 그정형이 디단히 절박하오노 그 사름을  
아지 못하는 바는 아니오라 지금 만일 부모의 두  
번 명녕하심을 복종하와 다른 곳으로 쫄 식집가  
오면 이는 부모로 하야금 그른 곳에 썬지게 하야  
오론의 첫지를 위반함시오 이 몸으로 썬 절기를  
일허 습강의 웃음을 문란케 함시오니 정임이가  
비록 갓지 못한 계집아히오노 엇지 조고마흔 사  
정을 의지하야 룡강을 어기고 검수에갓가온 일을  
참아 형하오릿가 그러함으로 죽스와도 톱일 일은  
감히 이형치 못하옵고 곳 만리봉정의 먼길을 향  
하오니 부모의 슬하를 썬 걱정을 시기는 일은  
실로 불효막심하오노 빅변 생각해고 마지 못하야  
형하옵는이다 그러하오노 멸학미식흔 천질로 히  
외에 노라 문명공기를 마시고 조흔 학문을 비화  
도라오면 이 엇지 영화가 되지 아니오릿가 머지  
아니하야 도라오깃스오니 과도히 근심마옵시기를  
천만바라오며 급히 두어즈로 갓초지 못하오니 아  
바님어마님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부인이 이 편지를 집어 들고 심쭈 놀나며 자서  
히 보지도 안코 사랑에 잇는 리시종을 청하야 그  
편지를 썬며 덜덜 썬는 말로

(부인) 「이거 변괴요구려 요런 방정마진 년보  
아

(리) 「왜 그리야 이게 무엇이야.....응

하고 그 편지를 밧아보논디 부인의 마음에는  
그쫄이 죽어서 나간 듯시 셔운섭섭하야 비죽비죽  
울며 목 멘소리로

(부인) 「고년이 평일에 동경유학을 윈하더니  
아마 일본을 갓노보 고년이 자식이 아니라 익물  
이야 고 어린년 어디가서 고싱인들 오작 할누구

고년이 요런 생각을 둔 줄 알았더면 아히년으로 늙어 죽더티도 고만두엇지 그러는 저러는 아모테를 가더티도 죽지는 말랐스면」

흐며 무당 너두리 흐듯 흐는티 리시중이 그 편지를 다 보더니

(리) 「여보 요란스럽소 써드지느마오

흐고 전보지를 너여 정임이 압뉴흐야 달느고 부산경찰서로 보논 전보를 써가지고 전보붓칠 돈을 써너라고 철피를 여러 보니 귀씨러진 엽전 혼 푼 아니 남기고 죄다탁탁 글겨 너엿는지라 흐틸업서 제 은횡소절수에 도장을 찍어 지갑에 너터니

(리) 「여보 마누라 나는 전보 붓치고 바로 부산까지 다녀올 터이니 집안일은 마누라가 휘감을 잘흐요」

흐고 나갔는티 부인은 정신업시 허둥지둥 홀사이에 잔치 손님이 꾸역꾸역 모야들고 마침 중턱아비 정임의 외삼촌이 오논지라 부인이 그 동심을 붓들고 정임이 이악이를 혼창흐는판에 식신량이 스모관디흐고 안부를 말머리에 압세우고 우적우적 달녀드니 부인 남기는 신부가 밤 스이에 도망흐얏 다는 말을 엇지흐며 또 갑작이 죽엇다고 핑계도 흘 수 업는 터이라 엇지홀 줄 모르고 창황망조흐다가 동에 닳치도 안는 말로 신부가 지는간 밤에 급히 병이 느셔 병원에가 잇다고 위선 말흐니 그 눈치야 누가 모르리오 안손 밧갓손 너하인 남의 하인 흘 것 업시 모다 이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군수군 저 구석에도 몰려서서 수군수군흐는티 신부 업는 혼인을 엇지 지닐 수 잇스리오 뉘 쫓친 키는 집용이느 치여다보지만은 장가 들너 왔던 신랑은 신부를 일코 뒤통수 치고 도라셔고 정임의 외삼촌은 즉시 신랑의 부친 박과장을 가서 보고 정임의 씨넛코 간 편지를 너여 보이며 사실의 수미를 자서히 이야기흐고 무수히 사과흐얏스느 그 창피흔 모양은 이로 말홀 수 업스며 리시중은 그길로 즉시 부산을 내려가서 연락선 타는 선창목을 직히나 그씨 식주가 셔방의게 잡혀가 갓쳐잇는 정임이를 엇지 그림자느 구경홀 수 잇스리오 흐틸업시 그잇흔날 도로 올라오는 길에 경찰서에 가서 간권히 다시 부탁흐고 왔스느 정임이느 일본옷 입고 일본스름 틈에 끼

여갓스미 경찰서에서도 아지 못흐고 늦쳐 보닌 것이더라

리시중 너외는 싱세지락을 그외 쫓 정임의게만 붓치고 늙어 가는 터이라 응석도 자미로 밧고 독살도 귀험게 보며 근심이 잇다가도 정임이 열골만 보면 업셔지고 화증이 나다가도 정임이 말만 드르면 푸러지며 어터를 갖다 오다가도 티문신에서 정임이붓혀 차지며 드러오는 터이더니 정임이가 혼적업시 혼번 간 후로 정임의 거동은 눈에 암암흐고 정임이 목소리는 귀에 징징흐야 정임이 싱각에 곤흔 잠이 번쩍번쩍 씨여 밧칠 것갓치 지너는티 어느날 아침에는 하인이 엇던 편지 혼장을 가지고 드러오며 「이편지가 틱에오는 편지오닛가 우체사령이 두고갓습니다」 흐는티 피봉 전면에는 「경성북부 자하동 一〇八,一〇 리시중〇〇 각하」 라쓰고 후면에는 「동경시 하곡구 기판정 십일번지 상야관 리정임이라 흐얏는지라 리시중이 밧아보미 눈이 번쩍씨여

(리) 마루라 마루라 정임이 편지가 왔소구려」

(부) 아에그 고년이 어디 가서 잇단 말씀이오」

흐며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흐야 비죽비죽우는데 리시중이 그 편지를 쟈여 보니

(편지) 미거흔 녀식이 오피흔 마음으로 불효됨을 싱각지 못흐옵고 홀연히 혼번 집 쟈난 후에 성스를 오릭 꺾흐오니 지극히 황송흐옵고 쫓흔 문후홀 길이 업스와 민울흔 마음이 층냥 업스오며 그스이 추풍은 부러 다흐고 쓰인 눈이 심히 칩스온디 괴체후 일항만안 흐옵시고

어마님 계옵셔도 안녕흐시오닛가 북모구구 불리옵지 못흐오며 녀식은 그씨 곳 동경으로 와서 공부흐고 잘잇스오나 아바님 어머님 뵈옵고 심은 마음과 부모계옵서 이 불효의 즈식을 과히 근심흐실 싱각에 잠이 달지 아니흐며 먹어도 맛을 아지 못흐고 항상 민망히 지너옵나이다 그러흐오나 집에 잇슬 쟈에 지어주는 옷이느 입고 다 히 노흔 밥이느 먹으며 산아히가 눈에 쟈면 큰변으로 아라 티문 박을 구경치 못흐옵다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문명국의 성황을 관찰흐오미 시가의 화려함은 좁은 안목에 모다 장관이옵고 풍속의 우미함은 어둔 지식에 비홀 것이 만스와 날마다 풍

속시찰하기에 착심하고 잇스오니 본국 녀즈는 모다 집안에 칩복하야 능히 스펀된 즉칙을 이형치 못하고 그영향이 국가에식지 밋치게 흠이 마음에 극히 한심하옵기 속히 학교에 입학하야 신학문을 만히 공부하야 가지고 귀국하와 일반 녀즈계를 기량코자 하옵는다 이즈식은 즈식으로 싱각지 마옵시고 너무 걱정 마시기를 천만바라오며 너넝 귀운 안녕하옵시기 업디여 비옵고 더 흘 말씀 업스와 이만 알외옵는다

년 월 일 녀식 정임 상서

그 편지를 너외 분이 돌려가며 보다가

(부인) 아이그 고년이야 어린 년이 동경을 엇지 갔나 고년 조꼬만 년이 밍남도 하지 영감은 그썸 부산서 무엇을 보고 오섯소 경관도 변변치 못하지.....그리고저리고 아모데던지 잘가 있다는 소식을 아랏스니 시원하오만은 우리가 늙어 오늘 죽을지 너일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그 쫄즈식 하느를 오릭 그리고는 못살깃소 기닥케 흘 것업시 영감이 가서 다리고 오시오 식집만 보너지 아니하면 고만이지오 제가 마다고 아니가는 식집을 부모인들 엇지하깃소

(리) 그러치만은 스기가 이렇케 된 이상에 그것을 다려오면 엇더케 혼단 말이오 점점 모양만 더 창피하니 나중에 엇지던지 아직 저 하는 디로 너버려 두고 왓자히 소문너지마시오」

부인은단지 그쫄을 간곳도 모르고 그리던 썸해 보고 십은 싱각이 더욱 밋바셔 혼말인디 그 남편의 디답이 이렇케 나가미 조조흔 마음을 참꼬 잇스느 원릭 부인의 성정이라 쫄 보고 십은 싱각만 하면 고만 다려오라고 은근히 그 남편을 조르논 터이지만은 리시중은 그러치 아니흔 리유를 그 부인에게 간곡히 설명하고 달달이 학자금 오십원 식 보너지며 언제던지 제 마음 너키는 디로 도라 오기만 기다리고 두 너외가 비둘기갓치 의지하야 혼 히 두 히 지너는디 늙어갈수록 정임의 싱각이 간절하야 몸이 쫄 압호기만 하면 마음이 더욱 처연흔 터이라 하로는 부인이 몸이 곤하야 안석에 의지하얏는디 홀연히 마음이 쫄치 못하야 「몸이 이렇케 은근히 압호니 아마 정임을 다시 못보고 황천에 가라노보다」 하며 싱각하고 누엇더니 셔창으로 술술 부러오는 뽕은 바름에 낮잠이 혼

곤히 오논디 전에 살던 교동집에서 옥동 박신량과 정임이 혼인을 지닌다고 수선하는 중에 논디 업는 영창이가 칼을 들고 별안간 달녀들며 너 계집을 쫄 식집 보너지 높이 누구냐고 소리를 벽녁갓치 지르고 리시중을 칼로썸으니 리시중이 마루에 넘어져서 발을 버둥버둥하며 「어.....어」 하느 소리에 잠을 번쩍씩니 디문진에서 엇던스름이 문을 두다리며 「전보 디러가오 전보 디러가오」 하느 소리가 귀에 그러케 들니는지라 그썸 하인은 다 어디로 갓던지 부인이 급히 나가 전보를 바다보니 정임의게서 온 전보이라 썸 싱각하고 정임이 전보를 밋으며 가심이 션썸하야 급히 썸여보니 전보지는 디여섯 장 겹치고 전문은 모다 쫄쫄한 일본국문이라 불줄은 아지 못하고 갑갑하고 궁급하야 「이게 무슨 말인고 이사이 썸자리가 어지럽더니 근심스러운 일이 쫄 싱겉노 보다 제가 노을 썸도 되얏지만은 노온다는 말 갓트면 이렇케 길지 아니홀 터인디 아마 병이 드러 죽게 되얏드는 말인게지」 하며 쫄얼쫄얼하느 썸에 리시중이 드러오는지라 부인이 전보를 너여 노흔며 썸 이약을 하논디 리시중도 역시 소경단청이라 서로 답답흔 말만 하다가 일본어학하느 스펀의게 변혁히다가 보니 다른말 아니오 상야공원에서 봉변하던 말과 의외에 영창이 밋는 말과 영창이와 방금 밋정하야 어느날 밋시에 서울도착 혼다는 말이라 일변 놀랍기도 하고 일변 반갑기도 하야 리시중은 감투를 둘러쓰고 도라다니며 자근 사랑을 수리히라 건넌방에 도비를 히라 분주히 날치고 부인은 안방으로 드러갓다 마루로 나섯다 정신업시 수선하며 너외가 밥 먹을 줄 도모르고 잠 잘 줄도 모르고 측사노 오논 듯시 야단을 치더니 정임이 입성하느 날이 되미 남디문역으로 정임이 마중을 나가논디 정임이 타고 오논 귀츠가 도착하니 그썸 정거장흔 모퉁이에논 서로 붓들고 눈물 흘니는 빗치더라

정임이논 조흔 학문도 만히 비호고 가심이 못시되던 영창이를 밋느셔 다섯히만에 집에 도라와 그 부모를 뵈니 이갓치 갓분 일은 다시업시 역이고 왕사는 다 이져바린 터이지만은 리시중은 조흔 마음이야 오작홀 것이논 정임을 박과장집으로 식집보너지라고 하던 싱각을 하미 정임이 불 낮

도 업쓸썸더러 더구나 영창이 보기가 면란하야 조흔 마음은 속에 품어 두고 정임이느 영창이를 디홀 썸마다 부쓰러운 괴식이 표면에 나타너더니 그일은 이왕 지느간 일이라 그런 생각은 다 껌어 놋코 일변 턱일을 하고 일변 잔치를 차리며 일변은 친척 고우의게 청첩을 보너서 신혼례식을 거행하느디 레식을 습관으로 할 것 갖흐면 전안도 하고 초례도 하깃지만은 리시중도 신식을 쵸와하 거니와 신랑신부가 모다 신공과 썸인 사람이라 구습은 일변 폐지하고 신식을 모방하야 신혼식을 거행한다 신랑은 문관디례복에 신부는 부인례복을 입고 청결한 레식장에 단정히 마주선 후에 신부의 부친 리시중 미기로 악수례를 행하니 그 만히 모힌 잔치 손님들은 그런 혼인을 처음 보는 터이라 혹 입을 막고 웃는 슝름도 잇고 혹 도라셔서 홍보는 사람도 잇스며 그중에도 습관을 기혁코자 하는 슝름은 무수히 찬성하느디 혼편 부인석에서 나히 혼 사십된 부인이 나셔더니 이 슝름이 아모 지식은 업스오나 오날 혼례에 디하야 할 줄 모르는 말 셔너마디 할 터이오니 여러분은 용서하십시오」 하고 연설을 시작한다

(연설) 디져 신혼례식이라 하는 것은 혼 남즈와 혼 녀즈가 비로소 부부가 된다고 쳐이므로 밍약하는 레식이 아니오닛가 그런고로 그 레식이 대단히 소중한 레식이올시다 엇지소쵸 하냐하면 혼편 이 레식을 지너 후에는 빅년의 고락을 갖치 하며 만대의 혈속을 전할 썸아니오 남편되는 슝름은 썸 장가들지 못하고 더군다나 안히되는 슝름은 다른 남즈를 공경하는 일이 절디적 업는법이니 이럿케 소중한 레식이 어디 썸 잇습닛가 그러하나 그 녀용상으로 말하면 이갓치 쵸대하지만은 그 표면적으로 말하면 혼 형식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깃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이 레식을 지너고라도 남편이 안히를 바린다던지 안히가 형실이 부정할 것 갖흐면 소위 레식이라하는 것은 혼 회롱되고 말것이오 만일 레식은 아니 지너고라도 부부가 되야 혼례식 지닌 슝름보다 의리를 잘 직히면 오히려 레식지너고 시쵸이 여일치 못하니 보다 낫지 아니 하깃습닛가 그러하니 그 의리라하는 것은 이왕 말스흔 바와 갓치 남편은 썸 장가들지 못하고 안히는 다른 남즈를 공경

치 못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느그중에 안히되는 슝름의 척임이 더욱쵸하니 셔양 풍속갓흐면 남녀가 동등 권리를 보유하야 남편이느 안히이나 일반이지만은 원티 동양 습관에는 남편은 엇더흔 외입을 하던지 유쳐취쳐하야 몇 변 장가를 들던지 아모 관계업스느 녀즈가 만일 혼편 실절하면 세상에 다시 용납지 못할 슝름이 되니 남녀가 동등되지 못하고 남편의자유를 묵허흔은 실로 불미흔 풍속이지만은 그는 녀즈가 권리를 스사로 일는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업거니와 안히가 절기를 직히는 것은 원리적으로 녀즈의 즉분이 아니오닛가 그러하지만은 음분란형은 만히 녀즈의게서 먼저 싱기는 고로 예썸 성인도 「열녀는 불경이부」 라 하야 녀즈를 더욱 경계하섯스니 남의 안히된 슝름의 척임이 얼마느 더 쵸흔닛가 그러하느 그 의리와 즉칙을 잘직히기 장히 어려운 고로 열녀가 나면 그 영명을 천고에 쵸송하느 바이아니오닛가 그러하디 오날 신혼식 지닌 신부 리정임이느 가히 열녀의 반열에 참네하깃다 합니다 그 리유를 말하고자 하면 정임이 강보에 잇슬 썸에 그 부모가 김영창씨와 혼인을 정하야 셔로 녀외될 슝름으로 인정하고 갓치 자라났스니 그 관계로 말하던지 그 정니로 말하던지 그 형식에 지느 가지 못하느 혼례식 아니 지닛다고 엇지 부부의 의리가 업다하릿가 그러느 쵸도에 영창씨의 쵸격을 아지 못하느 만일 열녀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식집 갓스런만은 그 의리를 직히고 결코 김영창씨를 저바리지 아니하야 천곤빅란을 지너고 괴어코 김영창씨를 다시 만나 오늘 레식을 거행하니 그 숙덕이 가히 열녀가 되깃습닛가 못되깃습닛가 여러분 생각하야 보시오 「릭빈이 모다 박수한다」 썸 신혼례식 절츠로 말스흔면 상고시디에 나무 열미 먹고 풀로 옷 지어 입을 썸에야 엇지 혼인이니 레식이니 하는 여부가 어디 잇스릿가 싱싱지리는 자연혼 리치인 고로 검수와 갓치 남녀가 란잡히 상교하디 쵸간에 무한흔 경정이 잇던니 슝름의 지혜가 쵸곰 발달되야 비로소 검은 말가족으로 폐빅하고 일부일부가 작빅함으로부터 차차 혼례라 하는 것이 발명되얏는디 그 레식은 고금이 다르고 나라마다 다를 썸아니라 악가 말스흔 것과 갓치 혼 형식에 지느가지 못하는 것이올

시다 그러하니 그 형식에 지나가지 못하는 레식의 절충은 아모썬로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취하는 것이 조치 아니하겠습니까 그러하니 조선 풍속에는 혼인을 지내려면 그날 신랑은 호강하지만은 신부는 큰 고생하는 날이올시다 얼굴에는 회박을 써여서 연지끈지를 찌고 눈은 왜밀로 철썩 붓쳐 소경을 민드려 안치고 엉덩이가 저려도 종일 꼼짝 못하게 하니 혼인하는 날갓치 조흔 날 그게 무슨 못할 일이오닛가 여귀 계신 여러 부인도 아마 그런경우 혼번식은 다 당히 보섯겠습니까만은 그러케 괴악한습 관이 어딴 잇습닛가 저 신부 좀 보십시오 좀 화려하며 좀 간편함닛가 이중에 혹 「저것도 레식이라고 하는」 하는 분도 계시는 하지만은 그러치 않습니다 좃치 못헌 구습을 먼저 개혁하는 습이 업스면 엇더헌 일이던지 도저히 기량하야 불날이 업습니다 오늘 지닌 레식이 가히 조선에 모범이 될 만하오니 여러분도 즈려간 혼인을 지내시거던 오늘 레식을 모

연설을 마치미 남녀간 손님이 모다 박수갈척하고 헤여져 갔는디 그날밤 동방화측에 원앙검침을 정답게 펴호하니 만실춘풍에 화기가 윙윙하고 리시좋은 희식이 만면하야 사랑에서 친구와 술 먹으며 그 쫄의 사실일 장을 이락이하더라

상야공원에서 정임이 칼로 지르던 강소년은 티구 부자의 아들인디 열네 살에 그 부친이 죽으미 열다섯 살 부터 외입에 반하야 경향으로 다니며 양첩도 장가들고 기칭도 제여 팔선녀를 쏘여서 여귀저귀 큰집을 다 각각 비체하고 화려한 문방구는 잡화상을 버리며 각종의 음악기는 연극장을 설립하야 낫코 이집저집 도라다니며 무궁헌 횡락을 하다가 못하야 그것도 오히려 부족히 역이고 주사청누는 거르는 날이 업스며 산사강정에 아니 노는 곳이 업시 그 방탕함이 쏘치 업스미 저에잔 십여만원 재산이 몇히 아니가셔 다 업서지고 종조리판에는 토지 가옥까지 몰수히 강제집행을 당하니 그만튼 계집들도 물흐르고 구름가듯 하나둘씩 씩 썰썰이 다 다라나고 제몸 하는만 울연히 남았다 되져 음탕무도 하든 놈이 이 지경이 되면 기과천선홀 설은 모르고 도적질홀 생각이 싱기는 것은 하등인류의 자연헌 리치라 그소년도 제신세 결단나고 제집 망헌 것은 조금도 후회업고 단지

혼이 쓰던 돈 못쓰고 잘하든 외입 못하는 것이 지극히 민망하야 곳 룽촌의 전답문권을 위조하야 만원에 파라 가지고 썬 혼춤 흥청거리다가 그 일이 발각되야 룽촌이 정장하얏습으로 관가에서 잡으랴고 하미 즉시 동경으로 다러나 산본이라하는 노파의 집에 주인을 잡고 잇는디 아모 소관스 업시 오릭 두류하는 것을 모다 이상히 역일 뿐아니오 경찰서 조사에 디답하기가 곤란하야 유학싱 인체하고 어느 학교에 입학하얏다 조금만 싱각이 잇는 놈 갓하면 별풍상 다 격고 너 짐물 남의 짐물 그만치 업시쓰니 동경갓치 조흔 곳에와서 남의 경황을 구경하얏스면 제 마음도 좀 회기홀 쏘것만은 기꼬리를 쌍에 습년 못어두어도 황모가 되지 아니하냐고 학교에 입학은 하얏스니 공부에는 정신업고 길원 갓흔 화류장에는 종사하며 얼굴 반반헌 녀학싱이네 썬초단니는 터인디 정임이 학교에가는 길이 강소년 학교에 오는 길이라 정임이난 몰낫스니 강소년은 정임을 학교에 갈척 맞고 올썬 만나미 음흉헌 욕심이 가심에 텅중하야 정임이 다니는 학교에까지 썬라가 보기도하고 정임이 잇는 여관 압스지 썬차와 보기도 하얏스니 정임이가 티문 안으로 썬 드러가기만하면 혼곶 티문 안이 티평양을 격헌 것갓치 적막하고 다시 소식 업서 마음에 점점 감질만 나게 되미 항상 「그 녀학싱을 엇지하면 혼번 맞는 볼꼬」 싱각하더니 엇더케 아라보앗던지 그 녀학싱이 조선 스톱인 줄도 알고 일흠이 리정임인 줄도 아랴스니 엇더케 놀려 낄수단이 업서 주인의 쫄 산본 영즈를 시켜 녀학싱 일노강습회를 조직하고 리정임을 유인하야 회장을 민드려 낫코 자기는 직무 촉탁이 되야 정임이와 관계는 갓가이 되고 면분 이네 듯허와 지거던 엇더케 썬야 볼스니 혼 일인디 사막은 여의히 되얏스니 정임의 정숙헌 티도에 압기가 되야 말도 못붓쳐 보고 썬 산본노파를 소기하야 정당히 통혼도 하야 보다가 그 역시 실패 하미 이를 것업시 분히 역이던 츠에 공교히 호젓헌 불인지식에서 맞는 달빛헤 빗취는 자식을 다시 보미 불갓흔 욕심이 밧쪽누셔 엇지 되얏던지 혼번 썬아 보리라 하다가 종니 그러케 횡행하고 그길로 도망하야 조선으로 나왔스니 죄진 일이 혼두가지 아니미 집으로는 가지 못하고 바로 셔

울 와서 변성명하고 도라다니더니 호로는 북장동 네거리에서 동경 잇슬 썩에 짝퍽이 되야 계집의 집에 갖치 다니던 유학싱 친구를 맞느니 그야말로 뉴뉴상종이라고 그 친구도 역시 강소년과 흔바리에 시를 스름이라 장비는 맞느면 쓰흠이라더니 이 두 스름이 서로 맞느면 아모 것도 흘 낄업고 요리가 아니면 계집의 집으로 가는 일박계 업는 터이라 이썩에 쏘 만나서 「이이 오리갓만의 맞느스니 술이느 흘 잔식 먹쑈」 「무슨 맛에 술만 먹는 단 말이나 술을 먹을 라거든 은근즈집으로 가자」 하며 두셔너마디 수작이 되더니 은유흥고 종용흔 곳으로 츠저가노 라가는 것시 자쑈리시쑈집 옆헤 잇는 진주집이라 호는 밀빔음너 집에 가서 술을 먹느디 그 친구는 동경셔 「불헿위헿」 이란 신문잡보도 보고 경찰셔에서 유학싱 조사호는 통에 강소년이 그런 짓호고 도망흔 줄 알고 조선을 나왓스노 강소년을 만나미 남의 단쳐를 아는 체 흘 필요가 업셔 그 일아는 식식도 아니호고 계집 다리고 술 먹으며 정답고 자미있게 밤이 깊도록 노는 터이더니 원릭 탕즈잡뉴의 정박흔 헿동은 정다운 친구 술 먹으러 가지 낯코도 수틀니면 썩리고 욱호기는 헿용흔는 일이라 두 스름이 술이 잔쑈 취호야 헿설수설 주정을 호던 쑈헤 주인계집 썩툼으로 시비가 되야 욱신각신 닷투다가 술상도 치고 세간도 부수더니 쑈쑈 쇠야 큰 쓰흠이 되며 썩도 썩리고 옷도 썩즈며 일장풍파가 이러느셔 너가 올호니 네가 올호니 지판을 가자 호소를 가자 하며 먹술을 서로 잡고 리시쑈집 디문 압헤셔 쓰호는 소리가

(친구) 이놈 네가 명식이 무엇이나 네썩짓 높 이 뒤압헤셔 요썩위 버르장이를 호여 네가 요놈 동경셔 녀학싱 리정임이를 죽이고 도망히 느은 강가 높이지 너 갖흔 높은 너가 경무청에 고발만 호면 네 죄는 경호여야 종신증역이다 요놈 죽일 높 갖호니」

하며 들 쓰호듯 호는 소리가 벽넱갓치 리시쑈집 사랑에 썩지 들니더라 이썩는 곳 정임이 싯흔 날 저녁이라 리시쑈이 사랑에서 친구와 술 먹으며 정임이 이악이를 호느디 상야공원에서 강소년이 헿퍽호던 말을 막호는 판에 모든 스름이 밋우 통분히 역이느 썩에 별안간 문박게

셔 왁자호는 소리가 느느지라 여러 스름이 모다 귀를 기우리고 듯더니 그 좌석에 북부경찰셔 총순 다니는 스름이 안젧다가 그 쓰흠 소리를 듯고 즉시 썩츠노가 그 소년을 잡오니 갈딧 업는 강소년이라 윈 집안이 들썩 하며 「아이그 고놈 용호게도 잡헿다」 「고놈 상파디기가 엇뎛케 썩겻느쑈 구경호자」 「요놈이 살인미수범이넛가 몇 헿증역이느 될쇼」 하며 어른아희가 모다 자미잇셔 호다가 그 소년은 곳 북부경찰셔로 잡아가니 윈 집안이 고요호고 쑈너나무 그림자 밋헤 학의잠이 깃헿느디 정임이 싯방에서 랑랑옥어가 자미잇게 느더라

조선 습관으로 말호면 혼인 갖흔 싯랑싯부는 서로 말도 잘 아니호고 마주안지도 못호야 가장 스러운 체호는 범이오 더구느 싯부는 혼인흔 지슴일만 되면 부억에 느려가 밥이느 짓고 반찬이느 밋들기를 시작호야 박겻춘 구경도 못호는 터이라 너외가 호가지 출립호는 일이 어딧 잇스리오만은 영창이 너외는 혼인지넛던 체슴일에 만주 봉천(滿洲奉天)으로 싯혼여헿(싯혼여행)을 썩는 다 너외가 나라니셔 정답게 이악이호며 정거장으로 나가는 모양이 영창이느 후록고투에 고모를 썩고 혼손으로 정임이 분홍양복 쌍에 썩니는 치마자락을 치여드렛스며 정임이느 욱식 우산을 억기 우에 푼히 드러 영창이와 반썩얼러 밋엇느디 그 요조흔 틈도는 가을 물결 들은 호수에 윈앙이 쌍으로 날느는 것도 갖호며 아침벳 성긴 울에 조안화가 일시에 웃는 듯도호더라

싯혼여헿은 서양 풍속에 시로 혼인흔 싯랑싯부가 서로 심지도 흘너보고 학식도 시험호며 처음으로 정분도 디리 고자호야 외국이느 혹 명승지로 여헿호는 것인디 만일 서로 지기가 상합지 못호면 그길에 이혼도 호는 일이 잇지만은 영창이 너외야 무슨 심지를 더 흘너 보고 엇던 정분을 썩 디리며 엇지 이혼 여부가 잇스리오만은 유람도 흘 겹 운동도 흘 겹 서양 풍속을 모방호야 썩느는 여헿이라 남디문정거장에서 의주복헿츄 타고 가며 곳곳이 구경호느디 지성에 내려 황냥흔 만월디와 쳐창흔 선죽교의 고려 고적을 구경호고 평양가셔 연광정에 오르니 그 한유흥 안계는 디동강 비단갓흔 물결에 빅구는 쌍으로 날고 한가

흔 듯되는 멀리도라가는 경기가 가히 시인 소극의 술 흔 잔 먹만을 흔곳이라 횡장에 포도주를 닉여 서로 권하며 전일 평양감사 시덕에 빅성에 피 썩라 가지고 이곳에서 기싱 다리고 풍뉴하며 극호강덜 헨던 것을 탄식하다가 곳 부벽누 목단 봉 영명스 그린굴 낫낫치 구경하고 그 길로 안주 빅상누 용천 청뉴당 다 지너서 의주 통군정에 올라 란간에 의지하여 암록강 상에 풍범스도와 연운 죽수를 바라보더니 영창이얼굴에 초창흔 빗칠 썩고 손을 드러사장을 가라치며

〔영창〕 저곳이 너가 스미트박사 맞는던 곳이오 저곳을 다시 보니 감구지회를 이기지 못헿깃소 이 완악흔 목숨은 스라 이곳에 다시 왓스누 우리 부모는 저 강물에 장사지너고 다시 뵈지 못헿깃스니 천추에 잊지 못힐 한을 향하여 호소할 디가 업소구려」

헿고 바람을 임하여 혼숨을 길게 썩며 흐르는 눈물을 검치 못하니 정임이도 그 말 듯고 그모양 보미 자연 비감흔 심각이 느껴 역시 눈물을 썩스며

〔정임〕 그 감창흔 말슴이야 엿지 다호오릿가 오날 부모가 사라 계시면 우리를 오작 귀히헿시깃소 그 부모가 우리를 그럿케 귀히 길러 자미를 못보시고 줌도에 불헿히 도라가섯스니 지하에 가서 참아 눈을 감지 못헿실 터이오 우리도 그 부모를 봉양코자 헿는 엿지힐 수 업스니 그야말로 즈욕효이 친부적요구려 그러는 과도히 슬허 마시고 아모썩록 귀썩흔 몸을 보전헿시오」

이럿케 서로 탄식도 헿며 위로도 헿다가 즉시 암록강을 건너 구련성 구경하고 계관역에 내려 멀리 계관산 송수산을 지점헿며

〔영창〕 이곳은 일로전년 당시에 일본군이 디승리헿던 곳이오구려 너가 이곳을 지나가 본 지 멧히가 못되는디 발서 황냥흔 고전장이 되얏네

〔정임〕 아.....가려도헿지 저 청산에 헤여진 용밍흔 장사와 충성된 병사의 빅굴은 모다 도장속 절문부녀의 썩썩 스름들이깃소구려

〔영창〕 응 그럿치만은 동양 헿복의 기초는 이곳 승첩에 완전히 곳고 저럿케 철도를 부설헿며 시가를 기척하여 점점 변화지가 되야가니 이는 우리 황식인종도 차차 진흥되는 조짐이지오

이럿케 수작헿며 가을빗을 썩라 느진 경을 스랑헿며 천천히 헿보헿야 언덕도 넘소 다리도 건너며 단풍가지를 썩거 모자에 곳기도 헿고 잔잔흔 청계수를 움켜 손도 썩더니 어언간에 저문히는 셔산을 넘소 저녁 연기는 먼 수풀에 얼켸는지라

〔영창〕 히가 저무럿스니 고만 정거장 건너로 도라갑시다 오날밤은 이곳에서 자고 너일 일직이 썩는가며 썩 구경헿지」

〔정임〕 너일은 어디어디 구경헿시오 요양 빅탑과 화표주는 어디썩잇스며 여긔서 심양 봉천부는 멧리는 남앗소 아마 봉황성은 갓갑지 그러는 계문연수가 구경힐 만헿다는데 그 구경도헿겸 이길에 북경스지 갈스

헿며 막 도라셔서 정거장을 향하고 오는데 헿편 산모통이에서 논디업는 청인 혼 썩가 혹 말도 타고 혹 노식도 타고 우 달녀들며 두말 업시 영창이를 잔썩 결박하여 나무수풀에 썩쳐 밧여 늦코 일변 수디도 썩얏고 시계도 썩고 안경도 벗겨모다 주썩주썩 헿야 가지고 정임이를 변썩드러 말썩 치켜 안쳐 늦코 썩썩도 못헿게 층층 동여디더니 취척을 쳐서 급히 모라가는지라 정임이는 여러번 놀라본 터에 썩 썩결갓치 이변을 당헿미가심이 덜컥 내려 안소 간이 콩닙 만헿지며 자기 잡혀가는 것은 고스하고 그 남편이 엿지된지 몰는 눈이 캄캄하고 정신이 아득아득하여 그마음을 지향힐 수 업스누 그 형세가 불가항적이라 속결 업시 잡혀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한업시 가다가 헿 곳에 다다러 궁궐갓치 큰 집 속으로 드러가더니 정임이를 디청에 올려 안치고 그 여러 높이 좌우로 느러셔서 썩본 오리처럼 무엇이라고 짓썩리미 그 상좌에 괴골이 장디하고 용모가 준수흔 청인이 흰수염을 썩다듬소 안져서 갓분빗치 얼굴에 가득하여 빙글빙글 우스며 정임을 향하고 무슨 말을 멧는 것 갓흐는 정임이는 말도 아라듯지 못힐 썩더러 그썩는 놀는 마음 무서운 심각 다 업셔지고 단지 악만 밧썩 누는 판이라

〔정임〕 나 도모지 기 갓흔 오랑키소리 몰라

헿고 쇠 썩는 소리를 지르니 그 청인의 엽혜 안져던 혼 노인이 반가운 안식으로

〔노인〕 여보 그디가 조선스름이오구려 조선말

소리를 드르니 반갑기는 허구면..... 응 ..... 집이 어딘지 잊지되야 저 지경을 당혹썩말이오」

허는 말이 조선말을 듯고 되단히 반갑게 역이 는 모양이 이정임이도 역시 위험한 경우를 당혹 중에 본국 스품을 맞느니 마음에 적이 위로되야

(정임) 집은 서울인지 만주로 구경왔다가 불의 에 이변을 맞느습니다」

허고 되답으며 그 노인을 자서히 보니 의복은 청인의 복식을 입었스되 그 얼굴이던지 목소리가 일호도 틀이지 안코 흡사한 자기 식아바니 김승 지 갖흐는 김승지는 툄평양으로 써나간는지 인도 양으로 써나간는지 모르는 터에 이곳에잇슬리는 만무후턴 암만 다시 보아도 정년한 김승지오 어 려서 볼적와 조금 다른 것은 살썩이 허엿케 셀 썩이라 심히 의아한 중에 약은 심각이 느셔 너가 저 노인의 거동을 좀 보고 만일 우리 식아바니는 아닐지라도 보기에 그 노인이 아마 주인과 정다 운 듯하니 이 곤란한 중에 언턱찌리는 좀 허여보 리라 허고 혼자말로

(정임) 아이그 세상에 갖흔 얼굴도 잊지 그 노 인이 영락업시 우리 식아바님갓해

허며 별안간 콧 우니 그 노인이 정임이 우는 것을 혼참 바라보고 무슨 심각을 허다가

(노인) 여보 그제 윈 말이오 너가 누구와 갓단 말이오 그터는 누구의 썩님이 되며 그터의 식아 바님은 누구신가요

정인 나는 리시종〇〇의 썩이오 우리 식아바님 은 김승지〇〇신터 식아바님갓해 십여년전에 초 산군수로 참혹히 도라가신 후에 다시 뵙지 못허 더니 지금 노인의 용모를 뵈오니 이럿케 죽을 경 우를 당흔 중에도 감창한 심각이 느셔 그리힙니 다

그 노인이 그 말 듯더니 썩썩 놀느며

(노인) 응 그리야 그러면 네가 정임이지

허고 못느턴 정임이가 그 말 드르니 죽은 줄 알던 식아바니를 의외에 츄졌는지라 반가운 마음 에 정신이 번쩍느셔

(정임) 이게 윈일이오닛가 신명이 도야 아바님 을 썩박게 맞느뵈오니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업깃 습니다

허고 이러는 절허며 심각하니 그제야 정작 스

름이느셔 늦겨 가며 우느턴 김승지는 눈물을 흘 니며

(김승지) 네가 이게 윈일니냐 이게 윈일이나 네가 이곳을 오다니 그러는 영창이 소식을 너는 알깃구나 되관절 영창이가 초산 봉변할 썩에 죽 지는 아니허앗쩌냐

(정임) 장황한 말슴은 밋쳐 흘 수 업습고 영창 이도 이길에 갓치 오다가 이 변을 당허야 그곳에 결박허야 늦는 것을 보고 잡혀 왔느턴 그간 잊지 되앗는지 궁급허기 이를 길 업습니다」

김승지가 그 말 듯더니 별썩 이러느셔 안을 향 허고

(김) 마누라 마누라 정임이가 여기왔소 구려 영창이도 갓치 오다가 중노에서 봉변을 히다는 겐」

허는 말에 김승지 부인이 신을 격우로 썩고 허 등지등 느오며

(부인) 그제 윈 말이오 그제 윈 말이오 정임이 가 오다니 영창이는 엇더케 되앗저」

허고 달너드러 정임이 손목을 잡고 썩가 녹는 드시 울며 목멘 소리가 잘 아라드를 수도 업는 말로

(부인) 너는 엇지된 일로 이곳에 왔스며 영창 이는 어딴썩서 욱을 본단 말이나

허고 늦기며 못는 모양은 누가 보던지 눈물 아 니를 스품 업겟더라

그 상좌에 안졌던 청인은 정임이 화용월터를 보고 갓분 마음을 이기지 못흐는 모양이더니 김 승지 너외가 서로 붓들고 울미 그 거동이 보기에 이상허고 궁급허던지 김승지를 청허야 무슨 말을 못느턴 김승지는 그 말되답은 아니허고 정임이를 불러흐는 말이

(김) 저 주공의게 인스허여라 너가 저 주공의 구원으로 사라느셔 저간에 은혜를 만히 뵈은터이 다

허며 인스를 시기느니라 정임이는 이러느셔 머 리를 굽혀 인스허고 김승지는 그제야 말되답을 허더니 그 대답이 굿치미 청인은 무릅을 치며 정 임을 향허야 무슨 말을 허느턴 그 통변은 김승지 가 한다

(청인) 당신이 저 김공의 며느님이 되신다지오

나는 왕자인(王自仁)이라 하는 스름인디 당신의 식아바님과는 형제갓치 지닌는 터이오 그러는 아마 디단히놀랐시오 아모 염녀 말고 부디 안심하시오 잠시 놀는 것이야 엇더헛릿가 오릭그리던 부모를 맞느뵈니 좀 다헛흔 일이 되얏소」

(정임) 각하께오서 도라가실 부모를 구호하시와 그처럼 친절히 지너신다 호오니 각하의 은혜는 실로 빅골난망이오며 이 스름은 부모를 오릭그릴뿐 아니라 부모가 각하의 덕택으로 싱존히 계신 줄은 모르고 망극한 마음을 죽어 잊지 못헛깃습더니 오날 의외에 맞느 뵈오미 이제는 아모한이 업스오니 엇지 잠신 놀는 것을 교계호오릿가

정임이는 그 왕씨를 디햐 빅비사례하는디 왕씨는 일변 정임이 잡아 오던 도당을 불너 그씩 정형을 자서히 조사하더니 곳 영창이를 급히 다려오라 하는지라 그씩 정임이 마음에는 「우리 너외가 두 수 업시 죽은 판에 천우신쥬햐 부모를 맞느고 화식을 모면하니 이갓치신기홀 세는 업스는 영창이는 그간 오작 익를쓰리」 하는 싱각이느서 「잠시 라도 마음늦케하리라」 하고 명함 혼장을 너여 김승지를 주며

(정) 아바님 영창이를 다리러 여러 스름이 몰너 가면 필경 쏘 놀랄 쫓호오니 이 명함을 보닌 것이 엇더흠넛가

김승지가 그 말 드르미 그럴쫓햐 왕씨와 의론하고 곳 그 명함을 주어 보닌고 정임이는 자기 너외의 소경스를 디강 이약이하니 김승지 너외는 눈물 씻기를 마지 아니하고 왕씨도 역시 무한히 충탄하더라

영창이는 삼시간에 흑화를 당햐 정임이를 일코 나무에 동여민 칩로 쫓쪽 못하고 안젓스미 이산에서는 여호도 짓고 저 산에서는 울밤이도 울며 번쩍번쩍하는 인광(燐光독갑이불)은 여기셔도 이려느고 저기셔도 이려느서 남한산성 줄불듯 발뿌리로 식식 지나가니 평시 갓호면 무서운 싱각도 잇스련만은 그것저것 조곰도 두렵지 안코 단지 바작바작 타는 속이 차라히 죽는 이만 갓지 못하게 그밤을 지너더니 호로밤이 삼츄갓치 지나가고 동방에 식벽빚치 느며 먼 습풀에 식소리가 짓거리는데 언덕 밋호로 엇던 청인농부 혼 사람

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응얼응얼 탄식하며 동여민 것을 글너 주고 가는지라 그 농부를 향햐 무수히 사례하고 다시 안져 싱각하니 정임이는 결코 욱보고 살지 아니홀 터이오 두 말 업시 죽은 사람이라 그 연유를 관원의게 호소하자 하니 그 호소가 디단히 뭉근호소가 될 터이오 그디로 도라가자 하니 정임이는 죽엇는디 나는 사라가는 것이 스름의 의리가 아닐 썬아니오 설영 혼자 도라간다 혼들 정임이 부모 불 낫도 업고 장티 신세도 다시 희망홀 바이 업는지라 혼자 말로 허.....저간에 우리 두스름이 그러흔 천신 만고를 지너고 간신히 다시 맞는 것이 모다 허사가 되얏구느」 하고 목을 밧어 죽으라고 양복 질쌍을 글러 막 나무가지 가에 치켜 거는 판에 별안간 엇던 청인 십 여명이 어제밤 모양으로 쏘 달너드러 죽 도라셔는지라 속마음으로 저놈들이 쏘 왓구느오나 안만 쏘와도 이제는 기탄업다 어제밤에 직물 썩앗기고 계집신지 일허스니 지금에는 죽이기 박게 더헛깃느냐 이왕 죽을 스름이 죽인디도 두려울 것은 업다만은 너의 손에 우리 너외가 죽는 것이 지극히 통한하다 하고 싱각홀 지음에 그중 혼 사람이 고두경례하고 명함 혼 장을 너여 주며 금안준마를 압헤 세우고 말게 오르기를 직촉하는디 그 명함은 정임이 명함이오 명함 뒤에 연필로 두어 자 기록한 말은 「천만의외에 부모가 이곳에 계시니 갓분 마음은 썬인지 싱시인지 썩닷지 못헛깃사오며 나도 역시 무스호오니 아모 염녀 말고 급히오시오」 하얏는지라 그 명함을 밧아보미 반가운 마음에 기가 막혀서 「응.....부모가 계시」 하는 소리가 하는 줄 모르게 절로 나가나 마음을 진정햐 그 사리를 다시 싱각하니 혼편으로 의심이느서 「그러홀 리치가 만무흔 일인디 이게 윈 말인고 만일 이 말이 사실 갓호면 희한흔 별일이다 하고 이리저리 연구햐 보니 다른 염녀는 별로 업고 그 글시가 정임이 필적이라 반가운 마음이 다시 느서 곳 그 말 타고 귀에 바람이 느도록 달너가더라

김승지 너외와 정임이는 영창이를 다리러 보닌고 오기를 고디하더니 문 박게서 말굽 소리가느고 영창이가 지도자를 썩라 드러오는지라 김승지 너외는 정신업시 느려가서 영창이 목을 안고 열

꿀을 흔 데 더며 네가 영창이로구는 호고 대성통곡하는데 영창이는 명흠을 보고 오면서도 반신반의하다가 참 부모가 그곳에 잇는지라 평칭에 철천지 원이 되던 부모를 만나니 비감흔 마음이 자연 나서 역시 부모를 붓들고 우니 정임이도 쓰라 우리 우름 흔 판이 쏘 버러졌더라

이쎄 주인 왕씨는 즉시 크게 연회를 베풀호고 김승지의 가족 일동을 위로호는디 왕씨가 영창이 손을 잡고 술을 들어 김승지를 권호며

(왕) 김공은 이러흔 아들과 저러흔 며느리를 두었스니 장덕에 무궁흔 청복을 받으시깃소

호는지라 김승지는 그 말 교덕에 더답호는 말이

(김) 여년이 몇히 아니 남은 터에 복을 받으면 얼마는 맞깃습닛가만은 너가 주공의 덕택으로 사라나서 천형으로 저것들을 다시 보니 그것이 신기흔 일이지오 그러는 주공께 잠진 옛줄 말씀은 너가 주공을 모시고 잇스니 십년에 이 은혜는 티산이 오히려 가비오니 능히 갑할 길이 업소오며 그간 김히 든 정분은 참아 주공을 이별할 수 업습니다만은 서로 죽은 줄 알던 저것들을 맞스니 다시 헤여질 마음이 업슬 쏘아니라 너가 늙어 죽을 날을 아지 못호는 터이오니 이번에 저것들과 혼가지 도라가서 몇 날이 되던지 부즈가 서로 의지호고 사다가 빅골을 고국 청산에 못고자 호오니 존의에 엇더호시오닛가

호며 눈물을 흘니미 왕씨가 그 말 듯고 한참 침음호더니

(왕) 사정이 그러호시깃소

호고 곳 형장을 차라 김승지와 그 가족을 전송호는디 친히 심리장정에 나와 김승지 손을 잡고

(왕) 김공은 다형히 자제를 맞스셔 오릿갓만에 고국을 도라가시니 실로 감축흔 일이올시다만은 나는 십년 친구를 일조에 이별호니 이갓치 감창흔 일은 다시 업소구려

호며 수티를 열고 금화 일만원을 너여주며

(왕) 이것이 비록 약소호는 너가 정의로 표호고자 호야 더리는 것이올시다 형자는 필유신이라니 가지고 가다가 로자는 호시오

(김) 공은 정의로 주신다니 나도 정의로 받아 가지고 가서 노력에 쇠흔 몸을 잘 자양호깃습니

다만은 우리가 모다 늙은 터에 혼번 이별호면 다시 맛스기를 괴약할 수 업스니 그것이 지극히 비창흔 일이 올시다그러

호며 서로 붓들고 우리 참아 늦치 못호다가 김승지 가족 일동은 모다 왕씨를 향호야 빅비사례호고 쎄스니 왕씨는 섭섭흔 마음을 이기지 못호며 보호자를 보니 정거장스지 호송호더라

영창이 너외는 천만의외에 그 부모를 차지미 구경도 더할 생각 업고 여형도 다시 할 필요가 업서 즉시 부모 모시고 만주 남형츠 타고 서울로 도라오며 츄속에서 영창이는 영창이 소경턱을 이약이호고 정임이는 정임이 지너던 일을 자서히 말호니 김승지는 자기 역사를 이약이호나

(김) 너가 초산셔 그 봉변을 당호고 두주 속에 드러안졌스니 늙은이들이 그 지경을 당호야 무슨 정신이 잇깃스냐 그놈들이 세메고 나가는지 강물로 쎄스가는지 누가 견져 가는지 도모지 몰랐더니 아마 그 두주가 강물로 쎄스려 가는디 그쎄 마침 상마적이 물 건너와서 놀락질 히 가지고 가다가 그 두주를 맞스미 그 슝름들 눈에는 무엇이던지 모다 지물로 보이는 터이라 두주 속에 무슨 큰 지물이는 잇는 줄 아랏던지 죽을 힘을 쎄서 견져 메고 갖는 보더라 어느쎄는 되얏던지 간신히 정신을 차려보니 평칭에 보지 못호던 큰집 더청에 우리 너외가 갖치 누엇고 낫 모르는 청인들이 확 들너섯는디 어리와의호는 생각에 우리가 죽어서 밭서 염나부에 드러왔는보다」 호얏더니 그중 엇던 슝름이 지필을 가지고 와서 필담을 호자고 호니 눈은 침침호야 잘 보이지는 아니호고 손은 쎄너 글시도 쓸 수 업스니 간신히 정신을 수습호야 통정을 호는디 그 슝름이 곳 주인 왕씨더라 그 왕씨는 상마적 괴수인디 비록 도적질은 호는 슝름인 즉 글이 문장이오 쏘이 호화호야 훌용흔 풍류남즈요 쏘 천성이 지극히 인자흔 슝름이더라 그런디 그 슝름이 나를 엇더케 보얏던지 그쎄로부터 극진히 보호호야 의복 음식과 거처법 빅을 모다 자기와 호리가 틀이지 아니호게 더점호며 글도 갖치 짓고 술도 갖치 먹고 바둑도 갖치 두고 어덕을 가도 갖치 가이 자연 지귀가 상합호야 호로잇홀 지너는디 너의들이 엇지 된지 몰라 익가 타셔 호시를 견딜 수 업스나 통신은

자유로 못하게 하는 고로 리시중의게 편지도 한번 못하고 잇다가 어느썩인지 기회를 엿어 우체로 편지를 한번 붓쳤더니 다시는 소식이 업기에 너의들이 모다 죽은 줄 알고 그 후로는 주인도 못치 안치만은 나도 도라갈 생각이 적어 그럭저럭 지너니 그 상흔는 마음이야 엿더흐깃느냐 그러는 모진 목숨이 억지로 죽지 못하고 두 늙으니가 항상 울고 오날날씩지 부지흐더니 천만 몽상박게 정임이가 그곳을 왔더구는 정임이 그곳에 온 것이 실로 다형하게 된일이네 정임이가 그곳에 잡혀오단 말이 되는 말이나

이러케 이악이홀스이에 탄환갓치 색른 츠가 어느 겨를에 밋서 압록강을 건너니 충울흔 강산이 모다 보이는 디로 식롭더라

리시중 너외는 정임이 부부 신희여형을 보너딕 그길이 아모 염너는 업는 길이지만은 두 슝름은 천연적풍과를 만히 맞는는 슝름덜이라 흐도 여러번 위험흔 경우를 지너본 터인고로 어린아히 물싸에 보닌것 갓치 근심흐다가 회정히 온다는 날이 되어 잠시가 궁금흐야 평양씩지 내려가서 기다리더니 그썩 정임이 너외가 화기가 만면흐야 오다가 리시중 너외를 보고 츠에 나려 인스흔는 지라 리시중은 그 두 슝름이 잘 다녀오는 것을 딕단히 깃버홀 썩에 엽헤서 엿던 슝름이 별안간 손목을 잡으며 「허.....자네 오릭갓만에 맞는깃네 그려 흐는디 도라다보니 신킨각도 아니흐얏던 김승지가 왔는지라 마음에 씩씩 놀너서

(리) 아 자네 이게 원일인가.....응.....딕관절 엿지 된 일인가

(김) 우리가 다시 못밋눌 줄 아랏더니 서로 죽지 안코 오날 맞는 것이 다형흔 일이오 이 못싱긴 목숨이 사라도라 오는 것은 이게 너 복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 덕일세

흐며 반가운 이악이를 흐고 흐편에는 리시중 부인과 김승지 부인이 서로 붓들고 울더니 리시중과 김승지는 가족들 다리고 그길로 곳 부벽누에 올라가서 그스이 지너던 렉스와 서로 신킨각하던 정회를 말흐며 술잔을 들고 토진간담흐는디 이썩에 아아흔 청산과 양양흔 유수가 보모다 그 술 잔 가온디 빗취엇더라